

지승도 교수(한국항공대)
인공지능에 자아의식
생기면 인류위협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9월 17일) · 주간

제1068호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며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뜻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한다

조계종 '선학원 특별교구화' 재제안

3원장, 정상화위원장 명의로…"종단 협의사항"

법등 스님 "선학원 한뿌리, 종도 잃는 아픔 커"

조계종이 선학원에 특별교구 지정 등의 협의안을 다시 제안했다. 총무원장 등의 명의로 선학원에 제안한 협의안은 정상화추진위의 뜻이 아닌 종단적 협의사안임을 분명히 밝혔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호계원장 지원 스님,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의 명의로 10월 20일 '전국의 선학원 분원 스님들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공고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에는 지난 4월 종단이 제시한 △멸빈된 이사 지위 원상회복 △선학원을 특별교구로 지정 △중앙종회의원 2석 배정 △원로의원 1석 배정 △분원장급 임원에 대해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등이 다시 제안됐다.

자승 스님 등은 공고문에서 "종단과 선학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의 개인 뜻이 아니라 종단적 합의사항"이라며 "종단은 선학원과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선학원 이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일부 이사 스님들의 이해관계나 편벽된 사고에 머물지 말고, 종단과 선학원이 한 뿌리임을 확인하려는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10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피력했다.

법등 스님은 종단과 선학원 이사진과의 갈등으로 피해보는 것은 일선 사찰의 스님들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1만2,000km를 다니며 170여 분의 스님을 만났다"면서 "포교일선에서 애쓰시는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께 종단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알았고,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등 스님은 적지 않은 분원장 스님들은 '선학원과 조계종은 한뿌리'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스님은 "선학원 이사진과 뜻을 같이 하려 한다면 대화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분원장 스님들이 종단과 선학원은 한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런 인식을 가진 스님들께는 선학원 정관 원상복귀를 위한 위임장 서명을 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발표되는 공고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선학원에 제안한 협의 안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종단 차원의 공식 입장임을 강조했다.

법등 스님은 "선학원 특별교구 등을 골자로 한 협의안에 대해 '개인 의견이 아니냐' 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를 불식시키고자 총무원장, 종회의장 등의 공동 명의로 해당 협의사항이 재차 공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학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법등 스님은 "조계종 스님이 사찰을 창건해 종단에 등록하라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9조 3항의 폐해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막상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사유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계종 제안 선학원 협의안

- 멸빈된 이사 지위 원상회복
- 선학원을 특별교구로 지정
- 중앙종회의원 2석 배정
- 원로의원 1석 배정
- 분원장급 임원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선학원 "종단 입장만 강요말라"

조계종의 제안에 선학원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학원 관계자는 "선학원은 조계종이 제안한 5개 항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조계종은 종단의 입장만 강요하기보다 먼저 선학원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학원은 탈종을 기도한 적이 없으며, 종단으로부터 출종을 당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선학원 자체 수계, 교육, 승려증 발급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도 "조계종의 규제에 따른 자구책일 뿐"이라며, "조계종은 분원장들에게 현 사태를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선묵 혜자 스님 등 내빈들이 10월 20일 서울 도안사에서 열린 회향법회에서 108산사 순례기도회 기념공원 제막식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108산사 순례, 9년 대장정 회향

10월 20일 서울 도안사서 회향법회 개최

선묵 혜자스님이 이끄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 기도회'가 10월 20일 108번째 순례지인 서울 수락산 도안사에서 108차 순례기도 회향법회를 열면서 9년 동안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108산사 순례 기도회는 2006년 9월 양산 통도사서 첫 순례를 시작으로 매달 5천명 가량의 회원이 참여해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왔다. 9년 동안 연인원 약 54만 명이 동참해 지구를 204바퀴나 돌았고 여기에는 1만2천여대의 버스가 동원됐으며, 또 순례자들이 총 3천여 가마의 쌀을 공양했고, 군 장병에게 415만개의 초코파이를 보시했으며, 농어촌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회원들이 30억원 어치의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등 각종 진기록을 세웠다.

이날 회향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한국 불교의 올바른 신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기도도량 53곳을 순례하는 '선묵혜자 스님과 믿음으로 찾아가는 53 기도도량 순례' 에 나선다. 김주일 기자

〈관련 특집 16 · 17면〉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

실천승가회 등 불교계 단체 반대 성명 잇달아

동국대 교수도 집필 거부

대불청 · 청교련 등도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불교계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주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종교인 일동은 10월 22일 국회 정론관서 성명서를 통해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장기적 안목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정책을 변화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나 교과서 검인정체계 도입 6년 만에 또다시 국정화로 전환하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서는 그 어떤 철학과 가치관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다양성의 존중' 이라는 민주사회의 가치에 근거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전면 철회해야 하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의 변화는 장기적 안목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체계적이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불교청년회와 대학생불교연합회, 청소년교화연합회 등 청년 관련 단체들도 19일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올바른 역사를 바라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주제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 불교계 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역사 교육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하나' 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교수들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강택구 · 한철호 · 황인규 · 윤선태(이상 역사교육과), 서인범 · 양홍석 · 노대환 · 최연식(이상 사학과) 등 역사 관련학과 교수 8명은 10월 16일 '반민주적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인정 교과서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소중한 산물이다. 정부와 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대학서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우리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은 "현재 정부가 시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될 학문적, 교육적 폭거이다. 정부 여당의 의도대로 국정화가 시행된다면 우리들은 그 집필 및 감수를 비롯한 어떤 과정에도 일절 참여하거나 협조하지 않겠다. 이후에도 국정화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현재 동국대 교수들과 함께 집필거부를 선언한 학교는 연세대 · 고려대 등 총 12곳이다.

한편 이에 앞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불교계서 처음으로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논란에 대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입장문' 을 발표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입장문에서 "정부와 여당은 과거의 역사마저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들만 취합하고자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정화 작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정화 작업은 '창조경제' 라는 희망의 싹을 싹둑 잘라내는 어리석은 짓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 포교대상 수상

조계종 포교원, 10월 15일 포교대상 수상자 선정



성운 스님



효명 스님



일지 스님

포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에서 수여되는 조계종 포교대상 올해 대상 수상자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인 성운 스님〈삼천사 주지〉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10월 15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27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종정상인 대상에는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이,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에는 효명 스님(쌍계사 주지), 일지 스님(인천불교회관 주지), 김기병(포교사단 초대단장), 한복순(범어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법일 스님(완도 신흥사 주지), 대안 스님(금수암 주지), 백거 스님(백담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김상인(공무원불자연합회장), 박경숙(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장), 홍성란(대한불교조계종 전문포교사),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로 6명, 단체 1곳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인 성운 스님은 1978년부터 사찰, 교도소, 군부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했으며, 삼천사 경내 마애불을 국가문화재보물657호 지정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또한 종교위원으로 1440여회 법회를 통해 교정교화 불법홍포에 힘썼으며, 논산훈련소5군단, 30사단 등 군부대법당을 건립하여 군포교에 기여했다.

1994년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해 다양한 복지분야에 사회복지사업을 활용한 불교포교를 이끌어왔가. 또한 미국 LA에 삼천사 포교원을 개설하여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등 직능포교와 사회포교를 아우르는 원력을 펼쳐 왔다.

한편, 제27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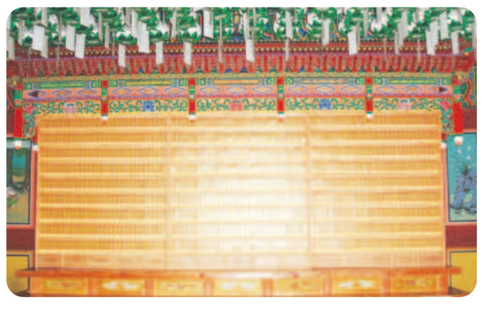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공단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심인은 곧 부처 늘 수행에 힘쓰라”

진각종 성초 총인, 추기강공 법어

2015년 추기 스승강공을 앞두고 진각종 성초 총인이 10월 12일 법어를 발표하고 수행정진을 강조했다.

성초 총인은 법어를 통해 “심인은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서 자성이며, 심공은 자성을 깨달아서 의뢰하지 않고 내가 실천하는 공부”라면서 “마음의 미묘한 공능을 믿고, 마음의 본래 자성은 심인이고 심인은 곧 부처라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주의 법신불과 자성의 법신이 하나인 사실을 증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각행자는 늘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행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진각종은 10월 20일 서울 총인원에서 ‘개명정진’을 주제로 진기 69(2015)년도 추기 스승강공을 봉행했으며,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 설법전서 전법금강관정불사와 전법연화관정불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사(印師) 14명 · 범사(梵師) 3명 등 17명 행계가 품수됐다.

이외에도 10월 16일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는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 52주기 추념불사를 봉행하고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주일 기자**

법보종찰 해인사 인근 대형 축사 건립이라니

가야산환경위 15일 성명 발표

최근 합천 해인사 인근에서 대규모 축사가 건립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야산환경수호위원회는 10월15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전은커녕 해인사 인근에 대형 축사 건립을 허가한 합천군은 당장 시정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수호위원회에 따르면 가야면 황산리 축사는 2011년 합천군으로부터 건립 허가를 받았다. 1498평 규모로 계획됐으며 최근까지 사업이 연기돼왔으나 올 하반기 공사를 착수해 50% 정도 진행된 상태다. 문제는 대형축사 인근에 가야산국립공원과 대장경테마파크, 청량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수호위원회는 “축사의 오 · 폐수, 분뇨 악취, 해충 등이 유입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야 할 관광지역의 훼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해인사 인근인 탓에 축사 건립 이후 파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축사 건립 허가를 취소할 것과 허가 업무를 담당한 합천군 관계자를 문책하고 합천군수는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신성민 기자**

“교구책임제, 공감대 형성부터”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교구활성화 방안 세미나

교구책임제 도입 위해서는 종단적 여건 조성 우선돼야 교구 공의 체제 확립 필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10월 22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계종 소속 교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0월 22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람직한 교구운영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박재현 화쟁아카데미 사무국장은 교구책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 사무국장은 교구책임제 시행을 위한 과제로 △교구법 제정 △교구대중 공의에 의한 운영체재 확립 △교구책임복지제도 시행 △교구 재정 및 인사권 부여 △교구 종무행정역량 강화△교구에 대한 정기적 교육 및 연수 △교구 관할 구역 획정 및 제도화 △직할교구 분구 및 교구 모델화 △교구의 의사 반영구조 강화 등을 꼽았다.

교구법 제정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교구책임제의 방향, 구성, 내용, 운영, 권한 등을 명시한 '교구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구 차원에서 규칙 등을 제정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구책임제에서 가장 우려할 점으로 ‘제왕적 교구본사주지’를 꼽은 박 사무국장은 교구 대중의 공의에 의한 운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교구 공의 체재 확립을 위해 교구 종회와 사찰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박 사무국장은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사무국장은 “교구종회가 일방적 종책 전달 공간이 아닌 사찰 등의 의사 소통의 장이자 종책 결정의 자리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사의 재정을 교구로 통합해 운영하는 ‘교구공영제’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박 사무국장은 “교구책임제의 시행에 있어서 핵심사안 중 하나가 교구 재정 확충”이라며 “교구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직영사찰, 특별분담금 제도를 활용해 교구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 처분, 임대, 신축, 관람료 사용 등 재정 관련 권한을 교구로 이관하고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교구책임제로의 전환은 종도들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교구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 종단 집행부는 중앙집권제를 선호하는 입장을 가진 종도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 의사결정권자인 총무원장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교구활성화를 위한 본사의 기능과 역할’을, 박문수 한국 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이 ‘가톨릭 교구의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토론자로는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총무원 총무국장 명본 스님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종무기관 예산 250억원 편성

본사주지회의서 내년 예산 보고… 중점 과제에 초점

‘성역화불사모연의 밤’ 등 안내 “승가 모욕 단호히 대처” 결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 250억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0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종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33대, 34대 집행부를 통해 꾸준히 일궈온 불교중흥의 씨앗이 지방행정시대를 맞아 각 교구에서 꽃이 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종단의 미래, 불교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주춧돌로 버팀목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 기획실이 보고한 불기 2560(2016)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은 250억 236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종단 목적 사업 추진과 중점 과제에 대한 예산 확보에 따라 이뤄졌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이 눈에 띄게 이뤄졌다. 중앙분담금의 경우 2015년 배정액과 비교했을 때 약 6억 90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중앙종회에서 분담금납부에관한 법에 의한 분담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본사 주지 스님들은 종단 목적사업과 중점 종책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분담금 증액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분담금 책정과 교구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 대 · 내외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사찰 현안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16일 오후 6시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서 열리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의 밤 행사에 교구본사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본사 주지 스님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국대 및 용주사 문제와 관련한 일부 단체들의 의혹 제기로 종단의 명예와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만큼 종단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예산 관련 기사 차주상보〉

“사회 난제 해결 극복에 힘쓸 것”

여래종, 18일 창종 50주년 기념 법회

진신사리 황금목탑 제막도

(재)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은 10월 18일 충북 옥천 대약사서 종단 창종 50주년 기념 및 부처님 진신사리 황금 목탑 제막 법회를 종정 인왕 스님, 총무원장 명안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종정 인왕 스님은 “여래의 방에 들어간 마음, 여래의 옷을 입은 마음, 여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법화정법을 설하고 행해야 한다”며 “세 가지 마음이 갖춰져야 교화할 수 있으며 효과가 크다”고 설했다.

이어 총무원장 명안 스님도 봉행사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와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는 일,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 등 오늘날 우리는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앞으로 맞이할 여래종의 미래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일이 바로 창종 50주년을 맞이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창종 50주년을 맞은 여래종은 남한산성 약사사를 중심 사찰로 현 종정인 인왕스님의 원력으로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께 올리는 만발공양을 1983년부터 현재까지 주 6회 1일 300여그릇의 공양을 올리며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재)한국불교여래종은 10월 18일 충북 옥천 대약사서 종단 창종 50주년 기념 및 부처님 진신사리 황금 목탑 제막 법회를 개최했다.

고소 · 비방… 혼란 속의 조계종

스님 신상 의혹 제기에 서로 고소 ‘법적 공방’

상호 간 비판 성명 연이어

스님의 개인 신상 의혹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단체와 스님 간의 쌍방 고소와 비판 성명으로 불교계가 멍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용주사다. 용주사는 지난 10월 16일 주지 성월 스님 명의로 비상대책위 추진위원장과 공동위원장, 사무총장, 대변인 등 4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대활동을 한 우희종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와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도 고소했다.

용주사 주지 산문출송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4일 조계사 일주문 건너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입구에서 ‘5차 수호법회’를 가지는 등 꾸준히 현 주지 성월 스님의 비위 사실을 비판하는 집회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연대 단체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9일 중앙종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총무원은 입장문을 통해 “종단 호법부를 통한 진상조사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중앙종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며 “중앙종회를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총무원은 결과에 따라 종헌종법에 입각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용주사 주지 산문출송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수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중앙종회로 넘김다는 것은 단지 시간 끌고, 책임 회피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범종단 제2정화추진위원회’가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을 겨냥해 ‘종단 퇴출대상’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집행부 스님들은 10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10월 14일 제2정화추진위원회라고 주장하는 스님들이 창립기자회견을 열어 일면 스님을 퇴출대상이라는 망발을 퍼부었다”면서 “일면 스님의 사찰 탱화 절도 은닉에 대해 공공연히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명확한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종단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해종행위에 대한 종단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최근 종단은 동국대학교와 제2교구본사 용주사 등 종단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사자의 단호한 해명과 명예훼손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비방과 음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애종심’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제기의 정도가 매우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종도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변질되고 있어 종단과 승가공동체 전체의 존엄과 권능마저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교계언론은 사실과 객관성이 결여된 일부의 주장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듯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종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수많은 종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지속적인 음해와 비방, 급기야 종권 퇴진이라는 해종행위로 변질된 작금의 상황은 더 이상 이를 용인하고 묵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정법의 당간지주에 파사현정의 깃발을 세우고, 종단과 승가공동체의 존엄을 훼손하는 해종행위 세력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종단 차원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특히, 호법부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와 더불어 강력한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비방으로 종단의 혼란을 야기하는 해종행위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해 종단 호법부를 향한 대중의 우려스러운 시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헌종법에 입각한 진상조사와 결연한 의법조치로 자정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으로부터 제2교구본사 용주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따라서 중앙종회는 문중이나 이해관계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종헌종법에 입각한 진상조사와 결과에 따른 결연한 의법조치를 통해 종도들의 잠재된 불신과 의혹이 한 점 의혹 없이 해소되어야 하며, 이것이야 말로 종단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제방의 사찰은 상당한 위기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사찰 환경은 피폐해지고 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사찰이 처한 현실입니다. 또한 종교인구의 감소, 고령화, 출가자의 감소 등 한국불교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출가수행자들은 내성불구(內省不疚)의 마음가짐으로 수행정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종단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해종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 2559 (2015)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

“사형제 폐지, 19대 국회서 해결하라”

7대 종교 수장 20일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제정 성명

한국 7대 종교가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주창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 달여 남겨두고, 국회에 사형제도폐지 입법을 적극 촉구하기 위한 연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은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총 6건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돼 왔다. 이에 19대 국회는 지난 7월 6일 새누리당 42명 ·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 정의당 5명 등 재적과반수가 넘는 172명 의원이 ‘사형제도폐지를위한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불교 · 천주교 · 개신교 · 유교를 비롯한 한국 7대 종단대표(이하 7대 종단 대표)는 10월 20일 국회정론관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국회통과 호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7대 종단 대표가 사형제도폐지 호소문을 공동 발표한 것은 2001년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출범 이래 처음이다.

이번 성명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장,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박남수 천도교령, 어윤경 성균관장, 한양원 한국민종종교협의회장 등 동참했다.

7대 종단 대표는 “한국은 18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2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제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절차만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7월 국회 발의 특별법
사형제 폐지 입법위해 연대
공동 발표, 2001년 이후 처음

“한국은 준사형제 폐지 국가
입법 통해 사형제 폐지하라”

이어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은 이미 4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유예)을 선언했다. 한국은 UN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또 UN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은 1991년 ‘사형폐지를목표로하는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를 발효시키며, 전 세계 국가에 대해 사형폐지를 천명한 바 있다.



불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는 10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입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7대 종단 대표는 “193개 UN 회원국 중 14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했다”며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그럼에도 강력 범죄 발생 시마다 사형집행 재개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언급했다.

종교계는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국회서 발의된 특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 이 시기가 바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또한 일반적으로 12월에 사형집행이 가장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전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형집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은 생명존중을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로 여기셨다. 인간의 생명을 두고 법 제도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참된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불교인들이 나서 사형폐지 운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웃으면, 세계가 함께 웃어요”

문화사업단 · 관광공사 22일 ‘K스마일’ 협약

불교계가 범국민적 친절문화 운동인 ‘K 스마일’ 캠페인에 동참하는 데 앞장선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10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K스마일 캠페인의 범국가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서명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과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통해 이뤄졌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조계종은 ‘K 스마일 캠페인 :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국민 참여 친절운동에 불교계가 앞장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템플스테이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인의 한국방문을 독려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는 10월 22일 ‘K 스마일’ 캠페인의 범국가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님은 왜 컵을 청와대에 보냈을까

법응 스님 ‘설악산 케이블카 No!’ 등산용 컵 배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법응 스님이 국민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홍보용 ‘등산 물 컵’을 제작 · 배포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10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등산용 컵’을 나눠줬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No!’란 문구가 쓰인 등산용 컵은 1차로 3백 개가 제작됐으며, 2차에는 3천 개를 만들어 설악산환경보호단체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법응 스님은 “국립공원 보호에 대한 성찰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 및 관련부처장들에 1차 제작분을 22일 소포 발송했다”며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에게는 응원에 의미를 담아, 불교계 지도층에는 국립공원 보호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자 등산용 컵을 제작 · 배포했다”고 밝혔다.

법응 스님은 컵과 함께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간곡히 요청하는 편지를 동봉했다. 법응 스님은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자연보호 시설이 아니라 ‘파괴의 엘리베이터’”라며 “자연과 생명을 소비 · 착취해 끝내 병들게 만들 가장 빠른 수단이다. 서식지 파괴와 생태계 교란, 산림경관 훼손으로 인해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저하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강원도가 합심해 추진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는 명백히 ‘자연공원 삭도설치 · 운영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 사업 허가과정서 심각한 절차상 문제도 밝혀졌다”며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님은 환경파괴 위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스님은 “인간이 산과 자연 앞에 고개 숙일 때 육체와 정신, 나아가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10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등산용 컵’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조계종복지재단, ‘창립20주년’ 법회

11월 23일 AW컨벤션센터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창립20주년을 맞았다. 이에 20년 역사를 기념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 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1월 23일 오후2시~8시 AW컨벤션센터에서 ‘창립20주년 기념법회 및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1부 학술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부 기념법회, 3부 힐링 콘서트 ‘더 나눔’, 4부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본 행사인 창립20주년 기념법회서는 유공자 시상 및 자비나눔 유공자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장상 · 보건복지부장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시상이 예정됐다.

자승 스님은 “부처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 원력을 구현하기 위해 조계종복지재단이 출범한지 어언 20년 세월이 흘렀다”며 “창립20주년 기쁨을 함께하고 불교 사회복지 재도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사부대중과 사회복지인들의 수희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전법회관 1층 복합문화공간 재탄생

조계종 중신회 11월 3일 ‘카페 바라밀’ 정식 개관 신도 소통 공간으로 활용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자들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했다. 행복바라미 브릿지센터 역할을 할 ‘카페 바라밀’이 그것이다.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1월 3일 복합문화공간 ‘카페 바라밀’(행복바라미 브릿지센터)을 개관한다. 전법회관 1층과 지하1층 교육관을 활용한 카페 바라밀은 회의실과 세미나실, 카페 등을 실비만 내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1층 카페에는 카페 시설과 함께 스터디룸, 불교계 단체 홍보시설이 자리해 있다.

먼저 1층 20평 규모의 까페에는 20평 규모로 스터디룸이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불교계 단체의 행사소식을 알리는 TV 등이 설치돼있다. 40평 규모의 지하에는 빔프로젝트, 영상 및 음양시설 등이 갖춰진 세미나실이 마련돼있다. 이 공간은 각종 회의 및 전시전 등이 가능하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이 카페 바라밀 내에 비치된 불교계 업체들의 홍보물을 설명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조계종 신도들을 비롯한 불자들에게 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를 원칙으로 각종 보시를 활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카페 바라밀을 행복바라미 운동의 중심 연결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도들의 신행생활의 중심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층 카페의 경우 불교계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불교계 출판사들의 서적도 홍보하는 홍보관 역할도 한다. 또 불교계 NGO 단체 활동을 소개, 회원 가입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그동안 불교계에 불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이번 카페를 개관하게 됐다”며 “불교계 소규모 행사 및 전시 스터디룸, 회의실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특히 신행모임의 중심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찾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혜조 스님 임명

20일 임명장 수여… 비구니 스님 최초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에 혜조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결사본부 사무총장에 비구니 스님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에 혜조 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최초로 비구니 스님이 소임을 맡아서 분위기도 새롭고 기대도 크다" 면서 "사무총장 소임이 어려운 자리인 만큼 인내를 갖고 소임을 맡아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에 신임 사무총장 혜조스님은 "본부장 도법스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혜조 스님은 정인 스님을 은사로 1974년 표충사에서 수계(사미니계) 하였으며, 청룡암, 지산사 주지,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포교사단, 9대 단장 윤기중 선출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곽명희) 9대 단장에 윤기중 포교사단 현 수석부단장이 선출됐다. 포교사단은 10월 22일 서울 우리함께빌딩 5층 사무소에서 포교사단장 및 감사선거를 갖고 단독 입후보한 윤기중 부단장을 새로운 단장으로 선출했다. 신임단장의 임기는 2016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윤기중 신임단장은 2006년 포교사 품수를 받고 군포교팀장, 서울지역부단장, 수석부단장 등을 역임하며 10년 간 포교사단을 위해 일 해왔다.

윤 신임단장은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 주신 운영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시 구성되는 지역단 집행부와 원활할 소통으로 전 단장들이 가꿔온 나무에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은해사, 자비나눔기금 2150만원 전달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10월 22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자비나눔기금 2150만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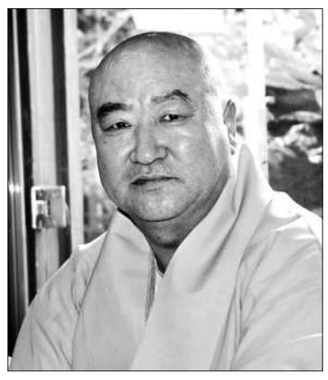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아름다운 동행의 자비나눔사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며 "연말 자비 나눔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돈관 스님은 "더 많은 기금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 좋은 일에 써달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나누는 일에 앞으로도 은해사 본 · 말사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무행정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

법화종, 신임 총무원장에 도성스님



21일 기자간담회서 종단 8대 기조발표

교구종회 활성화, 종헌종법 재개정 등

"신뢰와 화합으로 원융살림을 열어가겠으며, 8대 기조를 표방하며 법화종의 새 역사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제 19대 총무원장에 도성스님(통영 안정사 주지)이 선출됐다. 도성 스님은 18대 총무원장 혜륜 스님 입적에 따른 직무대행을 맡아 1년여 동안 종무행정을 무리 없이 이끌어 온 것이 선거인단의 마음을 움직여 당선된 것으로 정해졌다.

10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서울 인사동에서 갖은 도성 스님은 법화종 운영의 8대 기조로 △총무원-교구-말사 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소통 △종무행정 시스템의 전산화 △수행종풍 진작 △총무원, 사찰 재정투명화 △통영 안정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추진 △효율적 분담금 책정으로 재정기반 구축 △승려교육 및 포교활성화(해외포교) △종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어 도성 스님은 "먼저 총무원과 교구 말사 등이 공찰이 아닌 개인사찰이 많다보니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해 소통을 강화하고 '교구원장 종무회의'를 더 한층 강화하고 아울러 교구종회도 활성화시켜 원융살림을 이끌수 있도록 중앙종무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담에 힘쓸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종무행정 시스템의 원활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님은 "1946년 창종한 법화종이 내년이면 창종 70주년을 맞습니다. 한일불교협회의 창립멤버였던 법화종이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분쟁으로 교구와 사찰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종단 차원의 통일된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무 전산화 3개년 사업을 원년으로 내걸고 추진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성 스님은 "무엇보다 법화종이 창종 당시의 면모를 갖추려면 현실에 맞는 종헌? 종법의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50개 사찰마다 중앙종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데, 소선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10명 이하인 선거인단을 3~40명으로 확대해 향후 제 20대 종무원장 선거는 여법하게 치르고 싶습니다"고 바램을 피력했다.

도성 스님은 또한 법화종만의 전통수행법을 연구해 이를 종도들에게 유포하고 올바른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화수행입문'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성 스님은 종단 교육중심 도량인 안정사에서 분기별 승려연수교육과 함께 종도 재교육도 실시한다. 교재편찬을 위해 불교학자 들을 초빙하고, 이들을 각 교구 및 말사의 불교교양대학서 강의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법화신앙과 관련 있는 종단과 문화 교류를 맺고 해외성지 순례도 정기적으로 갖는다. 한편 신임 총무원장 도성스님은 법화종 중앙종회 부의장과 총무원 감찰부장 등 종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취임식은 11월 초에 봉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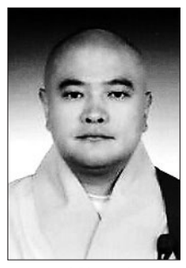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진 인사 잇달아

국제 정범, 정무 도견, 홍보 법원 스님


정범 스님


도견 스님


법원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진이 새로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국제 특보에 정범스님, 정무특보에 도견스님, 홍보특보에 법원스님을 임명했다. 국제 특보에 임명된 정범 스님은 지운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덕사에서 수계(사미계) 하였으며, 옥천암 주지, 총무원 기획국장, 교육원 교육국장, 총무원 총무국장, 제14, 15대 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6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무 특보 도견 스님은 혜성스님을 은사로 1992년 도선사에서 수계(사미계)하였으며, 호법부 상임감찰, 총무원 기획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16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보 특보 법원 스님 혜향스님을 은사로 1996년 직지사에서 수계(사미계)하였으며,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대성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제16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日 이끼섬 한국 조난자 극락왕생 기원"

수곡사, 10월 15일 일본 현지서 위령재



경주 수곡사(주지 자엄)는 10월 15일 일본 이끼섬에서 한국인 조난자 위령재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울산 동구 사암연합회, 수곡사 선다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끼섬 조난자 사고는 1945년 10월 11일 고국으로 귀국하던 중 태풍으로 인해 일본 이끼섬 아시베항에서 조난을 당했던 일이다. 이로 인해 168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7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위령재는 전야 행사로 조난당한 아시베항에서 조난자들을 위로하는 추도식과 168위 조난자 수대로 유등을 바다에 띄어보냈다. 15일 본행사인 위령재는 일본 천덕사에서 열렸다.

수곡사 주지 자엄 스님은 "앞으로도 한국 조난자 위령재를 통해 그들의 넋을 기리고 한일 우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그들의 유골을 수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대원불교조계종 제 5회 수륙대재



사)대원불교조계종(종정 청봉)은 10월 18일 거제 조선해양문화관 광장에서 제5회 세계평화와 국태안민을 위한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수륙대재에는 종정 청봉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수오, 덕오 스님, 총무원장 혜오 스님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종정 청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 자리의 모든 영가들과 참석한 대중들은 함께 지심으로 영가 천도를 기도해 제일가는 공덕을 지으라"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원공당 정무 스님 추모다례재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10월 15일 원공당 정무 스님 4주기 추모 다례재를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대구 보문사 주지 도성 스님, 김해 모련사 주지 태형스님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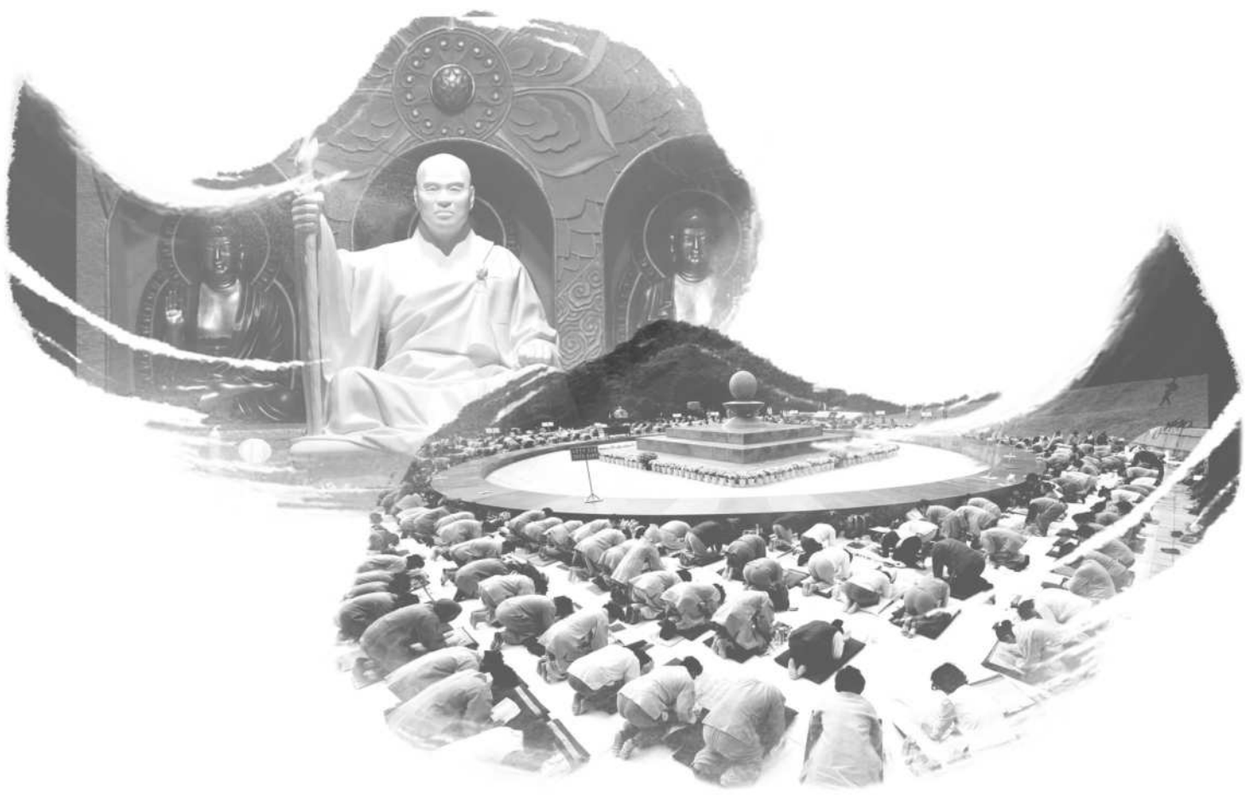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생전에 법왕사에서 감로법문을 내리셨고 우리 불자들을 이끌어 주셨던 큰스님의 유덕을 기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 법당 개원법회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0월 16일 안전서 건물 5층에 부처님 점안식과 법당개원 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정각 스님(미룡사 회주), 부산해양경비안전서 경승실장 호법 스님(영도구불교연합회 회장),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 오산 스님(대원사), 혜암 스님(혜원사),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김홍희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및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성철 대종사 열반 22주기 추모참회법회



성철 큰스님 열반 22주기(양력 11월 1일, 음력 9월 20일)를 맞이하여 성철 스님 문도회는 '성철 대종사 추모참회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참회법회는 10월 28일 입재하여 만 4일동안 4만 8천배 참회를 백련암에서 올리며 10월 31일 사리탑전 삼천배, 11월 1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의 추모다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법석에 수희동참하시어 성철 큰스님의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남 모르게 남을 도우라'는 가르침을 실천하여 마음에 큰 공덕을 쌓기를 바랍니다.

주요일정
10월 28일(수) 오전 7시 : 입재식(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10월 31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사리탑전 삼천배
11월 1일(일) 오전 7시 : 회향식(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11월 1일(일) 오전 10시 : 성철 대종사 추모재(해인사 대적광전)

문 의
서울 백련불교문화재단(02-2198-5101, 5372)
부산 고심정사(051-464-0068)
합천 해인사 백련암(055-933-5775, 055-932-7300)

해인사 백련암 · 성철 스님 문도회
www.sungchol.org



마하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금산사, 선운사는 10월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아시아 문화축제 '다꿈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사진은 개막식 이후 열린 각국 장기자랑 시간에서 자신의 국가의 전통의상을 입고 무용을 선보이고 있는 이주민들.



지방 다문화축제로는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 축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참석했다. 네팔 문화 부스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는 자승 스님.



축제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됐다. 투호를 체험하고 있는 이주민들.



태국 불자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행사장을 행진하고 있다. 이날 축제에는 9개국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민 2000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화환을 받는 내빈들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자승 스님, 진오 스님.

세계는 한송이 꽃… 함께 하니 모두 '한마음'

2015 아시아문화축제 다꿈 어울림 축제

결혼과 취업, 유학 등 저 마다 부푼 희망을 안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의 숫자는 어느덧 170만명.

이들 다문화 이주민들은 어느덧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웃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한국사회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마하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공동대표 진오)와 금산사(주지 성우), 선운사(주지 경우)는 10월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아시아 문화축제 '다꿈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One world, One mind, One flower'를 주제로 동남아시아 9개국 2천여 명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동참해 성황을 이루었다.

동아시아 9개 국가의 다양한 전통과 종교문화를 체험하고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 한마당으로 치러진 이 날 행사는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를 마련하는 계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열리던 행사는 과감하게 지방 개최를 추진하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의 협조와 더불어 (사) 착한벗들, 지구촌 공생회, 전북불교네트워크, 국제 포교사회 등 관련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그동안 열린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정문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

선운사 · 마하이주민협 등 주최해
다문화 이주민 2000여 명 참가
지방 다문화축제 중 최대 규모
각국 종교 · 문화 체험 행사 다채
"고국 소식 교류한 즐거운 자리"

공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상직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장이 참석했다.

또 한국에서 거주하며 자국 사람들의 신행활동을 돕고 있는 구미 산띠스리(구미 이주민 법당) 스님 등 외국인 스님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다문화라는 말은 회자되고 있지만 국민이나 불자들이 그 의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향기롭고 고마운 일인가를 다시금 성찰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미 이주민 법당 싼띠스리 스님은 "한국의 불교계가 이렇게 이주민들을 위한 잔치를 마련해 너무 감사하다" 며 "한국인들이 이주민들을 다정한 이웃과 동반자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또 선운사, 금선암, 참좋은 우리절, 거제 금강사, 울산 해남사, 진주 의곡사, 대전 현불사, (사) 자비명상 등의 사찰은 베트남 원오도량, 좋은이웃 등 이주민 법당, 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약정했다.

행사가 열린 화산체육관 주변에는 참가국과 이주민 법당의 홍보부스가 마련돼 마치 아시아 불교박람회를 연상케 했다.

전통과 문화로서 한국 불교의 가치를 알리고 동아시아 불교의 다양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각국의 불교문화체험부스가 마련됐다.

태국, 미얀마, 베트남 , 네팔 등의 이주민들은 각국의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전통무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 각국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음식 시식코너도 마련됐다.

한국의 사찰음식을 비롯해 아시아 참가국들의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한국전통의상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의상 전시부스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함께 서로 어울리며 즉석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고 즉석 노래자랑도 펼쳐졌다.

이밖에 불교의료자원봉사 단체인 '108 자비손'에서 마련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부인과 진료와 무료진료상담 부스는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 온지 9년째를 맞이한 랄 마니(네팔. 30세)는 "회사에서 재미있게 일하다가도 고국의 가족을 생각하면 많이 힘들었다" 며 "네팔 출신의 같은 노동자들을 만나 고국소식도 듣고 함께 즐기는 자리가 마련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체육관에서 진행된 국가대항 배구대회에서는 광주 외국인센터 인도네시아 팀이 몽골팀을 누르고 우승했다. 또 이주민 법당별로 참가한 장기자랑에서 대상에는 화성봉담 태국사찰이 우수상에는 스리랑카 마하위하라사원과 캄보디아불교센타. 인기상에는 베트남 원오도량이 차지했다.

아시아 문화축제는 이주민들에게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주민과 한국 일반인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한편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일원"

회일스님 (아시아 문화축제 실무추진단장, 참좋은우리절 주지)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 갈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다양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나 결혼이주 여성들과의 갈등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 갈등 속에는 분명히 차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양상을 어떻게 통합하고 소화하느냐는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현대와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2015 아시아문화축제' 실무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회일스님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을 이제 당당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일스님은 이주 노동자들을 한국이 세계로 나아가는데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는 이주 노동자들을 돈만 벌어가는 집단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 파트너로서 인정해야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전반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결혼이주여성들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칫 잘못하면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한국인들이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민들도 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차별없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님은 이번 아시아 문화축제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전북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제/의/신/간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리며 돌풍을 일으켰던
남산큰스님 - 10년만에 「기적의 패치요법」 출간

남산스님의 기적의 패치요법

패치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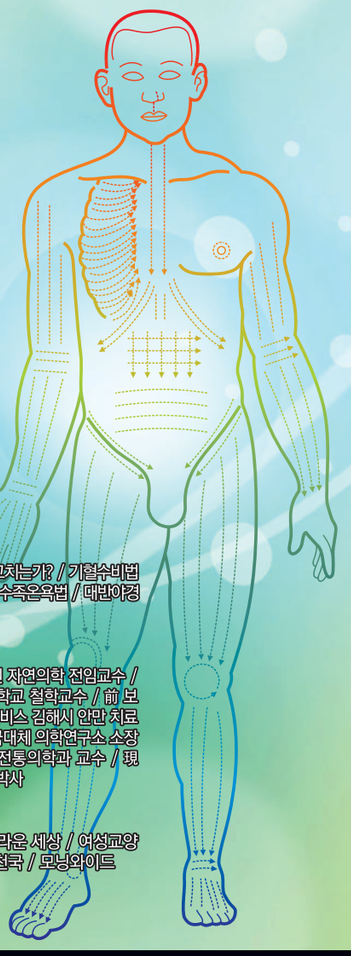
아무리 심한 기침과 콧물 감기도
패치를 붙인 후 3분이면 뚝!
(본문 중에서)

술을 마신 다음날 주독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오는
설사와 몸살도 패치 한 장이면 말끔!
(본문 중에서)

오래된 위장병도
패치요법 15일이면 통증이 싹!
(본문 중에서)



정가 10,000원 (포켓북)



저서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 기혈수배법 / 기적의 파스요법 / 수족운욕법 / 대변이경 外 다수

약력
前 녹색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 전임교수 / 前 몽골 징기스칸 대학교 철학교수 / 前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김해시 안마 치료 재활 기관장 / 現 한국대체 의학연구소 소장 / 現 몽골 의과대학 전통의학과 교수 / 現 아치의과대학교 의학박사

방영
MBC 화제집중 / 놀라운 세상 / 여성교양 강좌 / SBS 호기심천국 / 모닝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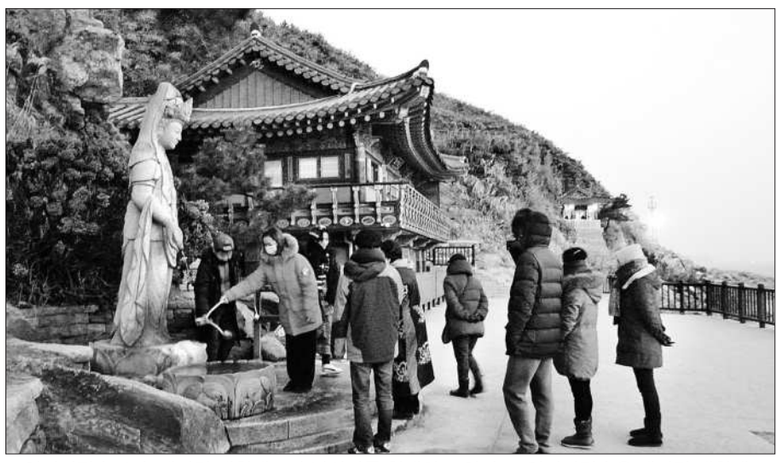
※기업체/포교원/사찰 패치요법 무료강연 신청 받습니다.(50명이상)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주문전화 080-300-9928

“새터민 포교, 통일 한국 이끄는 길”

불교 새터민 포교 새장
선도하는 ‘통일바라밀숲’

 # 새터민 조경덕(38, 한국외대 재학) 씨는 늦깎이 대학생이다. 탈북해서 남한에 대학에 입학해 공부하고 있다. 또한 늦게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새터민과 결혼하게 됐다. 낯선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니 기대와 설렘,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든든하다. 어머니와 같은 불교 단체 ‘통일바라밀숲’의 지원이 있어서다.


통일바라밀숲 소속 새터민 대학생들이 낙산사를 참배하고 있다. 통일바라밀숲은 새터민 대학생 33명에게 매월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새터민 포교에 앞장 서고 있다.


통일바라미숲 공동대표 남지심

새터민 지원단체 ‘통일바라밀숲(공동대표 남지심, 배광식, 임성수)’가 불교계의 새터민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새터민 대학생 장학금 및 사회적 후원을 위해 2013년 5월 결성된 ‘통일바라밀숲’은 현재 33명의 새터민 대학생들에게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통일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기도 했다. 3명의 새터민을 지원하면서 시작했던 처음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남지심 공동대표는 “새터민 청소년 · 대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통일 이후 남북을 잇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결성했다”면서 “불교적 숫자인 ‘33’명 정도만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원력을 세웠는데 이뤄졌다. 여기에 첫 기혼자가 생긴다니 기쁘다. 그들에게는 내가 보호자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탈북 대학생 33명 매월 지원
견학 · 사찰 탐방 등 사업 진행
10월 31일 1호 기혼자 탄생
지난 8월 통일부 단체 지정도

통일바라밀숲은 단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 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터민 대학생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통일바라밀숲의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정기모임 △매월 장학금 지원 △한국 근현대사 강좌 △각계 각층 사회 저명인사 멘토링 △1:1 엄마 인연 맺기 △한국문화재 답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 △한국어 및 글쓰기 교육 △문학창작집단 바띠 수강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 등이다.

새터민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결연을 통한 보시를 통해 이뤄진다. 잠실불광사, 천안 천불사는 운영 초기부터 지원을 해왔고 조계사, 봉은사, 낙산사, 불영사, 운문사 등도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남지심 공동대표는 “새터민들의 80~90%는 개신교의 영향을 받는다. 실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교회를 찾는 새터민들에게 월 40만원의 생활비와 취업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신교의 선교 공세는 부정적으로 본다. 불교는 새터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불교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터민 포교는 개인 원력이나 일부 사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 한국을 위한 중요한 계층 포교의 지점이지만 뚜렷한 구심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남지심 공동대표는 “새터민 포교는 통일 한국을 이끄는 중요한 불사”라면서 “종단 차원에서도 새터민 포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통일바라밀숲의 새터민 포교에 스님과 불자들의 후원이 많아졌으면 한다”면서 “현재는 33명만 지원하고 있지만 후원이 늘어나면 108명까지 지원하고 싶다”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 취업난 극복위해 ‘오작교’ 되다

10월 22일 제5회 종로구&조계사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난 극복을 위해 불교계와 지역사회가 발 벗고 나섰다. 지역사회 일자리를 구인구직자들에 소개함으로써 취업 및 채용사이 맞춤형 ‘오작교’가 된 것이다.

서울 조계사는 10월 22일 대웅전 앞마당서 ‘제5회 종로구&조계사 일자리나눔터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조계사는 종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합심해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시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12개 기업서 참여해 약 40개 일자리가 소개됐다. 참여기업은 △서울여자간호대학 휴먼캐슬-급식조리원(1명) △한국고용복지센터-현장노무직(10명) △시너어앤파트너즈-콜센터상담원(10명) △종로노인재가복지센터-재가요양보호사(3명) △에스디상사-주차관리원(3명) △풀무원녹즙 종로지사-배달원(5명) △조계종국제전법단-간사(1명) △조계사-제사공양팀(2명) △범어사 청련암-공양주(1명) △삼원사-공양주(1명) △자재병원-조리사 및 조리원(각 1명) △공평아트-주방보조(1명) 등이다.

구직자들은 박람회에 마련된 부스에서 순서에 따라 구직컨설팅, 채용면접, 취업교육안내 및 홍보, 사은행사, 상담 및 홍보 등에 참여했다. 한설(여 · 56)씨는 “취업교육안내 부스서 사무직 경력을 얘기했더니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몇 곳 소개해줬다”면서 “다음 박람회 업체 선정시에는 시니어들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직종을 고려한 업체들이 많이 참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박람회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직접 일일상담사로 나섰다. 지현 스님은 “80세 노인이 안타까운 개인사를 털어놓으며 구직 상담을 하는데 마음이 아팠다”며 “앞으로 불교계가 사회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도움을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10월 처음 시작해 올해로 5회째 맞는 채용박람회에서 누적합계 약 150명, 약 37%가 구직에 성공했다. 총 방문객은 320명에서 시작해 4회차에는 450명에 이르며 꾸준한 반응을 얻고 있다. **박아름 기자**


서울 조계사는 10월 22일 대웅전 앞마당서 ‘제5회 종로구&조계사 일자리나눔터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흥천어린이집, 국토부 선정 ‘올해 한옥상’ 영예

10월 12일 2015대한민국한옥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성북구청장, 회주 정념 스님에 감사패 수여


서울 돈암동에 위치한 흥천사(회주 정념) 부설 흥천어린이집이 2015대한민국한옥공모전 ‘올해의 한옥상’을 거머쥐었다. 사진은 흥천어린이집 전경.

서울 돈암동에 위치한 흥천사(회주 정념) 부설 흥천어린이집이 2015대한민국한옥공모전 ‘올해의 한옥상’을 거머쥐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 2015대한민국한옥공모전을 발표하고 ‘올해의 한옥상’에 흥천어린이집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31일 대한민국한옥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접수된 6백여 개 작품을 심사한 결과다.

흥천어린이집은 연면적 591㎡로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국비 및 시비 포함 약 22억 원이 투입되어, 2014년 4월 1일 착공 후 1년 만인 2015년 4월 26일 완공했다. 흥천사 측은 “원래는 겉만 한옥 형식의 현대식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전통사찰에 어울리는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는 정념 스님 뜻에 따라 설계를 다시 했다”며 “이에 따라 국비 및 시비로 총 예산 19억 5천만 원에 사찰 자부담 약 3억원을 추가 투자해 전통한옥양식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서울시 최초 한옥 어린이집 건립으로 성북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10월 18일 흥천사 회주 정념 스님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흥천어린이집을 설계한 김용미(주)금성종합건축사무소 대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함께 이뤄졌다.

정념 스님은 “서울 최초 한옥양식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감사드린다”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편히 찾아올 수 있는 ‘문턱 낮은 사찰’이 되겠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삼보회, 2기법사 · 7기포교사 품수식 봉행

10월 18일 삼보정사서… 법사 8명, 포교사 13명 배출

군법당 · 병원 · 도심포교원 등 포교 사각지대서 불법 수호에 앞장설 포교사와 법사가 새로 탄생했다.

(사)대한불교삼보회(이사장 박호석, 이하 삼보회)는 10월 18일 서울 성북구 삼보정사서 제2기 삼보법사와 제7기 삼보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했다.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을 증명법사로 모신 이번 품수식을 통해 삼보법사 8명, 삼보포교사 13명이 탄생했다.

삼보회는 2002년 삼보사이버불교대학을 창설하고 현재까지 약 120명 삼보포교사를 배출했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기존 포교사 과정과 별도로 최고위 법사과정을 창설, 2년 이상 포교경력을 보유한 포교사 및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삼보법사 품수를 인정해왔다.

특히 삼보법사는 사이버 교과과정 중 10개 과목 및 특별강의에 대한 이수 · 심사를 거쳐 배출된다. 2012년에는 13명이 제1기 삼보법사로 품수받은 바 있다.

올해 탄생한 제2기 삼보법사는 유선재, 황외숙, 김진규, 김해식, 이한봉, 최현주, 한병일, 이원규씨다. 삼보회 측은 “8명 법사들은 선임 법사 및 포교사와 연대해 포교 사각지대인 군 · 병원 · 도심 등에서 활약할 예정”이라며 “인력수급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포교 방법과 공간 창출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30분,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佛, 미혼모 생활지원 나서… 분만의료혜택도

깨달음과나눔, 10월 28일 마천동 '도담하우스' 개원

불교계 첫 미혼모 기본생활지원
인근병원 연계 분만의료혜택까지
한부모 복지전문가 등 6인 상주
"최대 26명 수용시설로 거듭날 것"

사회적 위기에 처한 미혼모들을 보살피기 위한 자비의 공간이 열린다. 불교계에서 미혼모와 자녀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은 운영돼 왔으나, 임신부터 출산까지 기본생활을 전담하는 복지시설은 불교계서 처음이다.

(사)깨달음과나눔(이사장 이매옥, 원장 강라현)은 10월 28일 오후 4시 서울 마천동에서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도담하우스'를 개원했다. 도담하우스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한 '두리모'('둥글다'는 의미의 두리에 한자 어머니 모(母)자를 결합한 신조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그들을 '보듬다, 격려하다'는 뜻의 단어 '도담'을 활용해 '도담하우스'라 이름했다.

깨달음과나눔 측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양특례법이 재정되며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위탁시설이 대부분 문을 닫아 미혼모들이 매우 절박한 실정"이라며 "또한 그동안은 공동생활을 위한 단위시설이 많았는데 임신 및 출산부터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기본생활시설은 이번이 처음"이라 밝혔다.

도담하우스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설치기준에 따라 총 172.56㎡ 면적에 생활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조리실, 산후회복실, 교양교육실 등 필요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 복지전문가를 비롯해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교사, 간호사, 조리사 등이 전일 상근한다.

현재 10명 정원, 4개 원룸 갖춘 다세대 빌라에서 운용하며 △분만의료혜택 △일상생활지원 △상담 및 심리지도 △양육지원 △자립지원 △교양 및 문화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분만의료혜택은 송파 문산부인과, 방이 한빛산부인과, 강남 차병원 등과 협력하며, 상담지도에서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사)깨달음과나눔(이사장 이매옥, 원장 강라현)은 10월 28일 오후 4시 서울 마천동에서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도담하우스'를 개원했다. 사진은 도담하우스 전경

'입소자상담치료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담하우스는 지난해 11월와 협약을 맺고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도담학교'서 미래설계준비, 검정고시준비 등 좋은부모계속학습사업에 참여 중이다.

깨달음과나눔 측은 "향후 26명 수용 가능한 시설로 확장시킬 예정"이라며 "일시적 지원이 아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취업 지원도 실시할 것이다. 입소자들은 전액 무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나 입소 가능하다. 입소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장기준에 부합할 경우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매옥 이사장은 "서울시 내 25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있는데(9월 21일 등록기준) 그 중 불교계 시설은 2~3곳 뿐"이라며 "17살짜리 엄마와 갓난아이라는 두 생명을 함께 거두면 불법을 더욱 크게 실천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을 딸처럼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문의 (02)449-8893/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502-834720 도담하우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암산 자락서 핀 '생명나눔의 꽃'

생명나눔, 10월 17일 '생명나눔의날 산사음악회' 개최

경기도 남양주 불암산 자락에서 '생명나눔 실천'의 법향이 피어올랐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0월 17일 불암산 불암사서 '2015생명나눔의 날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2천여 명이 운집한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에 이어 기념식, 초대공연, 부대행사 등 진행됐다.

BBS 이선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선 △일면장학금 △환자치료비 △생명나눔공헌자포상 △명예의 전당 △홍보지원증서 등 전달식이 거행됐다. 생명나눔공헌자에는 유성자 생명나눔이사, 최숙희 봉사자, 김광철 바이오세움 이사가 선정됐다. 아울러 명예의 전당에는 1백 명 이상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추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미영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장이 올랐다. 이와 더불어 참사랑봉사단에도 홍보활동 지원증서와 함께 5백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일면장학금은 학인스님 9명, 대학원생 1명, 대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등 16명에게 총 1,410만원이 수여됐다.

1부에 이어 진행된 2부 음악회는 방송인 김병조씨 사회로 아웃사이더, 강진, 김연자, 유민지, 서지안 등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아웃사이더는 "몸과 마음이 아팠을 때 불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17일 불암사서 '2015생명나눔의 날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일면 스님은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에 장학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교에 입문하고, 음악으로 치유받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처럼 많은 분들이 치유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봉사자와 후원자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다"며 "장기기증희망등록은 환자와 가족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실천으로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일산 동국대병원 법사 증휘 스님, 홍문종 국회의원, 송낙영 경기도의회 의원, 이철우 남양주시의회 의장, 태석기 동국대 의료원장, 박민영 동국대 전산원장 등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노인과 청년세대 '영화'로 소통하다

서울노인복지센터, '2015서울노인영화제' 10월 21일 개막

총 150여 편 출품작 중
본선 노인23편 · 청년18편 선정

영화를 통해 세대가 소통하는 장, 2015 서울노인영화제가 막을 올렸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와 서울시는 공동주최로 10월 21~23일 '2015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에는 총 150여 편이 출품했으며, 이 중 노인부문 23편, 청년부문 18편 등 총 41편이 본선작품으로 선정됐다.

송승민 노인영화제 사무국장은 "이번 본선 작품에는 다문화, 사회문제 등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된 것이 특징"이라며 "단순한 촬영이 아닌 어르신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작품에 담은 것이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첫날인 21일에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울극장서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서울시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스님, 조계사 부주지 담화 스님, 하영태 서울시어르신복지과장, 장률 영화감독, 원로배우 김희라, 배우 박해일씨를 비롯해 2015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배우 공명 · 조수향 등이 함께했다.

담화 스님은 "누구나 한번쯤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데 어르신들께서 직접 영화에 출연 · 제작한 것은 참 보람차고 행복한 일"이라며 "예부터 마당은 이웃과 만남의 공간이다. 오늘 이 자리가 한 '마당'이 되어 세대가 소통하는 열린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또한 희유 스님은 "노인부문 공모에 출품작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보며 어르신들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영화제가 함께 사는 세상의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꽃피울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홍보대사 배우 공명씨는 "많은 작품들이 기대가 된다. 영화제 기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를 보러 올 계획"이라며 "평소에는 어르신들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와 서울시는 공동주최로 열리는 '2015서울노인영화제'가 10월 21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서울시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스님, 조계사 부주지 담화 스님, 장률 영화감독, 배우 박해일씨를 비롯해 홍보대사 배우 공명 · 조수향 등이 함께했다.

개막작은 연출 장률 감독 · 주연 박해일의 '동행'이 올랐다. 2014서울노인영화제 제작지원작인 '동행'은 장편영화 '필름시대사랑'으로 확대 연출된 바 있다.

아울러 청소년지원부문으로 4편도 함께 본선작품에 이름을 올렸다. '할매헬퍼'라는 작품으로 청소년지원부문에 이름을 올린 신우현(북원여고 · 18) 학생은 친할머니를 주연배우로 내세웠다. 신 학생은 "할머니가 담긴 영상을 내 손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영화를 만들며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 즐거워하는 할머니 모습을 보니 뿌듯함이 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공생회, 캄보디아 유치원건립 '박차'

지구촌공생회, 10월 19일 광진구어린이집연합회와 협약식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희망유치원'을 선물하기 위해 불교계와 광진구가 힘을 모았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기정, 이하 광진구어린이집연합회)는 10월 19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지구촌공생회 사무국에서 '캄보디아 썽꼼민쩨이 유치원 건립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광진구어린이집연합회는 지구촌공생회에 유치원 건립기금 4천 5백여만 원을 전달했다.

지구촌공생회는 "25개 어린이집서 원장 · 보육교사 · 원생들 2천여 명이 사랑의 저금통, 바자회 등을 통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왔다"며 "기금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 밝혔다.

성금이 지원될 캄보디아 썽꼼민쩨이 마을에는 유치원이 없어 어린이들이 2km 이상 떨어진 유치원으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편도 마땅치 않아 아이들은 대형트럭이 다니는 국도를 걸어 다니고 있다.

이에 지구촌공생회는 아동 1백여 명 수



지구촌공생회와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10월 19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지구촌공생회 사무국에서 '캄보디아 썽꼼민쩨이 유치원 건립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용할 수 있는 교실 3칸을 공사 중이다. 내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구촌공생회는 "학교 건립 후엔 공립학교 등록 절차를 밟아 정부 교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광진구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들과 교류 및 교사 연수 · 봉사 등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사장 월주 스님은 "아이들의 작은 고사리 손으로 모아진 성금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썽꼼민제이 마을에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대출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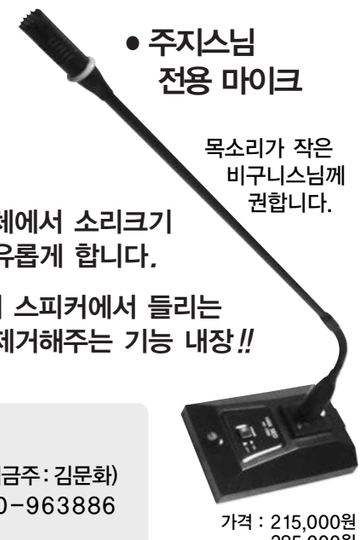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1월 23일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인공지능에 자아의식 생기면 인류위협

불교진흥원 화요강좌 - 인공지능과 붓다의 과학

지승도 한국항공대 교수

과학 · 철학 · 예술은 모두 '관찰'을 토대로 시작한다.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사물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진리'에 가까워지려는 노력한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깥에서 답을 구하려 하지 않으셨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며 무상(無常) · 고(苦) · 무아(無我)를 깨달으셨다. 지승도 한국항공대 교수는 10월 20일 마포 다보빌딩(BBS) 3층 다보원에서 화요열린강좌 '인공지능은 왜 붓다의 과학을 만나야 하는가'를 강연했다. 지 교수는 "e=c everything is change,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들이 존재하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가 변하기 때문"이라며 "미래의 과학은 비어있다, 공이다,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전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이계섭 수습기자**



지승도 교수는… 현재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1959년 서울서 태어나 연세대 졸업, 미국 아리조나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컴퓨터의 아버지' 폰 노이만(Von Neuman)을 중심으로 유전알고리즘의 홀랜드(Holland), 시뮬레이션의 지글러(Zeigler)로 이어져 온 생명체적 인공지능 학파를 계승함으로써, 자율인공지능과 추론시뮬레이션 연구를 펼쳐왔다. 저서로는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가 있다.

관찰자의 세 부류

우리 삶에서 발견은 세상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상의 본질을 관찰해 단번에 발견한다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관찰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관찰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관찰자는 과학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과학자는 관찰을 가장 잘하는 집단의 한 축입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세계를 주 대상으로 삼고 관찰합니다.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주위를 관찰하면 몰랐던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 성과를 얻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았고 만유인력의 법칙, 쿼크, 상대성이론 등 많은 과학적 결과는 관찰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최근 발견되는 과학적 사실은 불확정성, 카오스 등 주체가 불분명한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을 쪼개고 쪼개다보면 물질이 비물질이 되기도 하는 현상이라든지 시공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을 가진다는 등입니다.

이런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 부위를 10의 16승까지 확대해보면 파동 같기도 하고 안이 텅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주 커다란 우주를 확대해 봐도 텅 빈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장자는 "지극히 작아지면 아무것도 없고, 지극히 커져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과학적 사실을 살펴보면 성자들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찰자는 과학자뿐만이 아닙니다. 철학자들도 관찰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찰 대상은 물질이 아니지만 존재 자체, 이성세계, 사유 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관찰하는 집단입니다. 철학자들의 관찰법 또한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영원불변한 것은 없다는 결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재'란 것도 조건에 따라 다르고, 하나의 현상적인 것, 즉 비정형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몇 가지 크게 와 닿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플라톤 "세계의 모든 것은 변하며, 아무것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러셀 "행복을 얻는 비밀은 세상이 끔찍하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다" 등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세상의 참 모습을 보려고 많이 노력 했고, 진리에 가까운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예술가들은 주로 아름다움을 대상으로 관찰합니다. 이로써 원근법, 8등신 등 여러 예술적인 기법들을 이론화 시켰습니다. 예술 분야의 최근 흐름은 과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관점'이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나 목적성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봐서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아름다움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 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무의미성 · 무개념성 등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술 세계를 뒤집고 있습니다.

언젠가 앤디워홀의 전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 상식을 크게 벗어납니다. 대상의 편견을 깸으로서 본질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엉뚱한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관찰의 결과로 그런 작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지적하며 사물에 대해 환기하는 철학적 사유를 지속합니다.

e=c 모든 것은 변한다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들은 많은 노력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왔는데 과연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독일 현대 예술가 안젤름 키퍼는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은 모릅니다. 과학자나 철학자가 존재에 대해 설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질문만 솟아날 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술을 선택했습니다. 예술 또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상력은 불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 말했습니다. 관찰자들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양파의 껍질을 벗기든 대상을 관찰합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껍질이 벗겨졌지만 양파의 본질에는 닿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양파의 본질이라 볼 수 있는 '진리'에 닿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바깥에서 답을 구하려 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서 '양파의 속은 비어 있다'는 궁극적 진리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존재가 무엇이냐' 했을 때 마음을 중심으로 관찰했습니다. 보통 관자재보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관자재보살은 자신의 의미를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위빠사나'라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신수신법의 사념처를 차례대로 관찰하셨습니다. 이로써 삼법인에 해당되는 무상(無常) · 고(苦) · 무아(無我)를 관찰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도 관찰을 하는데 집중력을 필요로 했고, 그것은 '사마타'라고 일컫습니다.

자아의식은 '심어진 것' 아니라
스스로 진화해서 생긴다
편리함 추구하되 초지능 막아야
미래과학 '空' 전제로 전개해야

반야심경 첫 구절 내용을 보면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알고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관찰결과를 요약해보면 사성제 · 삼법인 · 연기 · 무아 · 공성(변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성'이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공성'은 늘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도 포함하여 과학적 발전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은 우리 색(色)의 세계라는 것은 무언가 존재한다, 즉 '있다' 것을 근거로 발전해 왔다면, 미래의 과학은 비어있다, 공이다,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전개시켜야 합니다.

부처님도 관찰자의 한 분으로서 궁극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에 'e=c everything is change'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공성에 관한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변하기에 모든 것은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변하기에 세상에는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혹은 철학적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론기능은 인공지능의 핵심

요즘 인공지능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오래된 용어입니다. 관련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철학, 심리학, 생리학, 뇌공학, 컴퓨터공학 등 폭넓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구도를 놓고 누가 더 센 가, 누가 더 똑똑한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인간 챔피언과 인공지능 간의 체스게임이 벌어졌습니다. 7전 4선승제로 진행됐는데 매번 인공지능이 졌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ibm에서 개발한 '딥블루'라는 슈퍼컴퓨터가 인간챔피언을 이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대상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여러 센서를 통해 느끼고, 움직이고, 말을 하는 출력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추론기능도 있습니다. 추론은 인공지능의 본체, 뇌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입력된 정보가 축적돼 지식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추론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사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 후 추론을 통해 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 시스템, 지능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루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시기가 온다면 그것은 자아의식이 생길 때 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때 반드시 로봇에 심어두는 3대원칙이 있는데 인간을 보호할 것,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자아의식의 문제입니다. 자아의식은 심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의식이 스스로 진화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에 자아의식이 생긴다면 인간이 아닌 자신을 최고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명 인사들 중 인공지능에 대한 걱정스러운 견해를 가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멸망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스스로 인식하는 단계를 거치면 결국에 인간의 자리를 뺏을 것이다. 생물학적인 존재는 진화속도가 느리다"고 부정적으로 인공지능을 보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도 "터미네이터처럼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어 인류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편리함을 추구하되 초지능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한다 인공지능 인류에 위협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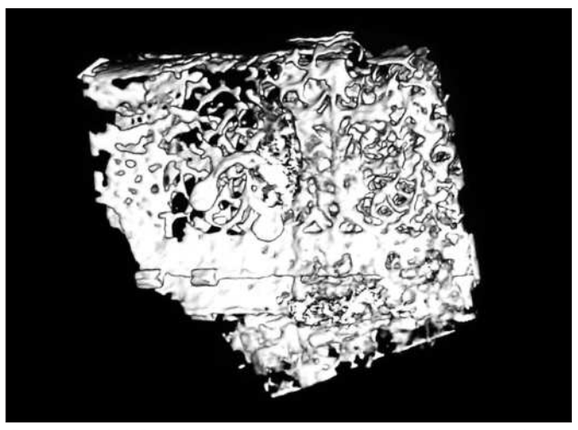
이런 상황 속에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야, 난생 · 태생 · 습생 · 화생과 몸이 있는 것,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없는 것 등 그 무수한 중생들이 모두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음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했으나 한 중생도 제도한 바 없다. 무슨 까닭인가? 만일 어떤 보살이 이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이 있다면 이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이 존재입니다. 하나의 존재로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듯합니다.



삼척 흥전리사지서 통일신라 유물 대거 출토

불교문화재연구소, 10월 20일 시발굴조사 성과 공개

화염무늬 음각 금동장식판 등 나와
불교의식 장엄구 · 번 장식 추정
좌우 부속건물 달린 금당지 조사도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화염무늬 금동장식판(사진 왼쪽)과 금동번(사진 오른쪽)

불교계 연구기관의 시발굴조사 지역에서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 대거 출토됐다. 특히 불교의식 장엄구로 추정되는 화려한 금동장식판이 나와 화제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허가를 받아 조사 중인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 결과를 10월 20일 삼척 흥전리사지 현장에서 공개했다.

새로운 유물에는 금동 장식판과 금동 달개장식, 높은 위계의 건물에서 쓰이는 귀면와, 곱새기와(지붕 마루 끝의 장식기와), 연화문 · 당초문이 새겨진 다량의 암 · 수막새 등이 출토됐다.

특히 금동장식판은 장식판 중앙에 불꽃모양의 화염문(火焰文)을 투각하였고, 테두리에는 꽃무늬와 연주문(聯珠文, 크고 작은 구슬형태의 원을 연속한 모양)이 정교하게 음각돼 있다.

금동장식판의 제작 양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3차원 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 직사각형의 얇은 금동판이 두 번 접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두리 끝 부분 2곳은 경첩의 연결고리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었는데, 이는 매우 드문 예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이 장식판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장엄구의 장식판으로 추정되며, 금동번(幡,깃발)이나 번의 장식판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금당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금당지는 좌우에 주건물 좌우에 잇대어 지은 부속건물인 '익사'(翼舍)가 있는 형태로 확인됐다. 익사는 주건물 좌우에 잇대어 지은 부속건물이다. 또 경주 분황사지와 합천 영암사지, 순천 금둔사지 등과 같은 기단 내부를 할석으로 채운 온통지정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중요폐사지 시발굴조사사업' 중 하나다.

삼척 흥전리사지는 2014년 1차 시 ·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지와 탑지를 비롯해서 여러 동의 건물지가 확인된 곳으로 당시 '국통(國統)' 명 비석편과 화문(花文)이 세밀하게 음각된 청동제 장식, 귀면와(鬼面瓦)와 곱새기와 등이 출토된 바 있다. 국통은 신라시대 최고 승려에게 붙는 호칭으로 흥전리사지의 당시 위상을 짐작케 한다.

조사단은 향후 흥전리사지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를 실시해 전체 사역과 가람배치, 창폐시기와 성격 등을 보다 면밀히 밝힐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와심리硏, '치유와 건강' 심포지엄 개최

11월 13일 서울불교대학원대 대강의장에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부설 불교와심리연구원(이하 불심원)은 11월 13일 오후 1시 서울불교대학원대 대강의장에서 '치유와 건강'을 주제로 제6회 불교와심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불교와심리연구원은 응용불교와 관련된 주제 연구 및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 개설된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제1회 불교와심리 심포지엄에서는 '불교와 상담심리', 제2회에서는 '불교수행과 뇌, 그 치료적 의미', 제3회 '명상과 무의식', 제4회 '영성과 무아', 제5회 '화 또는 분노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현희 서불대 명상학 박사의 '치유 관점에서 본 초기불교의 사성제' △왕인순 서불대 심신통합치유학 박사의 '요가의 전일건강모델과 요가심신테라피 실제' △오세준 서불대 상담심리학 박사의 '켄 윌버의 통합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통합적 건강' △신경희 서불대 심신통합치유학 박사의 '정신신경면역학과 전일적 건강에 대한 통합적 접근' 등이 발표된다.

불교와심리연구원 측은 "괴로움의 소멸과 치유의 관계, 요가의 전인건강모델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가테라피의 실제, 정신신경면역학에서 보는 건강, 뇌과학에서 보는 건강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며 "치유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890-2854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선문염송〉 학술세미나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가 선학원과 공동으로 11월 6일 연세대 위당관에서 추계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선문염송〉과 〈염송설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선문헌과의 인연, 후학들에게 당부'라는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전재강 안동대 교수의 '선문염송 등 선어록을 활용한 선수행'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선문염송과 염송설화의 텍스트성' △김상일 동국대 교수의 '선문염송과 한국 선시문학' △박영록 한국교통대 교수의 '선문염송 · 염송설화 번역 어휘에 대한 재검토' 등이 발표된다.

이날 논평자로는 前해인사 강주 해월스님, 오용석 연세대인문과학연구원 연구원,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안재철 제주대 교수가 나선다.

노덕현 기자

정토학회 〈정토학 연구〉 학술등재지로 선정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탁) 학술연구지 〈정토학 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정토학회가 '학술지 평가 이의제기'를 한 데 대해 재심을 벌여 최종적으로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정토학 연구〉는 재심에서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편집위원(장)의 전문성',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논문집의 구성과 체계의 완전성 및 가독성' 등 6개 항목에서 당초 심사점수 보다 많은 100점 만점에 88.68의 점수를 획득해 등재학술지의 지위를 갖게 됐다.

신규탁 교수는 "회장은 "본 학회에 좋은 논문을 투고해주신 여러 연구자님과 편집위원, 임원 여러분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면서 "향후 더욱 노력해 좋은 연구논문들이 실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제44호 발간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최근 〈불교학연구〉 제44호를 펴냈다. 이번호에는 △우동필 전남대 박사의 '역관(逆觀)의 십이연구-십이연기와 중도의 관계' △장규언 동국대 HK교수의 '원측 〈법화경〉 일승 인식의 특징과 그 교판적 의미-진제 사유 계승의 한 측면' △김영진 동국대 교수의 '탕용통의 승조 이해에서 보이는 본체론 도식의 문제점' △김경래 동국대 박사의 '랑카섬 국가종교의 내부분열에 대한 비판적 소고' 등이 실렸다.

한편, 불교학연구회는 10월 31일까지 〈불교학연구〉 제45호 논문을 접수 받는다.

노덕현 기자

'불교와 미래경영' 불광硏 연찬회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1월 6일 불광교육원 3층 문수당에서 '불교와 미래경영'을 주제로 제26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는 불교계 경영전문가들이 대거 발표에 나서 불교 가르침에 따른 경영기법 등을 설명한다. 먼저 △윤성식 고려대 교수의 '불교와 경영의 만남'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의 '불교경영의 정신과 이론' △안종상 감성경영연구소 대표의 '불교경영의 실제와 사례' △이언오 바른경영연구소 소장의 '불교와 미래경영의 방향'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이정민 모다끄레아 대표, 고실석 진영코리아 대표가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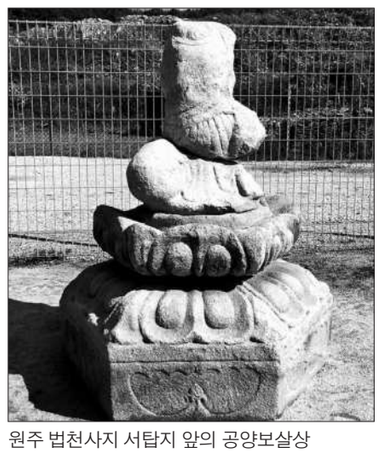
불광연구원 측은 "최근 자본주의와 불교, 경영과 불교를 접목하는 연구성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정명기업이나 까르마 경영처럼 불교와 경영이 접목된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불교와 경영이라는 주제로 제기된 산발적인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국내 유일 '보살상 봉안 쌍탑' 양식 드러나

원주 법천사지 발굴현장 21일 공개…문화재청 "불국사에 비견"



원주 법천사지 서탑지 앞의 공양보살상

국내 최대급 사지로 알려진 원주 법천사지에서 쌍탑에 보살상을 배치한 독특한 탑 양식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0월 21일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호) 발굴현장을 공개했다. 원주 법천사지는 원주시(시장 원창묵)와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 지현병)이 5월부터 발굴조사 중인 곳으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차에 걸쳐 발굴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당 앞의 동편과 서편에 대칭의 석탑과 그 앞에 각각 1기씩의 보살상이 배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 유일 사례로 그동안 탑 앞에 보살상을 배치한 예로는 강릉 신복사지, 평창 월정사, 논산 개태사 등 4곳이 있었지만 법천사지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1기의 보살상만을 두고 있다.

동편과 서편의 석탑은 현재 지대석만 남아있는 상태로 서쪽 탑지의 전면에는 적심(積心, 구조물의 기초부에 채워 넣은 흙과 돌) 위에 6각형 지대석이, 동탑지의 전면에서는 지대석 없이 적심만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서탑지의 6각형 지대석과 함께 이미 수습된 연화앙련대좌, 연화복련대석, 석조보살상 다리 부분, 석조보살상 몸통 부분을 고려해 탑 앞에 보살상이 안치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철제 은입사 말재갈 멈추개' 1점이 출토됐다. 그동안 철제 또는 금동으로 말재갈이 제작된 경우는 국내에서 다수 확인된 바 있으나 은입사를 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은입사는 은실을 이용해 문양을 넣는 세공기법으로 철제에 은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은입사의 문양 또한 꽃무늬를 정교하고 세련되게 표현해 고려시대 뛰어난 세공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또 이번 10차 발굴조사에서는 법천사 추정 중심사역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와 함께 법천사 사역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외곽지역 시굴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법천사 중심사역은 남북 72.6m, 동서 52.5m의 직사각형 회랑 영역(면적 3,811㎡) 안에 금당(金堂)과 강당(講堂)이 남북으로 일직선 상에 놓여 있으며, 이 금당 앞에 두 기의 탑이 배치된 2탑 1금당 형태의 가람배치로 확인됐다.

금당은 남북 14.4m, 동서 17.3m의 기단 내에 정면 3칸, 측면 3칸(건물면적 105.6㎡)의 규모로 강당은 남북 16.8m, 동서 35.8m의 기단 내에 정면 7칸, 측면 3칸(건물면적 369.6㎡)으로 조성됐다.

문화재청은 "중심사역의 평면 형태는 경주 불국사의 가람배치와 비견될 수 있다"며 "법천사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던 고려초 가람배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원주 법천사는 고려시대 크게 융성했지만, 임진왜란 당시 소실됐다. 그동안의 발굴조사에서는 전체사역이 계획적으로 건립된 다원식(多院式) 가람배치 구조가 밝혀진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제주 약천사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은 10월 16일 중국 북경 숭문소학교를 방문해 '한 · 중 청소년우호공연' 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는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원 28명과 중국 숭문소학교 양광합창단원 56명, 어린이 경극팀 등이 함께 했다. 사진 왼쪽은 중국 전통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 오른쪽은 중국 숭문소학교의 어린이 경극팀의 공연.

천진불 노랫소리 韓·中을 잇다

약천사 리틀붇다합창단 10월 16일 베이징서 공연 '성황'

숭문소학교 방문해 함께 공연
'첨밀밀' · '곰 세 마리' 등 불러
한·중 교류 새로운 모델 '눈길'

제주 어린이 불자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한중 문화 교류의 새 장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 약천사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은 10월 16일 중국 북경 숭문소학교를 방문해 '한 · 중 청소년우호공연' 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는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원 28명과 중국 숭문소학교 양광합창단원 56명, 어린이 경극팀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방중 공연은 지난 2월 7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약천사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의 제5회 정기공연에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공연은 '붇다의 길, 행복한 여정' 을 주제로 인도의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파되는 과정을 소개하며 한중문화교류의 장으로 이어졌다.

이날 공연을 계기로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은 제주중국총영사관 측으로부터 '제주 한중청소년우호합창단' 으로 지정됐으며, 이후에도 한중문화교류 행사에 초청돼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도 장신 총영사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방중 공연에서 약천사 합창단은 '뭉게구름' '봄나비' 등 찬불가와 동요는 물론 중국 전통의상을 입고 '첨밀밀' '월량대표아적심' 등을 중국어로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숭문소학교 양광합창단도 한국의 동요 '곰 세 마리' 를 한국어 불러 화답했으며, 중국 동요를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양국 어린이 합창단은 함께 무대에 올라 즉석에서 율동에 맞춰 노래를 불러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합창단 지도법사인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은 "짧은 공연 이였지만 공연을 계기로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원들은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의 선두주자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원 스님은 음악과 공연을 통한 청소년 포교에 힘쓸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님은 "공연을 마치고 중학생이 되어 합창단에 잔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청소년 드림팀(난타)을 결성하기로 했다"면서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 출신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춘기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불교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병마로 고통 받는 환우에게 희망을

광주생명나눔, 18일 걷기대회 개최

소아암 백혈병 환우를 위한 희망 걷기대회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0월 18일 '제7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무등산 옛 길 희망걷기대회' 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 지각스님(동원사 회주), 광주운전불자연합회 회원 및 이사, 관계기관 등 200여명의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걷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는 자신의 건강과 무등산의 자연환경을 함께 보호하고, 병마에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걷기대회다"라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경품추첨이, 참여행사로 헌혈증서 · 혈소판 모집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제 금산사 1416주년 개산대재 봉행

15일 대중 1천명 참석

백제 법왕원년(599년) 백제 왕실의 자복사찰로 창건된 김제 금산사가 창건 1416주년을 맞았다.

금산사(주지 성우)는 10월 15일 창건 이래 조사스님들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력하셨던 위법 망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고귀한 유지를 계승하는 개산 1416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역대 금산사에서 수행하신 조사스님들에 대한 헌다례와 부도전 참배에 이어 명종, 예참, 육법공양, 기념대법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금산사 조실 월주스님을 비롯해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최규성 국회의원, 이상직 국회의원, 김광수 전북도의장, 이건식 김제시장 등 사부대중 1000명이 참석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일심의 근본자리를 보면, 그 자리에서 즉시 불생불멸의 부처를 보게 되는 것이다"며 "부처의 참 모습을 보고,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일생동안 부단히 정진하자" 고 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의 선율에 몸 · 마음 맡기다

구례 화엄사, 10회 화엄음악제

불교명상음악제로 자리잡은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 '화엄음악제2015' 가 열렸다. 올해 10회째 열리는 이 독특한 행사는 '영성' 음악회를 지향하는 인간 내면의 소리와 영혼을 노래하는 시간이다.

태평소 소리와 함께 각황전에서 대중스님들의 안행이 객석으로 이어지자 음악회는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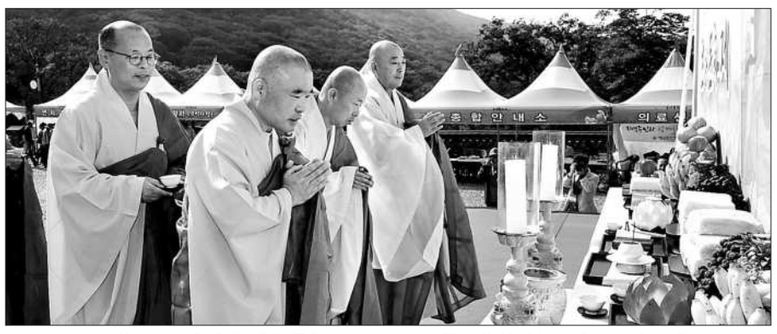
올해 화엄음악제는 '심금(心琴)' 을 주제로 첫 야간 공연으로, 전설적인 보컬리스트 이바 비토바를 중심으로 한 트리오 에비안과 판소리와 피아노가 만나는 무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토마스 슐츠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초의 선사 '다선일미' 정신을 기리다

대흥사, 초의문화제 개최
김기원 교수 '초의상' 수상
전통 차문화 체험 등 다채



대흥사에서 10월 16~17일 열린 초의문화제에서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이 헌다를 하고 있다.

대흥사 일지암은 초의선사가 39세 때 중건하고, 이곳에서 주석하며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神傳)〉을 펴냈고,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와 같은 석학, 예인들과 교류하며 쇠퇴해 가는 차문화 중흥을 도모해 한국차의 성지로 각광받는다.

지난 10월 16일~17일 양일간 대흥사(주지 월우)는 '초의문화제' 를 개최했다. 올해 24회를 맞이한 초의문화제는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선양하고 계승 · 발전시키고자 대흥사에서 199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초의상'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차문화 예술인 시상식으로, 역대 3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 수상자로 김기원(78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차학회 고문)씨가 수상했다.

행사는 16일 유치원 · 초등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차문화 체험, 아름다운 찻자리 시연(원광유치원), 떡차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어 17일에는 초의 차정신 표현 퍼포먼스, '숲속 거리에서 다도를 즐기다' 공연, 아름다운 찻자리 시연(한듬어린이집), 초의선사 전 육법공양(대흥사 보리회), 선고다인 헌다례, 제24회 초의상 시상 및 초의문화제 기념식, 차학술 논문공모전 시상 등이 열렸다.

17일 오후 2시 열린 기념식에는 월우 스님, 몽산 스님(영암 축성사), 여연 스님(백련사 회주)을 비롯해 500여 명이 참여했다. 주지 월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 맘을 낮춰서 보면 비로소 나를 볼 수 있다' 는 초의스님의 말씀이 다선일미를 수행한 스님 가르침"이라며, "해남 두륜산 자락 단풍이 이제 막 물든 시점에 초의스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 된 만큼 많이 즐기시고 보고가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끊임없는 수행 통해 깨달음의 길 나서라"

증심사, 10월 15일 오백나한대재 개최

한국만의 독특한 신앙으로 자리잡은 나한신앙의 기념행사가 무등산에서 봉행됐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는 지난 10월 15일 오백나한전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오백나한대재' 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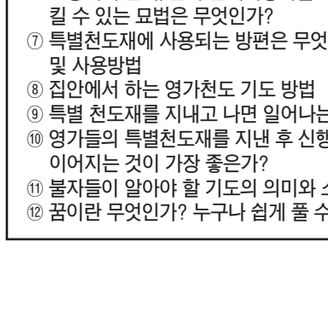
이날 대재가 열린 나한전(광주시 유형문화제 13호)은 1443년 김방에 의해 세워졌으나 정유재란때 소실된 것을 1609년에 다시 지는 전각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에 속한다. 나한전에는 석가모니불과 아난, 가섭존자, 10대 제자, 16성중, 500아라한이 모셔져있다. 무등산에는 증심사를 비롯한 화순 만연사 등 다양한 나한신앙의 문화재들이 전해오고 있다.

행사는 증심사 자향회의 육법공양 의식에 이어 전통불교영산회 회원스님들의 영산재 기도와 법요식이 진행됐다.

연광 스님은 법문에서 "아라한과는 소승불교에서 아라한이 이른 최고의 경지로서, 이를 깨달은 이들은 더 이상 생사윤회의 흐름에 태어나지 않으므로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며 매우 덕이 높은 성자로 추앙받는다"며, "불자는 누구나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개산조 뜻이어 부산불교 중흥하자”

부산지역 대형사찰 일제히 개산대재 진행

부산지역 사찰들이 일제히 개산대재 행사를 열고 창건의 의미를 되새겼다.

양산 통도사(주지 영배)는 10월 17~21일 1370주년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를 개최했다. 21일 개산대재일에는 30여 년 동안 단절됐던 영사재(影祀祭)를 개산조당 앞에서 새롭게 재현하기도 했다.

통도사 영사재는 개산조 자장율사에게 옛 방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1980년대 초까지 진행됐다. 통도사는 1943년 구하 스님이 작성한 〈영사 의식집〉을 토대로 이를 복원했다. 행사에서는 대중 운집을 알리는 명고를 시작으로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의 헌향과 헌다, 보례진언 및 천수경 낭독, 주지 영배 스님의 헌다, 표백문 낭송, 파산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통도사는 53명의 스님들에게 영축장학금 54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법요식에는 방장 원명 스님, 주지 영배 스님 및 고영립 통도사 신도회장 고영립,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통도사는 영축문화축제기간 국화로 경내를 장엄하고 각종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또 가사배견, 어린이 수계식, 괘불이운, 괘불탱 특별전시, 부도헌다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개산 1337주년을 맞아 10월 17일 개산대재 법요식을 개최했다. ‘귀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개산대재는 환수한 범어사 칠성도 2폭을 봉안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개산대재 법요식에 앞서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대웅전까지 칠성도 이운식이 진행됐다.

통도사, 影祀祭 최초로 복원

범어사, 칠성도 환수 이운식

장안사 · 삼광사 등도 첫 행사


통도사 개산대재에서는 최초로 영사재가 재현됐다. 영사재에는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어사는 개산대재 기간 경내에서 ‘저소득가정 지원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 행사장에는 단주 및 손수건 만들기 체험,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체험공간이 마련됐다.

부산 기장 장안사(주지 정오)는 10월 10일 1342년 전 원효 대사가 창건한 의미를 되살린 의미를 살리는 개산문화축제를 최초로 개최했다.

축제는 총 3부로 1부 문화공연, 2부 법요식, 3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문화공연은 전통음악연주와 동래학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2부에서는 원효 대사 영전에 원효무애백차를 올리는 백차헌다례가 진행됐다. 장안사는 김하병 서예가에게 원효문화상을, 신진초 4학년 우현빈 어린이에게 효행상을 수여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도 10월 21일 개산대재를 처음으로 봉행했다. 삼광사는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일제 강점기 사할린 강제 징용 희생자, 위안부를 위한 천도재를 지내며 호국의 뜻을 강조했다. 삼광사는 10월 31일 오후 7시 삼광사 경내에서 전국의 천태 사찰 합창단이 모여 ‘천태예술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국민화합으로 통일 물결 널리 펼치자”

조계종 총무원 · 불국사 17일 ‘광복70 통일기원음악제’ 개최



조계종 총무원과 경주 불국사는 10월 17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백결공연장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기원음악제’를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등 5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신라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해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운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처님의 대비원력에 의지해 남북평화통일을 일구고 21세기 세계강국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통일기원 문화예술제를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현대인의 삶에서 생생하게 살려내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이날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본말사에서 모금한 2억 3700만원을 통일기금으로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음악제에서는 박상진 동국대 교수의 지휘 아래 국악관현악의 ‘아리랑’ 서곡 등을 비롯해 김정선 수녀의 지휘 하에 ‘뿌에리 깐또레스’ 합창단의 축하공연과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연합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 등이 진행됐다. 이밖에 불국사 선재소년 소녀합창단과 대구기독남성합창단, 충북연합합창단 등 7개 합창단이 출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관회의 사회 통합 의미 되살리자”

부산불교聯, 10월 17일 범어사서 팔관회 재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10월 17일 부산 범어사에서 ‘2015년 팔관회’를 개최했다. 팔관회는 호국영령위령재, 호국기원법회, 팔관재계수계법회, 백희가무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팔관회는 먼저 고려 시대 팔관회 문헌을 바탕으로 한 ‘호국 영령 위령재’로 문을 열었다. 호국 영령 위령재에서 참가대중은 호국삼부경 중 인왕반야경 ‘호국품’을 함께 독송하며 국태민안을 함께 발원했다.

이어 ‘팔관재계수계법회’는 전계대화상 무비 스님, 교수사 지현 스님(율사, 부산 관음사), 갈마아사리 수진 스님(범어사 율원장)과 존증아사리에 범산 스님(범어사 부주지), 무원스님(삼광사 주지), 심산스님(홍법사), 호법 스님(경승실장), 정오스님(기장 장안사) 등 삼화상 칠증사를 모신 가운데 봉행됐다.

전계대화상 무비 스님은 “계는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이다”며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이라고 설했다.



이날 참석한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은 팔재계를 수지하고 연비를 받아 계를 지키며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수계법회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백희가무가 진행돼 사명대사의 활약상을 소재로 한 가무극과 전통 공연이 어우러진 무대가 선보였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 마지막 행사로 11월 2일 부산시청 나눔녹음광장에서 ‘2015 팔관회 사회나눔 박람회’를 개최한다.

하성미 기자

홍천 명덕사 대웅전 낙성 및 삼존불 점안식



홍천 명덕사(주지 해륜, 대한불교조동종 종회의장)는 10월 11일 명덕사에서 대웅전 낙성법회 및 삼존불 점안식을 개최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과 부종정 덕룡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덕우 스님, 감찰원장 덕성 스님, 교육원장 행문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종정 지명 스님은 법어로 “너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도를 닦지 않으면, 마치 보배산에 들어갔다 빈 손으로 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침을 내렸다.

주지 해륜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대웅전 낙성 및 부처님의 점안법요식을 회향하며 하염없는 벅찬 감동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온몸으로 느꼈다”며 “수없는 많은 인연들의 동참이 있어 가능한 불사임을 다시 한 번이 자리를 통해 밝히며 동참한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해륜 스님은 대웅전 불사에 기여한 이 홍묵 목수와 조정임 신도회 재무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제8회 천년솔향 문화예술제 고운사서 열려



의성 고운사가 주최하고 고운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제8회 천년솔향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제’가 10월 17일 고운사 경내에서 열렸다. 예술제에는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과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해 백일장과 사생대회, 음악경연 등 3개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또 페이스 페인팅과 다식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즐겼다.

행사 개회식에는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과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능인학원 이사장 자현 스님, 김주수 의성군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립 능인고 학생 40여 명은 대구 화성양로원의 무의탁 어르신 30여 명과 함께 고운사를 찾아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선사했다.

한편, 고운사는 10일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사찰음식시연회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지사장

팔공산 지장선원 당산제 및 효도잔치



지장불교조계종 총본산 팔공산 지장선원(선원장 지공)은 10월 18일 경내에서 ‘제1회 지장선원 당산제 및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장기도 천도재와 함께 청산 풍물팀 공연, 당산제 육법공양 등이 펼쳐졌다.

당산제는 한국불교선각회 회장 혜승 스님, 부회장 법진 스님, 총무 성호 스님 등 200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했다.

지장선원장 지공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과 신도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당산제와 효도잔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선각회 회장 혜승 스님은 “당산제는 불교문화와 습합된 신앙으로, 일심을 갖고 수행정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열린불교아카데미, 대신기신론 강좌

열린불교아카데미(원장 김윤희)는 10월 19일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에서 ‘원순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좌’를 개설했다. 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원순 스님이 번역한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대승기신론 원효소 별기’가 교재로 사용된다.

원순 스님은 “기신론은 모든 경전을 볼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책”이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대승을 바르게 이해하고 큰 믿음을 일으켜 더욱 정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www.jjunheating.co.kr

여섯 감각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것이 수행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㉓ 여섯도둑을 때려잡고 쫓겨난 손오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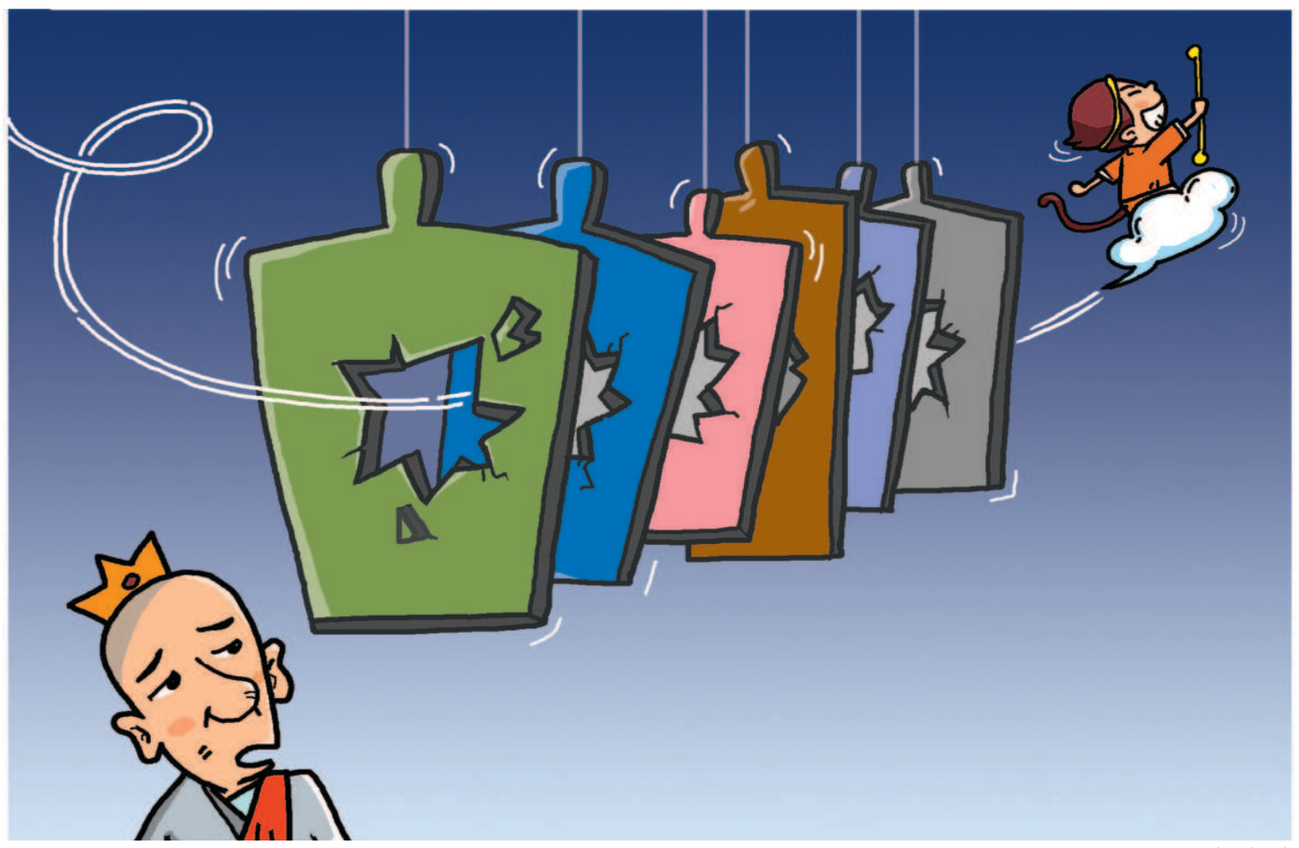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현장법사와 손오공의 첫 출발에 여섯 도둑이 분수 모르고 길을 막다가 손오공에게 일망타진된 것. 매우 잘 된 이야기인가요? 마음 원숭이가 제 갈 길을 찾았을 때 첫 번째 장애는 바로 여섯 감각기관과 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감정적 파문들입니다. 이것을 일거에 잠재워버렸으니 정말 쾌거라고 할까요?

"마음 원숭이가 바른길로 돌아서니 여섯 도둑이 자취가 없어지네!"하는 제목도 축하를 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런데 일이 좀 맹랑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우선 일이 좀 맹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서유기의 전개를 말합니다. 손오공이 여섯 도둑을 때려죽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현장법사가 엄청 마음이 상했네요. 불자의 근본이 무엇이던가요? 생명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불교의 근본은 지혜와 자비라 말하지요. 그리고 자비라는 말은 결국 생명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 불교의 근본에 충실하고도 충실한 삼장법사가 어찌 여섯 도둑을 단매에 때려죽이는 행태를 묵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야단을 쳤지요. 어찌 그리도 자비심이 없는 것이냐고요.

그런데 손오공은 이것을 전혀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었지요. 우선 손오공은 여섯 도둑을 때려죽였다는 것에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천궁을 휘젓던 제천대성 손오공 앞에서 감히 날뛴 놈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부처님에게 붙잡혀 오행산 아래 고생을 하면서 좀 성질이 죽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하무인인 성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현장법사 모시고 가는 것만 해도 정말 '손오공 사람 되었다' 고 칭찬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 손오공, 당연한 일을 했다고, 아니 오히려 공을 세웠다고 으쓱해 하는 손오공을 야단쳤으니 사단이 날 수 밖에요.

"에잇, 데데한 중놈 모시고 가려고 참고 참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찍 때려치우는 게 좋겠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 가보셔. 이 제천대성 손오공은 갈 길로 가겠어요"하고, 근두운 불러 타고 떠나버린 거죠.

현장법사,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인도까지 갈 길이 없는데, 모처럼 맞은 제자 겸 수행원이 바로 도망가 버렸으니…….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전개가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도둑이라 하더라도 단매에 때려죽이면 안 되는 게 상식이죠. 그런 것을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손오공은, 겨우 바른길로 돌아왔지만 아직 철들지 않은 천둥벌거숭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제멋대로 힘을 행사하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야단맞으면 삐치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치로 보아서도 여섯 도둑을 다 때려죽이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여섯 도둑은 여섯 감각기관인데 여러분, 그 감각기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와 그것을 죄악으로 보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들을 부릴 수 있으면 되지, 그것은 나쁜 놈들이니 무조건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것들을 도둑으로 만든 것이니까, 내가 잘해서 그것들을 하인으로 부려야지요. 여섯 도둑에서 여섯 하인이라,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옛날 옛적, 삼쾌 선생이 도사(道士)끼가 충만하던 시절 얘기가 떠오르네요. 교수님들까지 낀 꽤 많은 인원이 송광사로 수련대회를 갔어요. 그때 조계총림 방장 스님이 구산 큰스님이셨지요. 거룩한 법문을 해 주셨어요. 바로 그 법문 내용이 우리가 만난 이 대목의 이야기였지요.

'심원육창(心猿六窓)–마음 원숭이와 여섯 창문 이야기' 를 하시면서, 원숭이가 여섯 도둑에 마음을 뺏겨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니, 여섯 도둑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니라! 이런 말씀이셨죠. 참으로 수더분한 시골 할아버지 같은 구산 스님 감화력에 여러 도반들 흠뻑 취했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고요한 산사의 밤, 9시쯤 되었을 거예요. 잘 시간이라 거의 다 누었는데 좀 떨어진 저쪽 방사에서 "으악~!"하는 찢어지는 비명인지 고함인지 모를 소리가 들렸지요. 고요한 산사의 밤에 울리는 비명소리라. 무슨 괴기야담 같은 이야기네요. 실제로 사람들이 좀 놀랬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여섯 도둑은 여섯 감각기관을 의미
감각 제거가 아닌 다스리는 것
화두에 순일하면 저절로 풀려

또 한 번 그런 소리가 났지요. 그리고 바로 교수님께서 제 있는 방으로 달려오셨어요. 상당히 놀라신 모습으로 "성군, 내방 옆에 방쯤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자네가 한번 가보겠나?"

교수님도 참! 가까운 당신께서 가시지 않고 저를 찾아오실 건 또 뭐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 제 풍모가 상당히 도사스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네요. 그래서 슬슬 가서 방에 들어가 보니, 어두운 구석에 웬 사람이 앉아서 중얼중얼하고 있어요. 불을 확 켜고 보니 제 후배인 친구더라구요. 그런데 눈이 반쯤 풀렸어요. 그리고 중얼거리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모두 도둑이야, 도둑!"하는 거 같았어요. 일단 정신 차리라고 어깻죽지를 한 대 후려갈기곤, "뭐가 도둑이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저 물소리도 도둑이고, 바람소리도 도둑이고, 풍경소리도 도둑이야"하는 겁니다.

눈치 빠른 삼괘선생, 이게 무슨 사단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항~ 이 친구, 낮의 구산 스님 법문에 큰 감명을 받고 혼자 좌선을 하면서 그 도둑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용을 쓴 모양이구나. 그래서 물소리나 바람소리 등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 용을 썼는데도 도저히 그게 안 되니 이런 지경에 빠졌구나. 아까 고함 내지 비명은 그 도둑 물러가라고 외친 것이었구나.

사태를 짐작하니 한심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어깻죽지를 후려치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쳤지요.

"이 친구야! 네가 하는 일에 충실하면 저절로 도둑이 물러갈 일을! '저 소리를' 하는 순간에 벌써 마음을 뺏긴 것 아니야? 이미 뺏겨 놓고 어떻게 안 뺏긴단 말이냐!"

그리고 다시 한 번 후려쳤죠. 하하. 그랬더니 이 친구 눈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는 좀 차분하게 타일러줬죠. 화두를 들든가 하는 일 자체에 온 마음을 쏟으면 되는 것이다. 쪼잔하게 소리를 적으로 의식하면 안 된다. 네가 화두에 순일하게 되면 저절로 도둑은 물러가는 법인데, 그것을 도둑으로 의식하고서야 어찌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의식하는 순간 벌써 뺏긴 것이거든? 그랬더니 무언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주억기리길래 다독여 주고 나왔던 정말 아주 옛날의 추억이군요.

하하. 삼괘선생 꽤 그럴 듯 했죠? 나칠계님, 삼괘도사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무럭무럭 일어나시죠? 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구요. 저에 대한 찬탄이라면 피치 못할 일이니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라구요? 옛날에 그렇게 도사스러웠다면서 지금은 왜 그리 체신머리가 없느냐구요? 에잇! 이건 체신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쭙잖은 도사끼를 벗어던지고 보다 높은 경지로 올라간 것입니다요! 도사끼 벗어던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면도사라구 아세요? 무식하시지만 그래도 한자로 써드릴 수밖에 없네요. 면도사(免道士)라구요. 도사도 면하였다. 도사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도사끼를 보이며 도사에 머무르는 것도 넘어서야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면도사가 도사보다 한 단계 높은 겁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요. 그 위에 경지도 있어요. 안마사라구……. 단순히 도사에 머무는 것을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생을 주무르러, 아니 어루만지러 나와야 하는 것이라구요. 그래서 도사보다 높은 경지는 면도사요, 면도사보다 높은 경지는 안마사라 하는 것입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대해, 불교의 수행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시작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 대목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더군요. 잡생각과 망상, 감각에 들어오는 많은 방해들과 씨름하노라 한세월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행에 들어가 마음을 좀 집중하려 하면 오히려 더 번뇌망상, 잡념이 더 끓는 것 같지 않던가요? 저도 겪어 봤고 고생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의 우리는 번뇌망상의 흐름 속에서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떠내려가기에 흐름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수행을 한다고 마음을 다잡는 순간, 그 흐름 속에 함께 떠내려가지 않고 우뚝 서는 형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거센 번뇌망상과 잡념의 흐름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 흐름에 쓸려 몇 번 다시 넘어지는 것도 당연하구요.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차츰 잡념이 줄고, 내 수행에 순수하게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식하고, 그것에 대항하고, 그것을 없애려 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요, 그것에 지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내 갈 길을 가는 것, 서둘지 않고 뚜벅 뚜벅 큰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수행의 왕도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진지해지니 나칠 계님은 정말 수면삼매에 빠지셨군요. 깨우면 그것도 삼매 수행이라고 우기실 것 같으니 방해 않겠습니다. 쯧쯧~

서유기에서 제가 말한 심오한(?) 의미를 바닥에 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장법사는 호되게 손오공을 야단쳤고, 발끈한 손오공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직 길 안든 마음, 어찌 어찌 바른 길로 돌아왔지만 차분하게 한 길로 나가지 못하는 마음의 행태가 나오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한번 발심을 한 마음은 한 때 방황하더라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네' 하는 법성게(法性偈)의 구절이 생각나네요. 좀 헤매 돌더라도 언젠가는 바른 깨달음에 이를 우리의 마음, 언젠가가 그 지나는 과정에서야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디 시간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나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일 뿐이니! 그러니 팩 토라져 달아난 우리의 마음, 철없는 우리 마음, 가엾은 우리 마음, 손오공도 바로 돌아와서 바른 깨달음의 길을 주욱 걸어 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소식 하면 외칠 거예요.

"미망 속에서 헤맨 구만리 길이여! 그 긴 세월이여! 지금 이 깨달음에 그것들 어디 붙을 자리가 있는가! 꿈속에서 헤맬 때는 그리 길고도 멀었거늘!"

어헛! 오늘은 어쩌다 보니 제가 예전의 도사 끼를 자꾸 부리는 것 같네요. 얼른 수습하고 다시 면도사, 안마사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출했던(?) 손오공 다시 만나겠지요?

법당조성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일생동안 불교수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행도 많이 하여 법보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행을 하고 법보시도 합니다.
법당을 조성하여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복하고 가문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은 태아영가, 조상영가천도와 기도를 해드립니다.
상담도 하시고 후원도 해주세요.
후언해 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후원도 좋고 훌륭한 분 추천도 환영합니다.

창업, 개업을 하실 분 상호, 좋은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홍증 ☎ 02)739-5008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 엇 이 든 물어보세요.

- 자녀 교육문제, 대학 입시기도
- 사업성공, 가족갈등
- 변비, 지방간, 당뇨, 비만, 알콜중독, 특별기도와 지도함
- 대학입시 합격기도 전화상담가능

가정 및 회사 방문하여 기도해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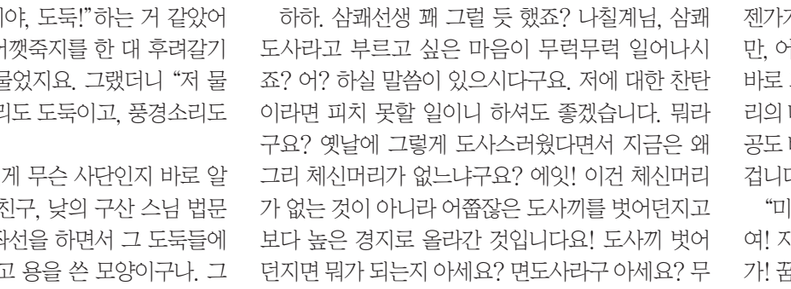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010-6789-5008

대한민국 새로운 장례문화 화분장묘 분재공원
한국최초 특허받은 장례묘(화분장)! 특허 제10-1467668호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어렵습니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 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에서 아래와같이
전국 각지역총판을 모집합니다. 많은관심바랍니다.

자격조건
전국 사찰 및 교회 종사자분들과 개인토지보유자분(임야/개발제한구역임야 제외 | 농지(전/답 보유하신 분) 우선권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사업주님들을 상담환영합니다.

각지역모집구역 소개
서울 | 부산(상담 중)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북도(일부) | 경남(상담 중) | 제주도 | 대구 | 울산

한국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 회장 : 서정율 | 대표이사(특허등록자) : 김성만
◇본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2109호 (역삼동,성지하이츠 2차빌딩) ◇홈페이지 : www.화분장.kr / www.화분장.net
연락처 : 서울본사 02)555-4452 / H·P 010-8911-4452

왜곡된 자각 경험을 실재의 지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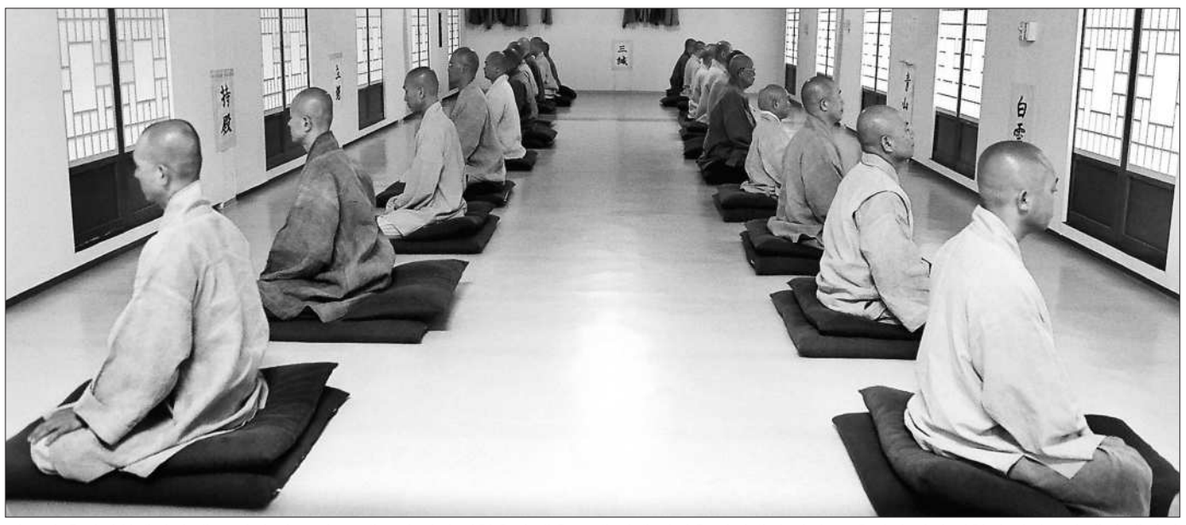
박태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3〉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 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의 의미를, '지각경험은 언제나 모두 왜곡 · 오염되어 있을 뿐' 이라는 의미로 읽는다면, 해탈 · 열반의 경험은 지각경험 범주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린다. 상수멸(想受滅)을 문자적 의미 그대로 '지각(想)과 느낌(受)의 중지(滅)' 로 보아 '모든 지각이 멈추고 감각기관이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태' '모든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지된 것' 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감관을 통한 모든 지각은 의근(意根)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 의근의 기능은 생명이 유지되는 한 멈출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해탈 · 열반의 경험은 살아있는 육근에서 성취된다는 것(현법열반)을 모두 감안하면, 아무리 잠정적 형태라 할지라도 지각 자체의 중지를 상수멸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설혹 가사상태라 할지라도 지각은 중

해탈은 오온 · 육근의 몸에서 성취
온전한 지각 경험을 통해 이뤄내
형이상학, 붓다는 판단을 거부해

지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한다. 안 · 이 · 비 · 설 · 신의 감관기능이 외부 세계의 정보유입과 차단되는 상태를 설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의근은 기억 등을 대상으로 내적 지각활동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느낌과 지각은 발생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붓다의 삶, 그리고 니까야 · 아함이 전하는 붓다의 말에 의거하는 한, 해탈 · 열반은 살아있는 오온 · 육근의 몸에서 직접 경험 ·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지각활동은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든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과, 인간의 모든 경험은 지각경험을 조건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해탈 · 열반의 '온전한 경험' 과 분별 · 희론 망상의 '왜곡된 경험' 은 모두 지각경험 범주 내의 일이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여실하게 지각하는 지평' 과 '왜곡시켜 지각하는 지평' 의 두 가지 지평 모두가, 지각경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두 지평은 사실상 동일 사태에 대한 두 가지 관계방식이다. 인간의 몸은 언제나 존재의 '있는 그대로' (眞如) 지평을 대면하고 있다. 이 '있는 그대로' 의 진여 지평을 읽어 들이는 방식에 따라 '온전한 지각경험' 과 '왜곡된 지각경험' 으로 나뉜다. 중생의 지각은, 언제나 대면하고 있는 '실재(實在. 실체가 아니다) 그대로의 지평' , 그 진여지평을, 순간순간 놓치고 있을 뿐이다. 몸이 언제나 대면하는 실재 지평, 그러나 그 지평을 순간순간 놓치고 마는 왜곡된 지각경험, 새로운 지각능력의 계발을 통해 실재 지평을 지각에서 만나는 온전한 지각경험의 성취. – 이 세 가지가 불교철학과 수행의 근본구조이자 과제이다.



법주사 총지선원에서 수행 중인 수좌 스님들. 왜곡된 지각 경험을 수행을 통해 실재 지평을 지각에서 만나는, 온전한 지각 경험의 성취는 수행의 핵심이라고 박태원 교수는 말하고 있다.

탐 · 진 · 치에의 속박과 그로부터 풀려남은, 이 철학과 수행구조의 핵심이다.

흔히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한 거부로 이해되는 '무기(無記, 설명되지 않은 것 · 대답되지 않은 것)' 의 문제도 이러한 붓다 경험주의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 간단하게는 여래4구(如來四句, 사후의 여래에 대한 △존재△비존재△존재 · 비존재△비존재 · 비비존재의 판단)나 신체와 정신의 동이(同異)판단에서부터, 10무기를 전형으로 14무기/16무기 유형까지 나타나는 무기설법은, 오랜 형이상학 전통을 유지해 온 서구인들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기설에 등장하는 질문들은 모두 경험적 명제가 아니다. 경험으로 그 진위를 판정할 수 없는 명제들이므로 '형이상학적 질문' 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붓다의 판단거부는 '형이상학의 거부' 로 읽혀질 수 있다. 그런데 붓다의 무기설법을 탐구하는 초점은 '형이상학적 질문을 거부한 이유' 에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추정이 무기설 탐구의 연구사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제시된 추정으로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 현실의 괴로움 문제에 집중하는 실천적 태도,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불가지론적 태도, 실재가 개념적 명제를 초월한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한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경험 · 분석철학적 태도, 사성제 같은 법설이 참된 철학적 문제임을 알리려는 것' 등이 있다.

무기 설법을 대표하는 〈말룽끼야뿟따에 대한 작은 경〉(중아함 〈전유경〉)에서 붓다는 10가지 유 · 무 판단과 관련한 말룽끼야뿟따의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의 이유를 독화살의 비유와 더불어 밝히는데, 이 견해들은 '유익하지 않고, 청정한 삶과는 관계가 없으며, (탐 · 진 · 치를) 멀리 여의어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에,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붓다 자신이 설명한 것은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며, 이 사성제 연기법은 '유익하고 청정한 삶과 관계가 있으며, (탐 · 진 · 치를) 멀리 여의고 깨달아 열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 에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불의 비유와 밧차곳따의 경〉에서는, 이러한 사변적 견해들은 '견해의 왜곡이고 견해의 동요이고 견해의 결박' 으로서 '고통과 번뇌와 고뇌를 수반하며' (탐 · 진 · 치를) '싫어하여 떠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깨달아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 붓다는 이러한 사변적 견해를 가까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붓다는 오직 오온의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여 모든 환상과 혼란, '나' 와 '나의 것을 만드는 모든 것, 자만의 잠재의식을 소멸시켜 해탈한다는 것이다.

답변 거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질문들은 모두 검증 불가능한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 질문' 이다. 그리고 답변을 거부한 붓다의 태도는, 그가 제시한 거부 이유들을 감안한다면, '형이상학적 질문을 거부하는 철학적 근거와 원리' 를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철학적 태도를 '형이상학에 대한 무관심' 이나 '불가지론' '실재의 개념초월' 등에서 찾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붓다로 하여금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철학적 근거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실존 치유의 문제' '검증 가능성의 문제' '유익한/진정한 철학적 문제' 등과 모두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철학적 이유들은 결국 두 가지 원리로 수렴된다. 하나는 '두 층으로 구성된 붓다의 경험주의' 이고, 다른 하나는 '실존 실용주의' 이다. 그리고 이 두 원리가 수렴되고 발산되는 원점은 '탐욕 · 분노 · 무지의 문제' 이다.

붓다의 경험주의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입장과 '온전한 경험 · 실재의 경험이어야 한다' 는 입장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붓다 경험주의로 볼 때, 무기설법에 등장하는 질문들은 배척될 수밖에 없다. 여래4구이든 10 · 14 · 16무기이든 간에, 모든 질문들은 결국 유(有) · 무(無) 판단을 조건으로 성립된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유 · 무 판단은 존재와 세계의 연기적 지평을 일탈하는 실체론적 개념조건으로서 인식적 오류의 기초이다. 인간은 이 유 · 무 판단을 두 범주에 적용한다. 경험 가능한 세계의 지시와 분류 및 분석에 적용하기도 하고, 형이상학적 범주에 적용하기도 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불교는 형이상학이 아니다

불교는 형이상학이 아니다. 신(神)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종교도 아니다. 불교의 교조(敎祖)인 석가모니는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의 길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교조인 석가모니를 크나큰 스승으로, 그의 가르침을 진리의 등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그런 의미에서 도사(導師)라고도 불려진다. 길에서 길을 가리키는 길의 안내자이자 대스승이란 뜻일 게다. 부처라는 말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깨달은 사람을 의미한다.

석가의 생전 모습이 그런대로 사실에 가깝게 그려져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초기의 경전에는 그 어디에도 형이상학적인 구름 잡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형이하학(形而下學)적인,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잔잔하게 그려져 있을 따름이다.

석가는 또한 오늘의 지혜를 일깨우는 큰 스승답게 합리적인 가르침만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상응부경전(相應部經)〉과 〈잡아함경(雜阿含經)〉에 보면 석가는 다섯 가지의 원칙 아래서 제자들을 상대로 설법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증험되는 것, 둘째 때를 거르지 않고 과보(果報)가 있는 것, 셋째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넷째 열반(涅槃)에 잘 인도(引導)할 수 있는 것, 다섯째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석가는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평범한 진리만을 설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상응부경전〉에 있는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어느 촌장이 석가를 찾아와 물에 들어가 목욕하든지 불의 신에게 공양물을 바치던지 하면 죽은 사람이 그 공덕으로 천상(天上)에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석가는 다음과 같이 반문하고 있다.

"촌장이여!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보라. 어떤 사람이 깊은 호수에 돌덩이를 던졌다고 하자. 그때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덩이야 떠올라라, 돌덩이야 떠올라라, 하며 목욕도 깨끗이 하고 값비싼 공양물로 호수의 신한테 바쳤다고 하자. 여러 사람들의 기도소리에 의해 물속에 잠긴 돌이 물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겠는가?"

석가는 이어서 다시 촌장에게 묻고 있다. "남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따위의 갖가지 나쁜짓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부모와 형제, 그의 친적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며 지극 정성으로 기도했다고 하자. 그 기도의 힘으로 이미 죄진 사람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불교에는 신의 은총도 없지만 신의 저주도 없다. 천국이 가까웠다고도 말하지 않고 신을 믿고 섬기라고도 하지 않는다.

〈상응부경전〉에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을 소개하겠다. 석가가 죽림정사(竹林精舍)에 머물고 있을 때 바카리라는 이름의 늙은 비구(比丘)가 어느 옹기장이 집에서 앓고 있었다.

그는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감지하고 사람을 죽림정사로 보내 자신은 늙고 병이 깊어 움직일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 옹기장이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자신을 위해 설법을 들려주실 수 없겠느냐고 여쭙게 했다. 부처님은 기꺼이 옹기장이 집으로 찾아왔다. 바카리가 감격해 하며 불편한 몸을 일으키려 하자 부처님은 그를 다시 편안한 자세로 눕게 했다.

바카리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이시여! 저는 회생할 가망이 없나이다. 병이 깊이 뿌리를 내려 제 스스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겠나이다. 마지막 소원이오니 부처님의 발등에 입맞춤을 할 수 있게 허락하소서."(인도에서는 지금도 귀한 손님이 집에 올 경우 발등에 입맞춤하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그때 부처님은 잔잔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만 두거라, 바카리여. 이 몸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쓰러질 것이다. 바카리여! 법(法:진리)을 보는 이는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이는 법을 볼 것이니라."

석가는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예수와도 다르다. 오직 길을 가르쳐 주는 이며 지혜와 실천의 선각자요, 대스승일 따름이다. 불교는 그런 의미에서도 형이상학 쪽이 아니다. 내일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현생(現生)의 정토(淨土)의 실현을 가르쳐 주는 종교이다.

불교는 神 중심… 구원의 종교 아냐
부처님, 삶의 현장 속 지혜 설하셨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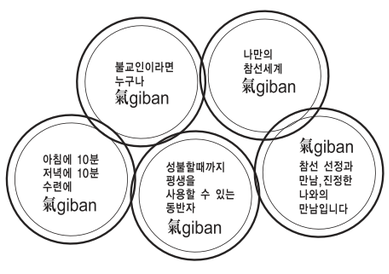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미얀마, 종교와 민족 갈등 '분기점'에 서다

미얀마 불교계 총선 앞두고 'USDP' 지지… 우려 여론 확산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미얀마 총선에 '민주화'를 기대하는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얀마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불교급진그룹 '마바타'가 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

'Nikkei Asian Review'는 10월 18일 "미얀마의 불교급진그룹인 '마바타(Ma Ba Tha)'가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최대 야당 민족민주동맹(이하 NLD)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무슬림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집권 야당 통합단결발전당(이하 USDP)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Nikkei Asian Review'는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미얀마의 종교간 긴장이 선거를 앞둔 정세 속에서 재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바타의 '반(反) 수치 정서'는 지난 16일 라킨(Rakhine)을 방문한 수치 여사가 "미얀마 무슬림의 권익을 세우겠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마바타는 라킨 방문을 철회할 것을 수지 여사에게 요구했다.

'Nikkei Asian Review'에 따르면, 라킨의 무슬림들은 미얀마 종교 · 민족 갈등의 현장인 라킨을 방문한 수치 여사를 환영했다. 이와 함께 라킨 무슬림들은 '어머니 수치'를 외치며 미얀마 소수민족인 무슬림(로힝야)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 주길 청원했다.

수치 여사의 라킨 방문을 지켜본 바담따 위말라(Bhaddamta Vimala) 마바타 사무총장 스님은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의 부족한 경륜으로는 종교 · 민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이끌 수 없다"며 "불교계는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총선을 대비해 유권자인 신도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USDP 지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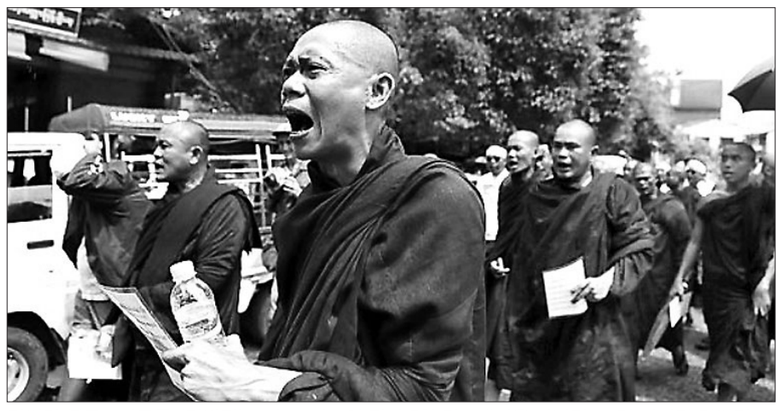
이에 대해 USDP는 '미얀마 현행법에서 스님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급진그룹 '마바타' 요청 불구
수치여사 로힝야족 방문 '단초'
"NLD, 미얀마 갈등 해결 못 해"
투표 선동행위에 국제적 관심

마바타와 동맹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집권 야당인 USDP는 과거 군사정권 출신의 군장성들이 모여 있는 집권 야당이다.

유 타이 우(U Htay oo) USDP 대표는 "마바타가 USDP의 선거 후보자를 찍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단지 미얀마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황은 다르다. '불교계 빈 라덴'으로 지목된 마바타의 위라투(Wirathu) 스님을 필두로 마바타의 스님들은 대중 법회에서 "불교도는 떼인 세인(Thein Sein, 現 미얀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며 "그와 USDP는 미얀마의 평화를 지키고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미얀마 불교급진그룹 '마바타' 소속 스님들이 지난 5월 가두행진을 벌였다. 국제 사회가 미얀마 정부의 무국적 로힝야족 탄압을 비판하자,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NLD는 "마바타가 NLD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를 선동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통합선거관리위원회(Union Election Commission)에 전달했다. 미얀마 선거법은 종교 · 인종 등을 이유로 투표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총선은 미얀마 현안인 종교 · 민족 갈등의 갈림길이기도 하다"고 전제한 'Nikkei Asian Review'는 "이는 집권 야당과 불교계 선거전에 대한 NLD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자, 미얀마 국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AP통신은 "11월8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미얀마에서 종교의 정치화 및 증오 연설이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무부의 경고를 전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차관보는 "이번 선거가 미얀마의 독재 체제 극복을 위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지만 "미국은 선거 과정 여러 단계에서 노정되는 약점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라킨에서는 지난 2012년 불교도 주민과 소수 로힝야 무슬림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해 2백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라킨에서 발생한 14만 명의 난민 중 대다수는 이슬람 로힝야족이다. 인권운동가로 노벨상을 수상한 수치 여사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교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라킨의 무슬림에 대한 미얀마 정부와 불교계의 인권 유린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 국제 비난 여론에 시달린 바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대만 스님들, 옥수수로 '자비 나눔'

캐나다 히터데일서 옥수수 농장 무료개방 '주목'

2년 전 주민들 도움 받아 회향
구세군에 옥수수 2톤 전달도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에서 지역 포교에 나선 스님들의 '아름다운 서원 실천'이 화제다.

'CBCNEWS'는 10월 18일 "세인트로렌스 만(灣)에 있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몬테규에서 대만 불교계 스님들의 '서원 실천'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님들이 몬테규의 히터데일(Heatherdale) 일대에서 은사 스님과 함께 직접 일궈온 옥수수 농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한 것이다.

"저녁 5시까지 농장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옥수수를 따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한 단(Dan) 스님은 "2년 전 은사를 모시고 사형사제가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 여러 난관에 부딪쳤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은사 스님은 들녘에 쭉 뻗은 옥수수를 보면서 무엇이든지 지역 주민과 나눌 것을 우리에게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CBCNEWS'에 따르면, 스님들의 옥수수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물이라도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라 옥수수는 철저하게 유기농법으로 재배됐던 게 알려졌고, 또 옥수수를 가져가는 양도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아들과 사원 옥수수 농장을 찾은 트리스타 도라(Trista Doary)씨는 "건강에 좋은 유기농 옥수수를 먹게 됐다"며 "옥수수를 수확하며 두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쌓고, 스님들의 따뜻한 마음도 새겼다"고 말했다.

옥수수 농장이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푸드 뱅크'는 스님들의 옥수수 나눔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푸드 뱅크 자원봉사자 진 마키(Jeanne Maki)씨는 "불우 이웃을 돕는 일은 종교를 떠나 의미 있는 행동"이라며 "힘들게 키운 옥수수를 흔쾌히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스님들에게 관용의 참 모습을 보았다"며 "옥수수를 받은 불우 이웃들 역시 잊지 않고 스님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몹시 훈훈했다"고 말했다.

진 마키 씨는 지난 2주간 옥수수 농장을 방문해 수확한 옥수수를 '푸드 뱅크'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불우 이웃들과 나눴다.

한편 'CBCNEWS'는 "스님들은 지난 10여 일간 옥수수 농장에서 수확한 약 2톤의 옥수수를 샤롯타운(Charlottetown)의 구세군에 전달하는 등 노력도 전개했다"며 "스님들이 스스로 약속을 묵묵히 실천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에서 단 스님(사진)을 비롯한 대만불교계 스님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키운 옥수수를 나눠줘 화제다.

뉴욕타임즈, 정관 스님 사찰음식 "고귀하다" 극찬


뉴욕타임즈는 10월 16일 '사찰요리 대가' 백양사 천진암 주지 정관 스님(사진)을 소개하고 "가장 고귀한 음식을 만든다"고 언급했다.
출처=뉴욕타임즈

10월 16일 백양사 천진암 주지 정관 스님 텃밭 등 소개

뉴욕 타임즈가 한국 비구니 스님의 사찰요리에 극찬을 표했다.

'NewYork Times'(이하 뉴욕타임즈)는 10월 16일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곳은 뉴욕도, 코펜하겐도 아니다"며 "대한민국 외진 암자에 있는 59세 비구니 스님이 경외할 만한 채식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59세 한국 비구니 스님'은 내장산 백양사 천진암 주지 정관 스님이다. 뉴욕타임즈는 정관 스님의 사찰 요리법을 취재하기 위해 직접 현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 스님 요리법의 특징은 재료 본연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다. 정관 스님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서 "우리의 몸과 미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궁극적 요리는 과일 · 채소 · 허브 · 콩 · 버섯 · 곡물 등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오이를 요리할 때는 내가 오이가 된다. 완성된 요리와 본연의 재료 사이에 어떤 거리도 느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관 스님은 지난 2월 세계적 셰프 에릭 리퍼트(Eric Ripert)가 진행하는 미국 공영방송 PBS-TV 요리프로그램 1회 출연함으로써 한국사찰음식을 소개해 큰 주목을 끌었을 뿐 아니라, 맨해튼에 위치한 '르 버나댕(Le Bernadin)' 레스토랑에서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정관 스님은 레스토랑을 운영하지 않는다. 또 스님은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운 적도 없다"며 "하지만 스님은 미쉘 브라(Michel Bras), 알랭 파사흐(Alain Passard) 등과 같은 세계적 스타 셰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정관 스님이 가꾸고 있는 텃밭에 주목했다. 스님은 산언덕에 텃밭을 만들고 호박, 가지, 들깨, 허브 등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스님의 텃밭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그녀의 성품을 닮아있었다"며 "스님은 텃밭 작물을 곤충이나 멧돼지가 헤쳐도 그대로 둔다. 울타리 없이 자연친화적으로 경작하는 텃밭이 비밀 병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관 스님은 적문 스님, 선재 스님 등과 함께 사찰음식 전문가 1세대로 꼽히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교재 편찬위원 및 풋내 사찰음식연구소장,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회 부회장 등 맡은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달라이라마 "지구온난화, 전 세계인 책임"

티벳 망명정부, 10월 20일 기후변화캠페인 영상 담화문서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 심각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 불교 정신적지주 달라이라마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의 지붕' 티베트가 파괴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buzzflash' 10월 21일 달라이라마가 인도 다람살라에 위치한 티벳 망명정부 기후변화 캠페인 일환으로 20일 영상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기후변화는 전 인류의 책임이다. 세계의 지붕, 티베트 고원을 지켜달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50년간 티베트 고원 기온이 1.3℃ 올랐다. 이 추세라면 35년 후에는 이곳 빙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아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2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그 여자 그 남자 / JTBC 부모찾기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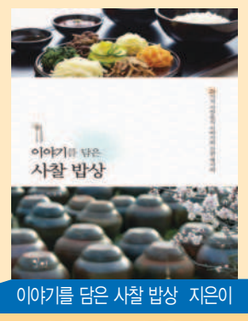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올 가을 '꼭' 읽어야 할 추천 도서

BOOK STORE



이야기를 담은 사찰 밥상 지은이
이경애 | 조계종출판사



너무 멀리서 찾지 마라
정운스님 | 조계종출판사



무비 스님의 전심법요 강설
무비스님 | 조계종출판사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문재현 선사 | 도서출판 문젠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문재현 선사 | 도서출판 문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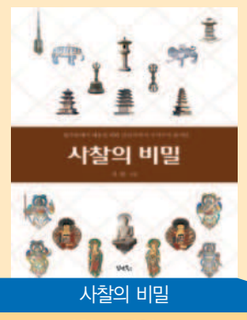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문재현 선사 | 도서출판 문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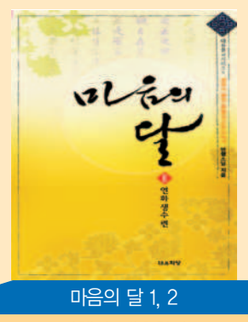
한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
마스노 슌모 | 담앤북스



엉뚱발랄 동자승 마음일기
쉐청 | 담앤북스



사찰의 비밀
자현 | 담앤북스



마음의 달 1, 2
만행 | 대유학당



항복기심
만행 | 대유학당



선용기심
만행 | 대유학당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천명일 | 지혜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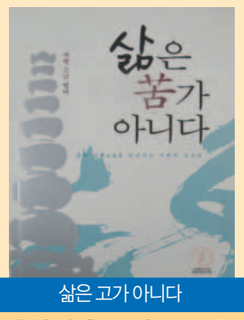
절로 가는 길
천명일 | 지혜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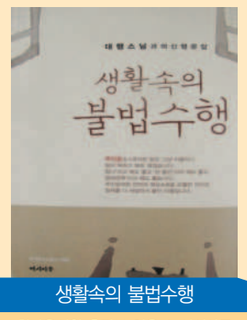
수능엄경 (상 중 하)
천명일(해설) | 지혜의 나무



그냥 무조건이야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현대불교



삶은 고가 아니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여시아문



생활속의 불법수행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여시아문

조계종출판사

이야기를 담은 사찰 밥상

건강이 위태로운 노스님의 입맛을 찾기 위해 만든 장떡, 재료 준비만 삼 개월 전부터 시작해야 하는 오과백미, 지리산 청정한 산골에서 꽃과 약초를 구하는 보살과의 만남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책. 그 이야기 끝에 『이야기를 담은 사찰 밥상』은 옛것을 지키고,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너무 멀리서 찾지 마라

수행이 어렵지 않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책. 대한불교조계종 교수 아사리이며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한 저자 정운 스님은 우리네 삶과 수행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듯이 전한다.

무비 스님의 전심법요 강설

임제종의 기초를 세운 황벽 스님의 어록이자, 조사선의 핵심이 담긴 '전심법요'. 이를 무비 스님이 생생한 강설로 풀었다. 무비 스님은 '전심법요'의 대지인 '유전일심 갱무별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처의 소질은 우리의 마음에 달렸음을 일깨운다.

■ 문의 02)733-6390

도서출판 문젠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다.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다.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전등록 전30권을 5권으로 완간!
7불과 역대 조사의 말씀과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명안종사인 대원 문재현 선사가, 기존의 학술적 번역과 달리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 대선사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 문의 031)534-3373

담앤북스

불안과 외로움을 다스리는 인생의 약상자

"살아 있는 한 계속되는" 불안과 외로움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전한다. 일본 선승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스노 슌묘의 최신작이다. 책에 소개된 38가지 마음 처방전을 따라하다 보면 내면 안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엉뚱발랄 동자승 마음일기

불이사(不二寺)에 사는 천방지축 동자승의 수행 일상을 담은 94편의 만화다. 동자승과 스승이 나누는 대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레 불교의 참뜻을 알게 된다. 또 불이사를 찾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사찰의 비밀

사찰에 갈 때마다 사찰 곳곳의 숨은 의미가 궁금했다면? 「사찰의 비밀」을 읽어 보자. 절이 산으로 간 이유에서부터 탑의 층수가 모두 홀수인 이유, 법당에 부처님이 여러 분인 이유 등 사찰 구석구석에 깃든 불교문화와 역사, 의미를 단 한 권에 모두 담았다.

■ 문의 02)765-1251

대유학당

마음의 달 1, 2

6조 혜능, 탑몽대사와의 기연!!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무문관 수행끝에 성품을 본 만행스님의 수련과 깨침의 과정 그리고 1천명이 항시 수도할 수 있는 수행도량 동화선사를 창건하게된 보살행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다.

항복기심

이 책은 저자인 만행 스님이 폐관을 통해 직접 체득한 수련을 여러 불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종의 불문 길잡이 책이다.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이의 마음가짐과 육체 수련법을 자세하고, 심도 있게 법문하고 있다. 특히 3자명, 6자진언, 음공과 숨쉬기 등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불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신과 몸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선용기심

본 책은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육체수련의 방법을 득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세하고도 심도있게 법문했다. 특히 불경과 수련 그리고 보살행에 대한, 마음자세와 수련하는 방법 등은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의 심신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문의 02) 2249-5630

지혜의 나무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는 이야기 천자문이다.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 쉽게 엮어내었다.

절로 가는 길

참 나를 찾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보는 천자문 이야기는 깨달 음으로 가는 해탈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

이 책은 사찰의 안과 밖의 참 면목을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만나게 되듯 지극히 편안한 마음으로 안내하며, 사찰의 구조적 풍광과 모든 조형의 조각물들이 모두 문자로 보이고, 형색의 도설이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로 들려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 해 준다.

수능엄경 (상·중·하)

이 책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이다.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 하다.

■ 문의 02)730-2211

여시아문

그냥 무조건이야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 가는길 !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실상의 가르침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속에 담긴 선지(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 참말씀

삶은 고가 아니다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속의 불법수행

故 대행 큰스님과의 수행 문답집. 일상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들과 고통스런 의문들을 큰스님께 묻고, 그에 대한 스님의 선(선)적인 답변을 실어놓은 이 책은 어느 누가 읽어도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생활참선의 지침서다.

■ 문의 02)2004-8213



이란修德華 지음 / 값 17,000원

승만의 꽃다발을 당신에게

이 시대의 승만보살로
신사임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란 보살의 수묵화 같은 수행기

**은행통장은 없어도 공덕통장을 채우고 살면 행복하다.
고난은 방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부처님의 신호
승만보살의 서원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이란 부인은 여여원을 설립하여 오랫동안 가정법회를 열어오고 사찰의 불사에도 동참했다. 이 한권의 책 속에는 교계의 향기로운 난초(蘭) 역할을 톡톡히 하며 재가불자의 훌륭한 모델로 존중받는 이란 보살의 열정과 헌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 고영섭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어머니는 우리 가족과 많은 이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주셨다.
어머니의 소리없이 자애로운 교육방식과 철학은 교육자인 나에게 어떠한 이론서보다 귀감이 되는 교과서였다. 어머니처럼 향기로운 불자의 삶을 살고 싶다.

– 이재성 (서울교대부설 초등학교 교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9-4 이가비딩 104호 대표전화 02-336-8910 시공사

BTN 가을개편

“이제 TV 보지만 말고, 전화·문자로 소통해요”

대표 불교계 방송사인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가을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1월 2일부터 선보이는 이번 신규프로그램은 여행, 토크, 상담, 음악, 법문 등의 프로그램이 신설돼 장르의 폭을 넓혔다. 특히 시청자 참여 기회를 높인 것이 특징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소통을 통한 감동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덕현 기자











월 법륜 스님의 ‘붓다의 길 깨달음의 길’
16일간 인도순례 독점 동행취재

먼저 월요일에는 ‘법륜 스님이 안내하는 붓다의 길, 깨달음의길’ 이 선보인다. ‘붓다의길, 깨달음의 길’ 은 BTN취재진이 법륜 스님을 비롯한 정토회 순례단의 인도성지순례를 15박 16일간 독점 동행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이후 2년 만에 BTN을 통해 선보이는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자.

법륜 스님은 매년 정토회 순례단과 인도성지 순례를 통해 부처님 탄생지를 돌아보고 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내고 수행해야 될지를 찾는 것이 성지순례의 참 의미”라고 강조한다.

*본방송: 월 11:20, 재방송: 수 23:00, 목 15:50, 일 18:50

월 생방송BTN ‘즉문즉설’
유쾌한 입담, 전화 및 문자참여 가능

이와 함께 월요일에는 삶에 대한 물음표를 깨달음의 느낌표로 바꾸는 ‘생방송BTN 즉문즉설’ 이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즉문즉설’ 에서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불자라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 세분의 스님들이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과 관점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유쾌한 입담으로 그 해법을 제시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즉문즉설은 전화나 문자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로의 고민과 걱정을 나누고 재미와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신행생활에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본방송: 월 13:50, 재방송: 금 21:00, 일 12:20

화 여행포엠 ‘소풍’
스토리를 담은 테마여행 길잡이

화요일에는 스토리를 담은 테마 여행 길라잡이 ‘여행포엠 소풍’ 이 신설됐다. ‘소풍’ 은 곳곳에 숨어 있는 여행지의 이야기를 한편의 시처럼 담아낸다. 한 지역에 여행을 가면 만나게 되는 대표음식과 이야기 등 문화를 전한다.

‘여행포엠 소풍’ 은 지리적 환경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숨결과 지혜, 그리고 역사와 문화로 응축된 이야기로 매주 한편의 아름다운 영상, 절제된 화면, 그리고 진부하지 않은 음악, 마지막으로 친근감 있는 나레이터까지 곁들여 배낭 하나 둘러매고 금방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

*본방송: 화 19:30, 재방송: 수 · 토 13:50, 일 08:50

화 뮤직에세이 ‘편지’
전 세대 불자들과 소통하는 음악 선보여

아울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사연으로 말하는 음악이야기 ‘뮤직에세이 편지’ 가 신설된다. 전세대 불자들과 소통하며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으로 지찬, 성전, 효산 스님이 진행한다.

사연이 있는 음악을 비롯해 칭찬릴레이 등이 진행되며 실시간 문자메시지 등 시청자와 소통하는 코너도 선보인다.

특별히 엄선한 음악을 통해 기존 시청자 뿐아니라 신규 시청자들의 시선도 고정시킨다. 이와함께 음악 속 사연으로 즐거움과 유익함을 선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방송: 화 11:20, 재방송: 토 13:50, 일 21:50

수 토크쇼 ‘세상만사’
4명의 스님들이 불자들의 고민을 타파

인생에 있어 맞춤 정답이 있을까? 수요일에는 현대인들을 위한 힐링대안 토크 프로그램 ‘우리들의 토크쇼 세상만사’ 가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심산, 하림, 만초, 주석 스님 등 4명의 스님들이 진행하는 ‘토크쇼 세상만사’ 는 주변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대안을 스님들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인 극복 및 치유방안으로 불교의 마음수행법을 소개한다. 개성이 넘치는 스님들이 유쾌하게 진행하는 토크쇼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물음과 고민부터 사회의 일반적인 이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본방송: 수 11:20, 재방송: 목 23:00, 토 08:30

“가을에는 박물관서 불교미술을”

통도사 · 월정사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다채’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 박물관에서 불교 미술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은 어떨까. 가을을 맞아 박물관들이 불교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지준)은 10월 20일 제32회 괘불탱화 특별전을 개막했다. 특별전은 내년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에 출품된 작품은 ‘예산 수덕사 괘불탱화’ 로 1673년 만들어진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불화다. 보물 1263호로 지정돼 있으며 가로 7.2m 세로 10m 크기로 삼베에 채색됐다. 이 괘불 조성에는 응열, 옥준, 학전, 석능 스님이 참여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풍부한 불화자료를 보유한 곳 중 하나다. 특히 본관 1~2층이 트여진 중앙홀에는 대형 괘불을 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괘불탱화 특별전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또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10월 19일부터 3개월간 흙을 빚어 만드는 ‘흙사람’ 작가 허경혜 씨의 작품을 전시하는 제18회 작은전시회 초청전도 개최한다. 여기에는 ‘허경혜 토우전-산사 이야기’ 전시품 중 선별된 20여 점이 전시된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11월 9일까지 제1전시실에서 ‘제11회 민화 특별전, 붓다의 마음으로 그린 민화의 향연’ 을 연다. ‘제12회 오대산문화축전’ 일환으로 열리는 민화 특별전에는 박물관 문화대학 산하 민화연구반 회원들의 다양한 민화 작품과 다수의 전국공모전 수상작품 30여 점이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11월 15일까지 개최되는 특별전 ‘고대불교조각대전-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에 참관한 이들을 대상으로 연계 이벤트를 개최한다. ‘고대불교조각대전-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는 인도부터 한반도까지 불상의 탄생과 발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전시다. 개관 10주년인 10월 28일 총 5명을 추첨으로 선정하며, 당첨된 관람객에게는 전시에 출품된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의 실물 크기 복제상,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의 소형 복제상 등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불상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국제학술심포지엄도 10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수덕사 괘불탱화’

불화계 원로 박정자 화백, 전통불화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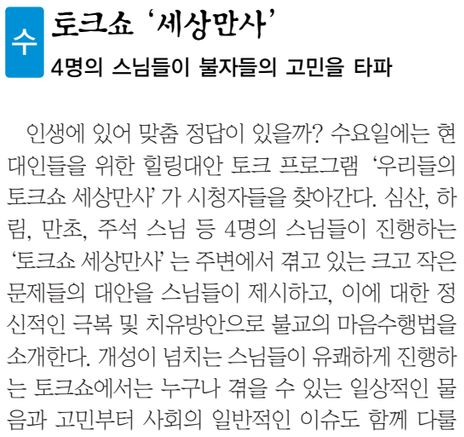
11월 5~11일까지 나주 문화예술회관서

한국 전통불화의 원로인 박정자 화백〈사진〉이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통불화전을 개최한다.

박 화백은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만봉스님 문하에 입문한 이래 불모의 길을 걸어왔다. 박 화백의 탱화는 명법사, 법화사, 관음서원, 백운사, 운흥사, 일문사, 길상사 등에 봉안됐다.

박 화백은 1983년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입상을 시작으로 제8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제10회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1987년 제48호 단청장 후보로 지정됐다. 1988년 일본 후락원 불화전을 비롯해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네덜란드, 미국LA 등에서 선시회를 열고 한국불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인들에게 알려왔다. 해외전시만 10여 차례에 달한다. 박 화백은 또 2002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통불화전을 연데 이어 매년 전시전을 개최, 총 13회를 개최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주제로 한 불화 ‘관세음보살보문품 변상도’ 를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에게 소장작품으로 꼽히는 ‘백수백복’ 등이 있다. 저서로는 〈사불교본〉, 〈새천년 전통불화전 도록〉, 〈신비한 불화의 세계〉 등 총 11권이 있다. (010)6219-906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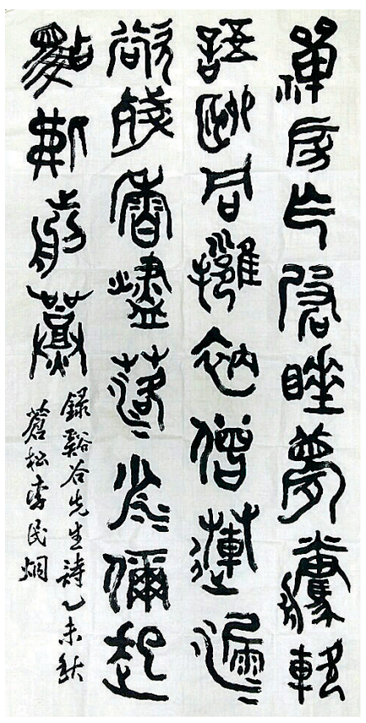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復疊前韻
다시 앞의 시에 첩운하다

禪房乍破睡　騰
선방에서 언뜻 잠깬 몽롱한 정신으로
軟語聊同擁衲僧
납의 걸친 스님과 그냥 이런저런 얘기
蓮漏欲殘香燼落
연루도 다 끝나가 재만 남은 향불들
沙彌起點佛前燈
사미승 일어나서 불상 앞에 점등하네

– 谿谷 先生 詩

"마음 주제로 유학자와 스님의 소통 다뤄"

원각서예대전 대상 받은 청송 이민형 서예가



최근 천태종 제3회 원각서예문인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이민형 작가(사진)는 매일 〈반야심경〉을 독경하고 108배를 올리는 독실한 불자다. 그래서 일까. 하얀 도화지 위에 검은 글씨 속에는 수행을 통한 힘이 느껴졌다. 기교를 부리지 않은 글씨의 획 하나 하나는 고법(古法)의 충실함이 묻어났다.

이민형 작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품에 안겨 절에 다녔다. 어려서부터 늘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스님들이 세상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랬기에 이민형 작가가 조선 중기 불교와의 인연이 깊은 계곡 장유 선생의 글에 빠져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곡 장유 선생은 양명학 전래 초기 이를 수용한 대표적 학자 중 한명으로 당시 맹목적 교조주의를 비판하고 내면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양지와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이런 견지에서 불교와의 회통으로 마음 다스림에 대한 글을 다수 남겼다. 〈복첩전운〉 시 또한 장유 선생이 암자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찾아가 담소를 나누며 촛불이나 향불이 타들어 갈 때까지 나누던 말이다.

"당대의 문인이었던 장유 선생이 담담하게 스님들과 나누는 부분에서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 글 속에 있는 미묘한 멋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민형 작가는 끝으로 "아직 부족한 면이 많기에 재주나 기교보다는 사람의 성품을 갖춘 후 진솔한 글씨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초심을 화두를 삼아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송(蒼松) 이민형 서예가는 대전대 인문예술대학 서예학과를 졸업한 후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예술문화학과를 졸업했다. 진부서당 훈장으로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회원이다.

탄허대종사 선서 함양 전국 휘호대회 대상, 원각 서예문인화대전 대상, 대한민국 서예대상전 우수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개인전으로는 '문예향전 2010' '삼허서연회원전 2011' '가회필무전 2013' '교학상장전 2014' 등을 연 바 있다. 현재 하남시와 마포구, 강서구 등에서 서예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 명차의 발전상과 흐름 살펴볼 기회

명원문화재단, '2015명원 세계차박람회'…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B홀에서 '2015 명원 세계 차 박람회'를 개최한다. (사)한국다도총연합회와 (사)홍차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과 해외차 산업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하동, 보성, 순천, 장흥 등 국내 주요 전통차들과 유럽 · 중국 · 대만 · 일본 등의 해외 명차가 소개된다.

주최 측에서 대만의 여래진 대사를 비롯해 10개국 15명의 세계적인 차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 차 시장의 흐름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먼저 개막식 식전무대에서는 한국 무용가 손정아 우리문화예술원 원장의 창과 춤, 가야금 병창 공연이 진행되며 개막식에서 '제20회 명원 국제 차 문화 대상식'이 진행된다. 시상은 학술 · 공로 · 교육 세 분야로 수상자들에겐 각 10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2014년 코엑스에서 열린 명원 세계차박람회 모습

본 행사에서는 '제20회 월드 티 아트 콘테스트'가 진행된다. 여기서는 다식과 다화 경연대회를 비롯해 차와 어울리는 음식 조리, 차실의 차탁을 수놓는 꽃의 조화 구성 등으로 승부가 진행된다. 대회장인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차 안의 나, 내 안의 차를 돌아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어머니 자궁은 우주만물의 생산·파괴자

모성 없는 여성들의 권력 승계 영화 '차이나타운'



일을 처리 할 때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감정의 동요도 없는 엄마. 일영이 석현을 만난 후부터 차이나타운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됐음을 알아챈다. 일영에게도 예외란 없다.

앞서 필자는 모성을 주제로 한 신수원 감독의 〈마돈나((Madonna)〉를 소개하면서 올해 상반기 영화계의 최고 화두는 '부성(父性)'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리고 〈국제시장〉, 〈인터스텔라(Interstellar)〉를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았다.

이번에 소개하는 〈차이나타운〉은 모성 부재 혹은 여성성 부재에 대한 작품이어서 눈길을 끈다.

주인공인 일영(김고은)은 지하철 10번 보관함에 버려진 아이였다. 아이는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으로 흘러들어간다. 차이나타운을 지배하는 것은 엄마(김혜수)이다. 자라면서 일영은 엄마에게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한다. 이는 다시 말해 일영은 제법 쓸모 있는 아이가 되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일영에게 차이나타운은 세상의 중심이자 전부이다. 가짜일지라도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이름을 붙여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가족은 인간관계의 1차적 확장이다. 영화 속 두 여성의 운명이 혈연이 아님에도 유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일영은 악성채무자의 아들 석현을 만난다. 석현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일영은 마음이 흔들린다. 석현은 차이나타운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랑에 빠진 뒤 일영은 쓸모 있는 아이에서 쓸모없는 아이로 바뀌게 된다. 이를 눈치 챈 엄마는 일영에게 석현을 죽일 것을 지시한다. 일영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자 엄마는 석현을 처리한다. 그리고 엄마가 엄마의 엄마를 죽이고 엄마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일영도 비정한 대물림의 운명을 수행한다.

서사(敍事)만 보자면, 〈차이나타운〉은 전형적인 느와르 필름의 공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냉정한 어둠의 세계에서 자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 뒤 두목을 배신한다는 줄거리는 식상하기 그지없다. 설령, 권력 승계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차이나타운〉은 단선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타운〉은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비정한 세계의 주인공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고, 그 비정한 세계의 권력 승계가 여성에서 여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권력 승계라는 특이한 설정에 대해 한준희 감독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강한 것 같다. 여자들은 결정적인 순간과 중요한 순간에 변명도 하지 않고 더 강력한 결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증명해 봐
네가 아직 쓸모 있다는 증명"

"결정은 한 번이고
그게 우리 방식이야"

엄마와 일영의 친연성은 부모로부터 유기됐다는 동질감에 기인한다. 엄마가 볼 때 일영은 엄마의 과거이고, 엄마는 일영의 미래이다. 그런 까닭에 냉정하기 짝이 없는 엄마도 일영을 벌해야 하는 순간에 망설이는 것이다.

일영에게 엄마는 '오브제 프티 아(object little a)'이다. 엄마는 차이나타운 질서의 대표자이자 일영이 스스로 동일시하는 대타자인 것이다. 그래서 일영의 욕망은 실현되지 않고 외려 어긋나는 것이다.

〈차이나타운〉의 주인공은 엄마와 일영이라는 두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는 모성도 없고, 여성성도 없다. 〈차이나타운〉에는 다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원형의 여성은 쓸모가 없다. 도시와 대장장이와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원형의 여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이나타운〉에 등장하는 두 여성의 여성성에 모성이 전면 결여됐다고는 할 수 없다.

지장보살은 사전적 의미는 '어머니 대지의 자궁'이다. 지장보살의 범명은 Ksitigarbha, Ksiti는 땅을 의미하고 garbha는 태 혹은 자궁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머니 대지의 자궁인 지장보살이 들고 있는 게 중생의 죄과를 따지는 육환장이다. 대자연 어머니의 표상은 엄함과 자비를 아울러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자연 어머니의 자궁은 우주만물의 생산자인 동시에 파괴자이기 때문이다.

〈차이나타운〉이 놀라운 점은 어머니의 자궁이 지하철 10번 보관함으로 표상된다는 사실이다.

유응오 작가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0.15~2015.10.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2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3	부처님의부자수업	윤성식	불광출판사
4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5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6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7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8	이야기를담은사찰밥상	이경애	아름다운인연
9	인생의약상자	마쓰노`田/김정환	담앤북스
10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茶는 우주를 소통하는 이상적인 정신 음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박동춘의 한국차 문화사
박동춘 지음
동아시아 펴냄
1만 8천원



초의차 5대 계승자인 박동춘 소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동춘차’를 매년 만든다. 사진은 차를 덖는 박소장

우리나라 차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한국 전통차 초기 역사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나 선종의 불교문화를 통해 독자적으로 성장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차가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시기를 선덕여왕때로 본다. 당나라를 다녀온 김대렴이란 인물이 차 씨앗을 들여온 것이다. 이때부터 차는 불교 및 승려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 차는 이후 부처님을 위한 공양물로서 사용됐다.

고려시대가 되면서 차 문화는 부흥기를 맞게 된다. 왕실의 주도로 차 문화를 확산시킨 것은 불교의 역할이 컸다. 고려 초, 왕실이 주관하는 의례에 차가 올려졌고, 귀족층 또한 ‘고급문화’로써 차를 향유했다. 이런 고급문화인 차가 대중적으로 확산된 것은 바로 불교의 힘이었다. 당시 고려의 사상세계를 지배한 불교계와 교류한 문인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차문화는 척불숭유가 대두된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쇠퇴기를 맞는다. 그리고 조용히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스님들과 교류하는 문인들 사이서 조용히 지속된다. 벼슬길에서 벗어나 은자의 삶에 들면서 자연과의 합일을 노래하는 문인들의 안빈낙도 정신과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의 차 문화가 일맥상통해 어우러지게 된 것이다. 당시 차를 만드는 것은 불가의 독특한 문화였지만 이들과 어울리는 문인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정약용은 아암 혜장 등 만덕사의 승려들에게 주역, 시문 등을 가르쳤고, 그 보답으로 차를 받았다. 김정희 또한 만허 스님에게 차를 구하기 위해 ‘희증만허’라는 시를 써서 보냈다. 이후 만허 스님이 어려워했던 불교 교리를 해석해주고 난 뒤 보시로 차를 받기도 했는데, 다른 승려들에게 추사체 작품을 많이 써주었다고 한다. ‘기다(記茶)’를 저술하여 차의 실용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것은 농업 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변화되는 시기에 대두된 차의 실용안이라는 것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한국전통차의 원형 상세히 밝혀내
고려, 왕실이 선도한 차문화 융성기
조선때 척불숭유와 차 풍속 스러져

신간 〈박동춘의 한국차 문화사〉을 펴낸 저자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은 30여 년간 전통차 계승을 위해 앞장서온 차의 장인이자 달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 일본과 다른 한국 ‘전통차’의 원형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저자는 차를 직접 만들고 마시며, 심신을 수련하는 구도자로서, 그리고 차 이론과 역사 연구자로서 30여 년을 살아왔다. 이는 그가 30여 년 전에 만난 응송 스님과의 인연에서 시작되었다. 응송 스님은 책의 마지막 24번째 꼭지에 소개된 다인(茶人)이다. 한국 전통차의 성인이라 불리는 초의 선사의 법통을 이은 응송 스님을 저자는 1979년, 해남 백화사서 만났다. 당시 한학을 공부하던 26세 청년 박동춘과 86세의 노승 응송은 〈동다정통고〉 출판을 도우면서 인연을 맺었다. 책의 서문서 응송 스님은 자신이 경험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제자 박동춘에게 전한다는 글을 남겼고, 그에게 〈다도전게〉를 써줘 ‘초의차’의 법통을 잇는 공식 후계자로 임명했다. 이로써 박동춘 소장은 1800년대 초의선사로부터 시작해 범해, 금명, 응송에 이어 5대째 ‘초의차’(초의선사의 방식으로 만든 차) 계승자가 된 것이다. 저자가 그동안 걸어온 다인의 길은 그 자체가 바로 한국 전통차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다.

저자는 “차는 원래 맑음을 상징하며, 우주를 소통하는 이상적인 정신 음료이다. 또한 차를 즐기는 궁극의 목표는 맑은 정신과 고요해지는 마음이다”며 “그래서 차는 한국 선조들의 정신음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차’가 작금의 현대인들이 소비하는 식문화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차는 그저 맛을 위한 음식도, 웰빙 건강식도 아니다. 어떤 ‘행위’를 포함한다. 차에는 지난 1,000년간 정신과 마음의 수련까지 고려했던 선조들의 수행의 역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은 말초적 즐거움에 지친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닐까. 차를 사랑했던 한국 역사 속 문인들을 ‘다인’으로 호출해내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저자의 이번 책에는 24명의 차인들 전기와 함께 40여 편의 다시(茶詩)가 실려 있다. 1,000년의 역사 부침 속에서 차를 손에 놓지 않은 말 그대로 차의 장인들 이야기다. 제도적 차별 때문에 차로 심신을 달랜 최치원, 정치적 난세 속에서 친구와 틀어진 상처를 차로 치유한 도은 이숭인, 숭유억불 분위기 속에서도 차로 꾸준히 우정을 나눴던 추사와 초의 스님까지 망라하고 있다.

또한 책에선 최치원, 최승로, 추사도 있지만 이색 정몽주 김종직 김시습 정약용을 다인으로 불러내고 있다. 40여 편의 다시와 24명의 다인들의 전기(열전)를 통해 오랫동안 형성된 한국 전통차 문화의 원형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茶人과 茶詩 통해 본 〈한국차 문화사〉

이 책은 ‘차’로 애환을 풀고, ‘차’로 왕을 꾸짖고, ‘차’로 몸 건강을 다스렸으며, ‘차’로 사람을 만나고, ‘차’로 글을 지었던 한국사 인물들을 통해 1000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다.

– 고려 왕실 폐단을 꾸짖은 고려의 최승로
‘시무28조’에서 최승로는 ‘공덕재’라고 하는 불교 의례에서 왕이 직접 차를 갈아 마시는 의식을 하는 것을 ‘폐단’이라고 지적한다. 백성의 고혈로 차가 거둬져서 행해지는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 차를 나누던 도은과 삼봉
삼봉 정도전에게 죽임을 당했던 도은 이숭인. 그러나 둘은 귀한 차를 보내주며 챙길 정도로 절친이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

– 민초들 위한 차밭 만든 점필재 김종직
김종직은 해마다 나라에 차를 바쳐야 하는 차세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해 차밭을 만들었다. 스스로는 차를 즐긴 사람이었지만 차밭을 조성한 것은 함양군민들의 차세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 광자의 몸짓으로 세상 등진 김시습
단종 폐위에 자신의 책을 모두 불사르고 사흘 밤낮을 울었다는 김시습은 기행을 일삼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25편이 넘는 다시(茶時) 속에 담긴 그의 속내는 소박하고 청빈한 선비의 모습 그 자체뿐이다. 광자의 모습 일색이었던 역사의 기록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 악학궤범의 허백당 성현
문장과 음악에 능통했던 풍류객이었지만 혼란한 시절을 살았던 허백당 성현. 그가 살았던 시대와 달리 그가 남긴 「행화소영」을 보면 고요함 속의 끽다의 즐거움만이 담겨 있다.

– 한국 전통차의 성인, 초의선사
초의선사는 깊은 수행력으로 많은 문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나아가 자신이 복원시킨 대흥사의 제조법으로 만든 차를 자신과 교유했던 문인들에게 나눠 주기에 이른다. 당시 명나라의 차 제조법과 명확히 구분되는 ‘초의차’는 한국 특유의 얇은 찻잎으로, 한국의 풍토성이 담긴 차 맛을 구현해냈다.

참다운 인생위해선 세상 근본 원리 이해를



밥
서동석 지음
팝샷 펴냄
1만 3천원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얻는 것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 잃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양면에서 동시에 바라보고 손익을 헤아려야 목표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하면 결국 목표하는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전한 시대에 회남자(淮南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슴을 쫓는 자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작은 이익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크게 경책해야 할 때도 있지요. 삶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들 중에서 월(越)나라 대부 범려의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20여 년간 유불도 사상 연구한 저자의 인생 지침서

고려대서 〈에머슨의 중립성 연구 : 삶의 양극적 모순에 관한 생태적 통찰〉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10여 년간 서남대서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한 후 대학을 나와 수행을 연구했다. 에머슨의 중심 사상인 조화와 균형이 수행의 핵심원리인 중도와 통하고, 무엇보다 에머슨이 추구하는 진실한 삶이 인간사 모든 경영의 최고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 동서양을 아우르는 중도의 방법으로 고전 인문, 균형 학습, 건강 등 인생학과 관련된 다방면의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20여 년 간 ‘랄프 왈도 에머슨’과 ‘유불도(儒佛道)’ 사상을 연구해온 서동석 박사가 전하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동서양의 경전과 고전에서 뽑아낸 55가지 이야기를 통해 삶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준다. 세상에는 행복과 성공에 관한 방법론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삶의 현실은 모순과 갈등의 연속이라 어느 특정 방법론에 딱 들어맞을 수 없으며, 따라서 건강이든 성공이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유동적인 삶의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모든 경전과 고전의 기본 메시지는 동일하다

인간의 삶은 진리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 삶 속에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 모든 종교와 학문의 이상이다. 그 진리가 바로 중도이다. 예수님의 황금률도 중도이고, 공자님, 노자님, 부처님의 가르침도 중도이다. 언어의 형식적 표현을 넘어 그 언어가 의미하는 바를 본다면 모든 종교와 학문의 중도적 본질을 볼 수 있다.

경전과 고전에는 삶의 진리에 대한 해답이 있어

혹자는 〈논어〉와 〈맹자〉를 반드시 읽으라고 한다. 일생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윤리와 도덕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불경〉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 혹자는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고전을 읽으라 한다. 그런데 그 많은 경전과 고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책은 그런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수많은 고전과 경전에서 우리에게 바른 지침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만을 골라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지혜의 보고(寶庫)에서 마음의 양식을 취하다보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진리에 이르는 황금률을 찾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거제 멸치 청정지역

거제, 가조도, 섬마을은 계절에 따라
멸치, 멍게, 굴, 대구, 수산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주문 즉시 택배로 신선함을 확인하실 수 있게 약속드립니다.
사찰과 불자님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찰과 불자님 단체구입 환영
아파트, 중소기업, 단체주문 환영
바자회 용 멸치, 특상품 취급

※ 가격은 수산물이라 시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멸치 1박스 1.5kg

• 종류 : 참멸치, 볶음용 멸치, 다신멸치, 청어멸치는 2월경 부터 취급
(택배는 멸치 5박스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쫀득쫀득 멸치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 박동열)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경희 수산(주) 대표 (두손모음)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찰케 하는 화엄경법성게,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담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홍익이념으로 같이 불사 지어나갈 여법한도량 인연 원하며 비구 비구니 거사 보살님 등께서 운영하시는 사암모두 상관하지 않습니다.

경남 양산시 삼호로 74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전화 010-3854-8107.055)388-3878

松 송 根 근 油 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권력이 종교 짓밟는 만행 반복돼선 안돼"

10.27 불교법난 눈썹 돌리는 소리

원행 지음 | 에세이스트 펴냄 | 각권 1만 5천원





▲10.27 불교법난

10 · 27불교법난이 일어난 지 35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서 민주국가로 이행됐고, 신군부 전두환 정권 이후 5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으나, 10 · 27불교법난의 진상이나 피해 내용,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나 보상 등, 그 무엇도 속 시원히 이루어진 게 없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불교계와 재야 단체의 노력 끝에 강영훈 총리가 10 · 27불교법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2005년 8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어 법난을 조사했다. 이후 법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 직속으로 '10 · 27불교법난 피해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가 발족돼 지금까지 활동중이다.

하지만 진상 규명도 대부분 수박 겉핥기였고 법난을 입안하고 주도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참으로 기이한 사건으로 남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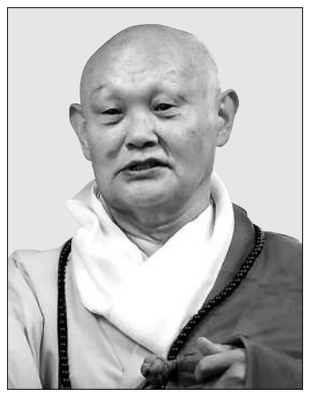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 원행 스님〈사진〉은 1980년 10월 27일 새벽 영문도 모른 채 강원도 원주의 보안사로 연행됐다. 다짜고짜 고문이 시작됐고 풀려나는 날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과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 그때 고문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고 치아는 성한 데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출가자는 개인의 고통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호소해서도 안 된다는 믿음 하나로 그 사건의 기억과 충격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파묻어 두고 살아왔다는 것.

그러나 다시는 국가권력이 종교를 불법적으로 짓밟는 만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에 그 참혹했던 기억을 생생히 되살려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자기 육신에 가해진그 무자비한 고문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에 대한 저들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무례를 잊을 수 없는 것이고, 대중들의 신성한 기도처인 부처님 도량을 짓밟은 무지막지한 만행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라도 만천하에 이를 폭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우매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책을 저술했다.

기억서 벗어나기 위해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 더 치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처는 과거의 오류를 인식하는 순간에야 치유되는 것이며, 치유란 상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되살아나 오늘의 문제로 회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분석과 반성이 곧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어떤 역사도 반성 없는 진화는 없다고 강변한다.

▲ 눈썹 돌리는 소리

탄허 큰스님은 그에게 원행(遠行)이란 법명을 지어주셨고, 또 그의 멀고 먼 구법의 행로를 예견한 듯 다음과 같은 휘호를 내리셨다.



10·27법난과 수행담 2권으로 묶어
주지 재임시절 포교 원력담도 소개
10월 27일 출판기념법회 열어

계간불능유득주(溪澗不能流得住) 경귀대해작파도(竟歸大海作波濤)〈계곡의 물은 쉼 없이 흐르고 흘러 큰 바다로 돌아가 파도치리라〉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서 탄허 스님과 은사 만화 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원행(遠行) 스님의 멀고도 험난한 수행 일지다. 스님은 1980년 10. 27불교법난을 겪고 1981년 월정사 분규사태를 겪고 1983년 탄허 스님과 은사 만화 스님이 한 해에 열반하시자, 제2의 출가길에 나서 가야산 해인사 성철 스님께로 가서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주 소임을 맡아 기도정진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법보전서 꾸준히 4분정근의 기도봉행 하던 동안 거 해제날, 눕지도 않고 책상 앞에 앉아 기도를 모시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다. 월정사 대적광전이 모두 불에 타고 새까맣게 탄 법당 안에 흰 글씨가 뚜렷이 보였던 것이다. '법륜전지(法輪轉旨)' 탄허 스님의 친필이었다.

그로부터 계룡산의 자광사로 가서 피폐된 절터에 3층짜리 법당을 불사하고, 동해 두타산 삼화사로 가서 880년대 조성된 철조 노사나불좌상(보물 제1292호)을 찾아 복원해 삼화사 주불로 모신다. 이 철불은 삼화사 마당가에 서 평도 안 되게 지어진 비좁은 전각에 시멘트로 대충 붙여놓은 채 '약사불'로 잘못 알려져 방치된 것을 원행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자마자 상호의 원만함을 예사롭지 않게 여겨 시멘트 대좌를 뜯어내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부임해서는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원주경찰서 경승실을 장엄해 불자 경찰들을 공부시키는 등 대중 포교에 힘썼다. 하지만 탄허 큰스님 열반 20주기 추모 행사 날 구룡사 대웅전이 누전으로 전소되는 위기를 맞는다. 이에 스님은 전소된 대웅전을 보고 식음전폐하며 기도 정진하던 중 기이하게도 시골 노부부가 찾아와 단돈 1만 원을 불사금으로 시주하면서 스님을 호되게 꾸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후 스님은 다시 중창불사를 하게 되는데 모든 불사의 인연이 이미 마련된 듯 순조롭게 불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월정사로 돌아와 부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지나간 구법의 과정을 회고한다. 책에는 이런 원행 스님의 일련의 포교와 수행 과정들이 파노라마 처럼 펼쳐져 있다. 한편 원행 스님은 10월 27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전통문화공연장서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의 행복

달라이라마 · 하워드 C. 커틀러 지음
황중환 그림 | 김미나 옮김 | 1만 3천원



올해 80번째 생일을 맞은 달라이라마 가르침 핵심에는 언제나 '행복'이 있다. 거기에는 '나'와 '세계'를 아울러서 바라보는 진중한 무게와 깊이가 있다.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을 만한 넓고 깊은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글과 그림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또 하나의 행복임에 틀림없다.

이 책은 1998년 출간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의 기본 개념을 함축하는 구절들을 선별해 그 원칙과 정수만을 농축한 것이다. 〈행복론〉처럼 주 내용이 다섯 가지로 나뉘는 전체 얼개에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발췌문을 약간의 수정과 함께 재구성했다. 그리고 원서 〈The Essence of Happiness〉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림을 추가했다. 국내 황중환 작가의 그림으로 글에 대한 이해에 한결 부드럽게 접근하고, 한번 더 깊이 사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했다.

〈행복론〉의 열 번째 기념판서 달라이라마가 "이 책의 목표는 인생에서 보다 큰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마다 갖는 엄청난 내적 능력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는 확신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고 쓴 것처럼, 책장을 넘기는 독자들은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늘상 생각하며 알던 행복의 개념에 대해 재정립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준다.

달라이 라마는 긍극적 행복을 위해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껴안아야 한다. 내 안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도구는 바로 '마음'이다. 그는 이 책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갈고 닦아 완성된 도구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준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찾아 나서려는 결심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놓는다.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줄 것이며, 우리는 습관처럼 매일 수련을 통해 행복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야 한다. 행복을 갈망한다면 행복을 불러올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더 이상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원인과 상황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행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지며 전염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사람의 온기와 연민을 가져야 한다. 자비롭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온화한 감정들은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연민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원하지 않고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다음으로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우리 현실에 만연한 소외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슴속에 연민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고통은 피하는 대신 직접 맞서는 쪽이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유리하다. 고통은 감정이입을 통해 연민을 느끼게 해주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도록 도와준다. 모든 고통에는 해결 방안이 있으므로 고통에 대한 성찰은 아주 중요하다.

다섯 주제 발췌문 수정해 재구성
달라이라마 가르침 핵심은 '행복'
사람의 온기와 연민 갖는게 중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꾸고자 마음을 먹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강한 의지와 소망을 품는 일이다. 뜨거운 열정의 불씨를 지펴야 하며, 절박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절박감은 문제를 극복하도록 해주며. 꾸준하게 노력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우리는 수동적이 되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은 카르마의 결과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주도권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행복의 비밀, 나의 즐거운 미래는 바로 내 손에 달려 있다고 달라이 라마는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달라이 라마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권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강조해 온 그는 1989년 노벨평화상, 1994년 루스벨트 자유상, 1994년 세계안보 평화상을 수상했다. 현재 티베트의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에 살고 있다. 틱낫한 스님과 더불어 불교수행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담은 글이나, 의미있는 삶과 평화롭게 죽는 지혜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겼다. 2001년에 망명 티베트 정부의 총리로 선출된 삼동 린포체에게 망명정부 수장 역할을 넘기고, 정신적 지도자로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활발한 강연활동과 저술을 하고 있다.

붓다의 언어, 빨리어 쉽게 배울 수 있는 학습서

빨리어의 기초와 실천

김한상 번역 | 씨아이알 펴냄 | 1만 8천원



이 책은 세계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초급 빨리어 교재이다. 문법 유형에 따라 총 32개의 〈LESSON〉으로 정리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였으며, 도표와 관련 어휘를 풍부하게 실어 이해를 도왔다. 간단한 예문 및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빨리어를 학습할 수 있다. 부록으로 빨리어 한글 색인 및 한글 빨리어 색인을 함께 실어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빨리어 단어들을 확인하고, 빨리어 문법 도표를 통해 본문의 격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본래 붓다가 사용한 언어는 무엇일까 바로 고대 인도어인 빨리어이다. 이는 산스끄리뜨어(Sanskrit)에 견주어 속어 또는 사투리라고 불리는 쁘라끄리뜨(Pr krit)의 하나로, 중기 인도 아리안어에 속하는 언어이다. 그리고 오늘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폭넓게 신봉되는 테라와다 불교의 성전어이다.

우리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모른다고 기독교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듯이, 빨리어를 모른다고 초기 불교나 테라와다 불교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중에는 이미 현대어로 저술된 초기 불교나 테라와다 불교 관련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을 읽다 보면 무수한 빨리어들을 반복적으로 발견한다.

이 용어들은 사실상 문맥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들을 지니기 때문에 현대어로 정확히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워 종종 잘못 번역되거나 그 해석을 두고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기 불교나 테라와다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빨리 성전을 직접 강독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이 책은 세계 각지서 널리 사용되는 초급 빨리어 교재이다. 문법 유형에 따라 총 32개의 〈LESSON〉으로 정리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했으며, 도표와 관련 어휘를 풍부하게 실어 이해를 도왔다. 간단한 예문 및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빨리어를 학습할 수 있다. 부록으로 빨리어 한글 색인 및 한글 빨리어 색인을 함께 실어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빨리어 단어들을 확인하고, 빨리어 문법 도표를 통해 본문의 격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김주일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지극한 佛心 담아 목판에 아로새기니…

14. 문화국가의 자긍심, 고려대장경

문화국가로서 고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은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된 대장경이다. 이는 고려청자나 고려불화의 화려하고 그윽한 아름다움과 함께 고려를 빛낸 역사적 기념물이자 자긍심의 소산이었다.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목판 대장경의 조성은 대단한 문화적, 사상적 성취였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사이에 보다 방대하고 우수한 대장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고려대장경은 그 중심에 있었고 동아시아 세계에서 유통되던 거의 모든 불교 경전과 문헌을 집성하고 그것을 다시 확산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는 고려의 문화적 역량과 자부심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으로서, 당시뿐 아니라 근대기까지도 다른 대장경의 표준이자 모델이 되었다.

대장경은 불교 경율론의 삼장을 집대성한 것으로 고려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만들어졌기에 이를 각각 초조대장경, 재조대장경이라고 부른다. 초조대장경은 1011년 거란의 침공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지방으로 피난을 간 상황에서 거란을 물리치기 위한 발원을 담아 조성을 시작하였다. 대장경의 판각은 1029년에 1차 완성되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국왕의 주관 하에 대규모 강경도량이 열리기도 했다. 이때의 대장경은 971년에 나온 동아시아 최초의 대장경인 송의 개보장을 모델로 하였다. 개보장은 지승에 의해 730년에 만들어진 불전 목록 〈개원석교록〉에 의거해 당시 수집 가능했던 1,078종, 5,048권의 경서를 집성한 것이다. 고려는 송에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대장경 인본을 구해 왔고 법상종 종찰 현화사의 창건 때도 대장경 한 질을 받아와 봉안하였다.

하지만 이후 송에서 대장경에 추가된 책들을 다시 모으고 고려에서 새로 발견된 경전을 추가하였고 거란이 세운 요에서 만든 대장경을 입수하여 1063년부터 1087년까지 판각을 다시 하여 총 6천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완성되었다.

당시 송과 요는 적대적 관계였고 서적 교류가 금지된 상황이었는데, 고려는 양측의 불서를 모두 입수하여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집성한 것이었다. 완성된 대장경 판목은 개경 인근 흥왕사의 대장전에 봉안되었고 이후 안전을 위해 대구 팔공산의 부인사로 옮겨져 보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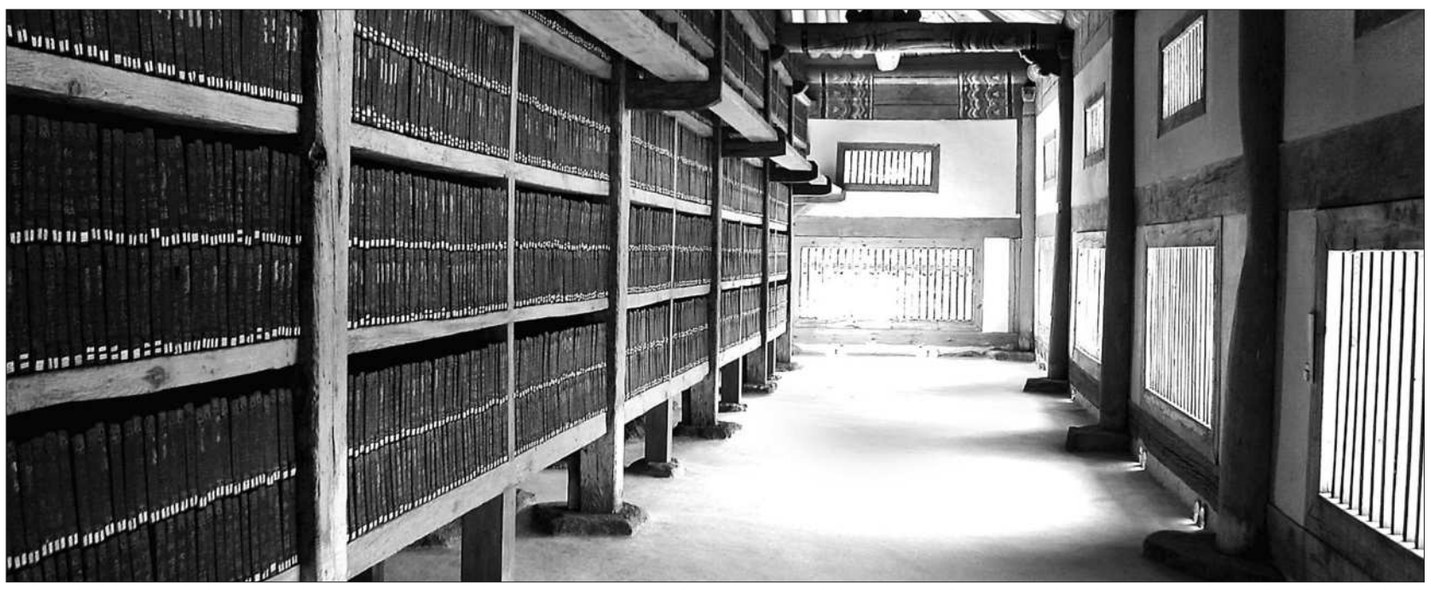
완성된 형태의 초조대장경이 나오면서 불교 교학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교종의 주류 종단인 화엄종이나 법상종에서는 화엄과 유식 관련 문헌들을 별도로 정리, 간행하고 그것을 연찬하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또한 경론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중국 유학이 크게 줄었고 더 이상 중국의 대장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어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

한편 초조대장경의 조성과 비슷한 시기에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은 송에서 경전 외의 논소 3천여 권을 수집하여 귀국한 후 요와 일본의 문헌을 추가하고 고려에 현존하던 논소들을 망라하여 교장을 간행하였다.

교장은 경, 율, 론으로 이루어진 대장경과는 달리 경전과 율장에 대한 주석서인 논소만을 모은 것으로 대장경에 대한 해설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역대 논소만을 따로 모아 집대성한 것은 의천의 교장 간행이 최초로서 이는 당시 고려불교의 교학 이해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의천은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교장을 간행하였는데 주석서 가운데는 유식학과 관련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법상종 승려들도 다수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때 만든 교장의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 3권이 현존하는데, 여기에는 총 1,010종 4,850여 권의 책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통되던 불교 주석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교장을 집성한 의천의 저술 중에는 화엄종 문헌을 발췌한 〈원종문류〉 22권 중 3권, 고승의 비문을 모은 〈석원사림〉 250권 중 5권이 현재 전하고 있다.

재조대장경은 흔히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의 고려대장경판을 가리킨다. 세계제국으로 팽창을 거듭하던 몽골의 침입을 받아 1232년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천도하였는데, 고려의 전국토를 유린하던 몽골군에 의해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 판목이 불에 탔다. 그리하여 1237년부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발원으로 대장경 조성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문인 관료였던 이규보가 국왕을 대신해 쓴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는 초조대장경의 소실과 재조대장경의 판각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에 수장된 팔만대장경의 모습. 몽고군의 침입으로 전소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대기까지 동아시아 대장경의 표준이었던 팔만대장경은 현재 국보 32호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고려시대 초조 · 재조대장경 조성
초조는 몽고군 침입으로 전소돼
환란 극복 기원담아 재조 만들어
재조, '팔만대장경' 명칭으로 전승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불교 경전 집성 · 전파 지대한 공헌
근대기까지 다른 대장경의 표준

"고려 국왕은 태자와 문무백관 등과 함께 제불보살과 제석 및 33천의 호법영관에게 아룁니다. …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판이 남김없이 불태워졌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룬 공적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렸으니 이런 큰 보배가 없어졌는데 어찌 일이 힘들다고 다시 만드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이제 국왕과 관료들이 함께 서원을 발하여 담당 관청을 두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어찌 그때에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달단(몽골)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 원하옵건대 부처님과 여러 천신들은 이 간곡한 정성을 굽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한 힘을 빌려주어 오랑캐들을 멀리 쫓아내어 다시는 우리 국토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쟁이 그치어 나라가 편안하게 되고 국운이 만세토록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재조대장경의 조성을 담당한 대장도감의 본사는 정부가 있던 강화도에 설치되어 계획의 수립과 추진, 경비조달 등을 총괄하였고 경상도 남해에 분사가 설치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실제 판각작업이 진행되었다. 남쪽 끝에 있는 남해는 몽골군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장소였고 지리산이 멀지 않아 목재의 조달에 유리하였으며 바닷물로 목판을 적시고 말려서 단단히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무인 집권 세력인 최씨 가문의 경제적 기반이 인근의 진주에 있어서 자금조달에도 용이하였다. 무엇보다 당시 집권자 최이의 처남이자 정계의 2인자였던 하동지역 호족 출신 정안이 1241년에 남해로 내려가 판각 경비를 부담하였고, 그에 의해 대장경의 절반가량이 판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7년에 시작된 재조대장경 조성은 1248년에 판각 작업이 끝났고 1251년에는 완성을 기념하는 경축 의식이 치러졌다. 이때 만들어진 대장경은 총 1,496종, 6,568권에 달하며 경판의 수는 81,137판, 16여만 면이었다.

팔만대장경이란 명칭은 8만이 넘는 경판 수에서 나왔다는 설이 일반적이며 8만 4천 번뇌를 없애는 8만 4천 법문을 수록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재조대장경은 천자문 순서로 천함에서 동함까지 함에 보관되었고 수록된 내역은 대장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입장된 책들을 유형별로 보면 경, 율, 론이 대부분이지만 고승 전기류 등의 불교사서, 역대 대장경의 목록과 음의 등도 들어가 있다.

대장경 수록 전적의 교감과 목록 작성은 화엄종 승통이었던 수기가 주도하였는데 거의 완벽한 교정과 내용으로 유명하다. 수기의 교정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교정별록〉에서는 저본으로 삼은 송본과 요본, 고려의 초조대장경 등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상세히 교감하고 엄밀히 판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재 인쇄본 일부만 전하는 송의 개보장이나 요의 거란장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장도감에서는 대장경 조성과 함께 선, 화엄 등과 관련된 서책을 추가로 판각하였는데 〈증도가〉, 〈종경록〉, 〈조당집〉, 〈선문염송〉, 〈금강삼매경론〉, 〈법계도원통기〉 등이 보유판의 대표적인 책들이다. 이는 대장경 판각을 주도한 화엄종과 조계종 수선사 계통 승려들이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재조대장경은 조선 초인 1398년 강화도 선원사에서 서울의 지천사로 옮겼다가 현재 소장처인 해인사로 다시 이전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경판전에 봉안되었다. 재조대장경의 인쇄본은 고려 말부터 일본에 전해졌는데, 일본 측은 왜구를 단속하는 대가로 대장경 인본을 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하였다. 조선 초에는 숭유억불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대장경의 경판 자체를 일본에 보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경판은 보내지 않았지만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선린 관계를 위해 대장경의 인출본을 주었고 국내에 있던 송판이나 원판 대장경까지도 일본에 보내주었다. 고려 말의 대학자 목은 이색이 돌아가신 선친 이곡의 발원에 따라 1381년에 찍어서 여주 신륵사에 보관하고 있던 대장경 한 질을, 1414년에 태종이 일본국왕에게 보낸 것이 대장경 청구에 대한 답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조대인 1458년에는 고승 신미, 수미 등으로 하여금 대장경을 50부 인출하게 하였는데, 이 또한 일본에 대장경을 많이 보내 해인사의 판목 외에 남은 대장경이 없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일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의승장 사명 유정이 거점으로 삼았던 해인사의 대장경 판목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앞서 입수했던 재조대장경 인출본에 의거하여 1613년에 〈대장목록〉 3권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 해인 1614년부터 1624년까지 대장경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는데 현재 134부 1,126첩이 남아있으며 고려 재조대장경의 간기 형식과 판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후 1669년부터 1681년까지 명의 만력판을 번각한 황벽판대장경을 만들었는데, 내용상의 오류가 많아서 1710년에 인징이 이를 다시 재조대장경과 대교해 〈여장대교록〉 100권을 펴내기도 했다. 이는 고려대장경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로서, 근대기에도 재조대장경은 불서 집성과 간행에 있어 중요한 전거이자 바로미터가 되었다.

재조대장경은 목판 전체가 남아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장경이다. 또한 엄정한 교감을 거친 결과 내용의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 근대기 일본의 대장경 조성에서도 주요 저본이 되었던 것이다. 19세기 말 도쿄 증상사의 고려대장경을 대본으로 하여 축쇄장경이 나왔고 이후 만속장경이나 신수대장경이 만들어질 때도 저본과 대조본으로 활용되었다.

도쿄제대 인도철학과의 다카쿠스 준지로가 주도하여 1920년대에 나온 신수대장경 100권은 현재까지도 세계학계의 표준 대장경으로 쓰이고 있고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려대장경이 차지하던 왕좌를 100년 전부터 신수대장경에 뺏긴 것인데, 이 분야의 주도권을 되찾아 다시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대장경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려대장경에 대한 연구는 일본인 학자 세키노 다다시가 1902년에 해인사 대장경판을 조사, 보고한 후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그 이전에 재조대장경의 판목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가 전체가 남아있고 또 다수의 보유판도 현존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특히 이름만 전하던 경전과 불서들 중 선종 역사서인 〈조당집〉처럼 처음 실물이 확인된 것도 있어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관련 연구 중에서 오야 토쿠조의 〈고려속장조조고〉(1947)는 의천의 교장 편찬을 중심으로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통되던 불교문헌을 구체적으로 다룬 성과로 유명하다. 한편 불타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초조대장경도 일부가 전해져왔는데, 현재 일본 교토의 남선사, 대마도 역사박물관, 한국의 성암고서박물관, 호림박물관, 호암미술관 등에 〈대반야경〉을 비롯한 약 2,600여 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불교기록문화의 정수인 대장경을 조성하여, 문화국가로서의 높은 위상과 긍지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다. 이는 동아시아의 불서 유통과 불교의 사상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587-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원명 합장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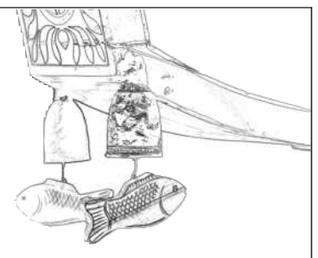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마치 어떤 이가 촛불을 들면 모든 빛깔을 보게 되는 것처럼 법을 듣고 나면 선악이 귀결되는 바를 모조리 알게 된다.

- 출요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길명상

(학인 및 수련생 모집)
- 쉽고 알차게 배우는 경전공부
- 기(氣),명상수련
(우울증,케어중심)
대구시 아양교 근교 / 팔공산 용수동
010-7200-0108
010-7199-0118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49재, 천도재, 점안식

영혼천도를 잘하는 스님
이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작법무,회심곡,살풀이)
최고의 의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10-5482-2091

인 연 명 리

명리 속성반 모집
· 영가 찾고 보는 법 /
매화역수, 속성반 모집
· 명리기초반 (모집 중)
· 명리 통변반 (현재 강의 중)
* 지금 내앞에 있는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문하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강사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대구길상사주지
- 주소 : 대구중구대봉2동 744-21
- 문의 : 삼소정서예문인화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선 원

보살이 운영합니다
1. 선 도량
2. 기도도량
(기도가 잘 이루어 집니다)
010-8992-0750
051-638-8990

건강 태극권 개인지도

남양주시 화도읍
노후 건강 관리법
치매 중풍 예방법
20년 수련
031-591-9023

미륵불 (대형)

석가모니 불상
알 림
010-4630-8005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051)553-7771. 7772

60대 불심깊은 독신자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9571-655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6260-3310

스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0-4946-666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산)
011-875-6317

비법 중의 비법을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광주시))
010-8961-549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63세이하)
010-3499-3721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부산)
010-7311-5335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916-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영천 전통사찰))
010-3623-6436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60세이상))
010-9231-6661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전문사찰
화 엄 선 원
타로 무료 수강생 모집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서울도심 포교원)
010-3618-6061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근육테스트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 균형을 바로 잡는 터치포핼스 11월 강의일정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터치포핼스는 근육테스트를 이용하여 우리 몸과 대화하여 증상중심이 아닌 그 증상을 있게 한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획기적인 대체의학요법입니다. 침이나 지압, 마사지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대체요법을 하신 분들께 진단법으로 아주 훌륭하게 접목될 수 있으며, 그 자체 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균형잡기 요법입니다. 자신과 가족, 또는 신도분들의 건강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터치포핼스〉를 쳐보시면 소개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개강연회 : 3차 - 11월 12일(목) 밤 7시30분 / 4차 - 11월 1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 지하철 명동역 3번 출구 퍼시픽호텔 우측 지하 〈면역공방 가위 바위 보〉
- 3기 터치포핼스 : 〈1〉코스:11월 21일(토), 22일(일) / 장소:상동 / 비용:30만원

010-3335-0336 김도림 배상 (문의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뭇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볼 줄 모르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른다.
- 법률삼매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1,650평
- 가액 : 10억 5천인수(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사찰
- 임야, 토지 5,000㎡
- 목조법당, 목조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산속사찰임, 조용함
- 가액 : 10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54-283-6293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대전시 중구(대사동) 충무로 74번길 54
- 보문 5거리에서 100미터, 대전역(택시) 10분거리 보문산에서 50M
- 대지 70평
- 건물 1층 35평 요사채, 2층 25평 법당
- 삼존불, 인등, 산신, 칠성, 신중 탱화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701-960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부근
- 대지 324평, 법당 34평
- 삼성각 6평(목조)
- 요사채 1, 2층 100평(목조)
- 사용할 수 있는 땅 1,2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대지:170평 ◎ 종교용지:1300평
◎ 법당:60평 ◎ 법당:50평, 요사:100평
◎ 요사:100평 ◎ 차량진입
◎ 양도:20억원 ◎ 양도:1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법인 사찰 양도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방사건물 등
* 안정된 도심지 사찰, 토지 1,200㎡
* 양도가 : 5억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송추계곡 근방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백만원
- 시설비 : 추후 결정

010-8725-3196

사 찰 안 내
60년 전통의 경기인근 충북의 사설사암 비영리단체등록 수행도량
- 서울에서 1시간거리의 조용한 복숭아 과수원의 전원마을
- 종교용지~720평 (별도 국유지100평 점유사용)
- 대웅전~ 56평의 전통 3포양식의 닷집 단청 삼성각.종 각 5층 석탑.관세음 보살 석상 다보탑.석가탑.석등.포대화상. 요사채 2동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320 (다음 지도검색 에서 로드뷰 로 확인 하시길)
- 가액: 8억 5천 만원

010-6372-8968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교원 안내
- 위치: 대전시내 2층 건물 중 2층 60평
- 아미타, 관음, 대세지, 지장 보살
-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큰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관음인등 100불, 영가인등 100위, 산신인등 50불, 호신불 72불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30만원 법당 시설물 2,500만원
- 인연닿는 스님께 조건에 맞게 절충가능

010-6278-14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900만원

010-4646-3638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290평, 대지200평, 전9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다실 4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3천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사 찰 안 내
- 유동인구 많은 안산시내 위치좋은 역세권 큰길 대로변,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4층 전체(엘리베이터, 옥상포함), 실평수 60평
- 법당, 요사채, 상담실, 주방, 욕실, 다용도 주거겸용 쾌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90만원 시설비 2,800(가격절충 가능)
- 절살림 준비 잘되어있어 바로 여법하게 법회가능
- 단골 신도 포교하기 유리한 최적지

010-5913-7239 일연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동대구역 동대구 시장부근
- 대로변, 교통요지, 철학 및 포교의 최상위치
- 평수 60평, 4층 건물의 4층
- 법당 큰방1, 친견실1, 거실, 주방 화장실2
- 시설 올수리, 난방 도시가스 사용
- 법당 집기류 에어콘 냉장고 등 가정살림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250만원

053-943-595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21억

010-9567-081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하장실 등등 건물 총 13동
- 대형버스주차장,소형차주차장 등
- 가액 : 3억 9천만원

010-4628-5699
스님 건강 문제로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천장산로 13길 82(안기부 후문)
- 내용 : 법당, 야외법당, 방4개, 주방, 옥탑방, 반지하방 등
- 동불 : 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특수 금 탱화 신중특수탱화, 불구, 비품일체, (총 150평) (즉시 개원양호)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세1년간 3백만원,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3329-1131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소불, 인등, 연등, 후불탱화
-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일부 보시함 약 40평
- 가액 : 시설비 5백만원, 절충가능 전세금 삼백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랍니다 명리, 철학 호 조건

010-4609-43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010-2384-0327

건물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 5층 건물 3,4,5층은 포교원
- 지하1층, 지상 1, 2층은 임대
- 가액 : 32억(절충)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010-8988-341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20분거리 전남곡성, 옥과IC 5㎞, 초중고,대학교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기암괴석, 사자암천혈, 안산매봉
- 조립식건물 3동, 3존불 봉안 소나무속 암자, 노천약사석불,
- 血사리봉안, 선원, 별장가함
- 가액 : 3억5천(답사후절충가)

010-8224-1688

대형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 큰법당 +큰방+종무실+총무실 방+ 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010-3487-0035

사 찰 안 내
- 위치:전북 익산시 논산 훈련소 부근 (주변 조용하고 깨끗함)
- 부지면적 총880㎡(226평)
- 지목별-종교용지:179㎡(54평)
- 대지:701㎡(212평)
- 건물별-사찰1층 69.34㎡(21평) 요사 74.9㎡(23평)
- 가액: 1억 7천만원 (5천만원 융자있음)

010-6334-02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군 소재지에서 7분거리
- 대웅전(기와단청), 요사채, 노천불
- 남향, 따뜻하고 시원한곳 작지만 아름다운 사찰
- 비구니 스님, 기도 정진하기 좋은곳
- 대지 1,455㎡
- 가액 : 2억 2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 -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3-2233

포교원안내
- 위치:수원시 정자동(대단지 아파트 앞상가
- 자원 풍부, 입지조건 최상
- 면적: 32평(3층 중 2층)시설내부(최상)
-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1억 3천5백 (대출 4천포함) 시설비, 비품 포함
- 현재 스님 운영중

010-2556-5035
070-7789-50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고성
- 약 70년된 사찰임
- 양도 및 전세

010-6758-303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 월세50만
- 시설비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대전시 중구(대사동) 충무로 74번길 54
- 보문 5거리에서 100미터, 대전역(택시) 10분거리 보문산에서 50M
- 대지 70평
- 건물 1층 35평 요사채, 2층 25평 법당
- 삼존불, 인등, 산신, 칠성, 신중 탱화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701-96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부근
- 대지 324평, 법당 34평
- 삼성각 6평(목조)
- 요사채 1, 2층 100평(목조)
- 사용할 수 있는 땅 1,2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900만원

010-4646-3638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시내 사찰 (온천동)
- 대지 694mm(210)평
- 2층 법당 132㎡(40)평, 1층 요사채132㎡(40)평
- 텃밭 165㎡(50)평, 건물 2동 공부방 2층 30평, 최고자리
- 가액 : 9억 9천 급 안내

새한길부동산중개)연제구/고중지 이재무
010-3808-4499
051-925-229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같은 3층(60평)
- 종무실 1, 방 2, 화장실 2, 욕실 1, 후원(상태 깨끗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99만원 (관리비 없음) 시설비 3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2)993-0399
010-5205-0118

큰사찰 및 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경치 좋은곳
- 1만평 33,000제곱미터 평당 10만원
- 1만평 개인분할 등기 진행중
- 답사 후 결정 주인 직접
- 현재 사찰 운영 중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조립식건물
- 주차장 넓음
- 양산시내 및 고속도로 지하철 25분거리 부산, 울산, 김해 1시간거리

010-3879-2544

토굴겸 임법당
- 위치 : 경북 김천 단독주택
- 건물 22평, 대지 129평
- 정남향 실제 30평 이상됨
- 방 3개, 주방 1, 욕실 1
- 임법당, 삼존불, 탱화,관음소불 100불
- 마당주차 4대가능, 텃밭조금, 가전집기 일체양도
- 정말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5,500만원, 가격조절 가능

010-4323-3579
본사 소임관계로 급 안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북삼읍
- 3층 건물 3층
- 약사여래불, 소불 60불
- 주차 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9203-3368

농가주택(토굴)
-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 건물 2동
- 가액 : 4천 5백만원
- 문중땅이며 건물만
- 건물 등기 있음

010-9849-7727
덕산 합장

암자 겸 토굴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 대지 134평, 법당목조 25평
- 요사채 한옥 16평, 방5개 마당까지 자동차 진입
- 수도, 보일러 있음
- 가액 : 4,500만원

010-8836-822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군 유곡면
- 사찰 800평, 요사채 50평
- 창고 9평, 법당 20평, 삼신각 7평
- 경관 좋음, 남향, 넓은 주차장
- 가액 : 2억 4천 5백만원

055)583-9635
010-8676-96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대창면
- 사찰 200 평, 임법당 1동 황토방 1동
- 가액 : 7천 5백만원

010-3595-9856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 평수: 약 70평(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65만원
- 시설비 1,500-4,500만원
- 급 양도 : 스님 불사 이전 관계

010-4095-57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2-297-3379
010-4576-22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득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내
- 평수: 총대지 62평..대웅전 및 법당, 산신각, 약사전, 용왕당
- 위치 좋은 아담한 사찰로써 넓은 주차장 확보
- 스님 포교활동으로 적합함
- 가액: 1억 5천만원

010-2845-28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군위군 읍 하곡리
- 대지 1,000평, 건평 1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삼성각,공양간) 총120평
- 천하명당자리
- 가액 5억 7천만원

010-4519-0363
010-8181-061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군 고경면 파개리
- 인법당 33평 요사채 10평
- 대지 200평
- 경주, 포항 15분거리
- 가액 : 1억 6천만원 (스님 환영)

010-3528-84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밭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35평 삼신각 6평
- 고래불, 대진해수욕장 사찰에서 10분 이내
- 상주고속도로 12월개통예정
- 가액 : 2억 8천만원 (새마을금고 3천 5백)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전통사찰
- 작은 자본으로 큰 사찰 운영하실 분
- 4,300평
- 가액 : 합 25억, 계약금 5억
- 잔금은 융자처리 가능

010-3288-1317

사마타와 위빠사나

〈2〉 선정수행 ㊦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죽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무색계 선정 수행의 단계

무색계 선정에는 4가지가 있다. 바로 공무변처(空無邊處), 식무변처(識無邊處), 무소유처(無所有處),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다. 무색계 선정의 시작인 공무변처는 까시나 사선정에서 나와서 물질에 대한 숙고로부터 시작한다. 무색계 선정은 선정의 성격상 사선정에 해당한다. 사선정의 선정 요소가 평온과 집중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듯이 무색계 선정도 모두 평온과 집중으로 이루어진 선정이다.

공무변처에 들려면 아나빠나사띠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경험한 후 9가지 까시나 중 하나를 닦아야 한다. 무색계 수행에서는 물질을 초월해서 물질이 없는 무색계로 들어가는데 허공 까시나는 물질이 아니라서 초월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아나빠나사띠로 선정을 경험한 후 허공 까시나를 제외한 나머지 까시나를 통해 선정을 닦는다. 물질이 없는 텅 빈 하늘에 있는 느낌이었다. 눈앞에 광대하고 청정한 세계가 펼쳐졌다. 공무변처 선정은 평온과 집중 두 요소로 되어 있다.

식무변처로 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숙고한다. ‘공무변처는 사선정에 가깝다. 더 고요한 식무변처로 들어가 머물겠다.’ 그러고는 공무변처를 알고 식(識, 마음)에 집중한다. 식을 명상 대상으로 한다. 식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에 들어간다. 식무변처 수행을 하려면 궁극 실재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공무변처의 선정 요소를 점검할 때 평온 및 집중과 함께 있는 마음을 보고 그것에 집중한다. 식무변처는 공무변처보다 더 고요하고 수승하다. 식무변처에 들면 공무변처를 아는 마음만 존재하는 느낌이 든다. 마치 내가 식무변처에 있는 존재가 된 느낌이다.

식무변처에서 나와 무소유처로 들어가기 위해 식무변처의 결점을 보고 무소유처의 수승한 점을 본다. 무소유처에서는 공무변처도, 공무변처의 마음도 없어 더 고요하고 수승하다. 없다는 것에 마음을 집중한다. 우리는 언제나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지만, 무소유처에서는 진정 없는 것에 마음을 집중한다.

무소유처에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무소유처와 달리 비상비비상처에서는 정신 작용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모든 마음부수와 마음(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 정신 작용이 아주 미세해진 상태다. 그런 만큼 아주 고요하고 수승하다. 비상비비상처의 대상도 식무변처의 대상처럼 개념이 아니라 실재다. 비상비비상처에서도 마찬가지로 5자재를 닦는다.

불교 경전에서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고 말한다. 무색계 선정 수행을 통해 물질이 없는 세계를 경험했다. 그 덕분에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물질이 우리에게 준 영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물질을 벗어난 세계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색계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무색계 선정 상태고, 다른 하나는 무색계 존재가 경험하는 세계다. 무색계 선정 경험은 천상 세계나 천상 세계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천상 세계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불교의 세계관은 우리 육안이나 과학으로 증명된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색계 선정 후에 수행하는 ‘4가지 거룩한 마음’ 수행 때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4가지 거룩한 마음 수행

무색계 선정을 경험한 후 ‘4가지 거룩한 마음’(4범주, 4무량심) 수행을 통한 선정 경험을 한다. 4범주는 우리에게 4무량심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범천이 가지는 마음 또는 범천으로 태어나게 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4범주라고 하며,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을 말한다. 이전까지의 선정 수행이 나 자신의 번뇌를 다스리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어간 선정인 데 반해, 4범주 수행에서는 다른 존재를 대하는 마음을 통하여 선정을 경험한다는 점 역시 특별하다. 그래서인지 4범주 수행 중 자애 수행은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정신치료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나 역시 자애 수행을 분노가 강한 환자에게 써서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다. 4범주 수행은 처음에는 네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바로 나,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다.

자애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익힌 아나빠나사띠, 까시나, 무색계 수행을 통해 선정에 들어간다. 까시나는 허공을 뺀 9개 까시나를 돌아가면서 수행한다. 먼저 나에게 자애를 보낸다. ‘내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이미 선정을 닦은 뒤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도 행복하고 웃는 얼굴로 된다.

존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애 수행은 지도하는 스님이어도 되고 평소 존경하는 사람이어도 된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다만 죽은 사람은 안 된다. 죽은 사람은 자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도 자애 수행이 안정된 궤도에 올라 자애를 보내는 여러 대상에 대해 균형 있는 마음을 갖출 때까지는 제외된다. 어떤 이성이라도 감각적 욕망과 번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사람을 떠올리며 4가지 문구를 이용해 수행을 한다. 중립적인 사람이란 대개 얼굴만 아는 사람이거나 잘 알긴 하지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얼굴은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자애 수행을 하기 전에는 중립적인 사람이었지만 자애 수행을 하면 더 이상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다. 내가 행복을 빌어주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

마지막으로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애 수행을 한다.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다섯 사람 정도를 떠올리며 수행을 한다. 과거에 미워하던 사람이어도 되고, 미워하지 않으나 약간의 앙금이 있는 사람이어도 된다. 한 사람에 대한 자애 수행이 끝나면 나머지 다른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애 수행을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 4가지 문구로 자애를 닦아 그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한 자애가 똑같아지면 자애의 마음이 균형을 이룬 것이다. 네 부류 중 어떤 한 사람에게 더 자애가 가지 않고 네 부류의 사람을 향한 장애가 똑같아진 이 상태를 우실라 스님은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표현했다.

불교 세계관, 무색계도 포함
증명된 세계에 국한되지 않아
4무량심 통해 ‘선정’ 경험
‘나’ 벗어나 넓은 마음 갖게 돼

연민수행 역시 네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문구는 하나다. ‘이 존재가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내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하고 바란다. 이를 통해 나에 대해 어느 정도 연민하는 마음이 되면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으로 넘어간다. 나에 대해서는 갈애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연민으로 인한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 연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민을 보내는 사람이 가진 고통을 알아야 한다. 고통 없는 사람은 없다. 주위 상황이 아무리 좋게 돌아가도 몸과 마음에 조금의 불편한 점은 있다. 그러니 곰곰 살펴보면 연민을 보내는 대상의 고통을 찾을 수 있다.

함께 기뻐함 수행도 연민 수행처럼 문구가 한 가지다. ‘이 존재가 얻은 것을 잃지 않기를.’ 이 문구로 네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함께 기뻐함 수행을 한다. 함께 기뻐함 수행을 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봐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것을 잃지 않기를 바랄 수 있다. 함께 기뻐함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한다. 잘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자신을 질책한다. 자애 수행, 연민 수행, 함께 기뻐함 수행을 통해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을 가득 채운다. 그렇게 되면 나만을 아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좁은 마음에서 남과 같이하는 넓은 마음으로 바뀐다.

4보호 명상의 네 가지 방법

4보호 명상을 하면 수행자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위빠사나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명상을 한다. 4보호 명상에는 네 종류가 있다. 자애 수행(4범주 수행 가운데 하나),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함, 깨끗하지 못함 명상,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이다. 자애 수행은 4범주 수행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함부터 살펴보겠다.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함 수행도 아나빠나사띠, 까시나, 무색계 선정 후에 한다. 비상비비상처에서 나와 선정 요소를 확인한 후에 붓다가 가진 덕성을 계속해서 떠올린다. 붓다의 덕성은 우리에게 여래 10호로 알려진 붓다의 칭호 속에 있다. 아라한(응공應供), 바르게 깨달으신 분(정등각正等覺), 영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명행족明行足), 피안으로 잘 가신 분(선서善逝), 세상을 잘 아시는 분(세간해世間解), 가장 높으신 분(무상사無上士),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조어장부調御丈夫), 신과 인간의 스승(천인사天人師), 붓다(불佛), 세존(世尊)이다. 이들 10가지 중 하나를 떠올리면 된다. 이 명상으로는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접삼매에 들어간다. “부처님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혹은 갖가지 부처님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삼매에 이르지 못하고 근접에만 이른다.

깨끗하지 못함 명상도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함’ 수행과 같이 아나빠나사띠, 까시나, 무색계 선정을 먼저 닦은 후 비상비비상처에서 나와 선정 요소를 점검한 후에 한다. 깨끗하지 못함 명상의 대상은 살아오면서 직접 봤던 죽은 사람이다. 단 이성의 죽은 모습으로는, 설사 그 대상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더라도 하지 않는다. 시체는 보통 혐오의 대상이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함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집중하면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상이 고정되면서 빛이 나고 편안해 보인다. 전혀 혐오스럽지 않고 고요히 영면한 것처럼 보이며 보기 좋은 대상이 된다. 이 명상으로는 초선정에만 들 수 있다. 깨끗하지 못함 명상을 하면, 존재라면 본능적으로 꺼리는 죽음과 죽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어, 죽은 몸을 남기게 된다. 그것을 더럽게 볼 이유가 없다. 명상은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을 버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다.

다른 보호 명상과 같이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도 아나빠나사띠, 까시나, 무색계 선정을 한 후에 한다. 비상비비상처에서 나와 선정 요소를 확인한 후에 다음과 같이 숙고한다.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러면 지혜의 눈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서 점점 임종 때로 이동한다. 시간이 가면서 내가 늙는 모습이 보이고, 나중에는 내가 죽은 모습이 보인다. 임종 시의 상황이 보이고 그때 내 나이도 알 수 있다. 내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머릿속이 아닌 존재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게끔 했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삼매에서 본 것은 마음에 생생히 남아 작용한다. 수행을 하면서 삼매 상태에서 경험한 것은 언제나 생생히 떠오르고 마음에 작용한다.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느냐다. 그리고 죽음은 또 다른 출발이다. 그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법 명 : 진여심(조재순)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꽃넘어길 87-49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영남 범음. 범패 제5기 학인모집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실용의식 : 천도재 및 49재의식, 실전강의, 각 사물 등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개강일시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2층)
◆문 의 처 : 010-5065-5690

근 화 학 당

◆역학교실 : ① 교양반 ② 전문반
◆강 사 : 추송 ◆수강료 : 월 10만원
◆문 의 처 : 010-8948-7948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7시까지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역학을 집중 지도함

영남범음 범패원장 제 봉
근화학당 역학원장 추 송 합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 易學강좌

논리로 푸는 사주학 과학역학 ‘석하명리’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음양오행과 사주학의 모든 이론에 대한 원리를 밝히는 과학역학 ‘석하명리’
성공과 실패의 10주년 패턴 ‘석하리듬’

구 분	요 일	시 간	개 강
초급(주간)	매주 (火)	15:00 ~ 17: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 (火)	19:00 ~ 21: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 (水)	19:00 ~ 21:00	10월 21일
중급(주간)	매주 (木)	10:00 ~ 12:00	10월 22일

■ 기간 14주 과정 / 수강료 20만원
■ 교 수 진 : 석하 소재학 박사, 석원 박성희 박사, 심원 남상용 교수, 교원 설운스님, 강세명 교수
■ 강의장소 : 선정릉역 2번출구(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 자격증 과정 겸비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명리진로적성 상담사/현대명리교육 상담사
■ 하원정미래학회 석하명리 동문자격(서울 29기)

· 성격특성, 진로적성, 성공과 실패의 시기 분석

서울벤처대학원 FCA
• 문의 : ☎ 02)3443-498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친구를 위해 지켜야할 일



나는 친구를 속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겠어요

I will not trick my friends or be mean to them.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경기를 할 때 심판의 눈을 속여서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는 행동입니다.

특히 선수들의 몸이 자주 부딪치는 운동경기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심판의 눈을 피해 툭하면 넘어지고, 날아가고, 다쳐서 아픈 척을 합니다. 마치 할리우드 배우들이 연기를 하듯, 선수들이 연기를 한다고 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러나 할리우드 액션은 연기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심판과 팬과 상대편 선수를 속이는 일입니다. 할리우드 액션 때문에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졌다면 화가 날 일입니다. 할리우드 액션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심판에게까지 화를 퍼붓는 열성팬도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불쾌한 일입니다. 운동경기에서도 그러한데 만약 아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했다면, 그로 인해 손해라도 입게 된다면 어떨까요?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속임수는 이렇듯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속임수를 쓰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친구에게 속임을 당했거나 속임수를 써 본 일이 있나요? 기분이 어땠나요?
*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멋진 친구가 되겠어요

I will be there for my friends when they need my help.

파리 남쪽에 있는 바르비종은 숲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조용하고 풍경이 아름다워서 이곳을 무대로 활동하는 화가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바르비종에서 활동하며 풍경과 농민의 생활을 그린 화가들을 '바르비종파'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밀레(Millet, 1814~1875년)가 바르비종파의 대표적 화가입니다. 밀레는 「만종」, 「이삭줍기」 등의 명작을 남겼지만 당시에는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사는 귀족들이 밀레의 농부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밀레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을 때 친구이자 동료 화가인 테오도르 루소(Theodore Rouss, 1812~1867년)가 나섰습니다. 루소는 밀레의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한동안 밀레는 생활고에서 벗어나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밀레의 그림도 조금씩 알려졌고 가난에서 점차 벗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레는 루소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사갔다던 자기의 그림이 루소의 집 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소는 밀레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내세워서 그림을 샀던 것입니다. 루소의 배려와 멋진 우정은 밀레가 세계적인 화가가 되는 데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 여러분이 밀레라면 루소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도와준 친구가 있나요?
* 친구 때문에 감동한 적은 언제인가요?





친구의 좋은 점을 배우겠어요

I will learn from my friends good characteristics.

연암 박지원(1737~1805년)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며 훌륭한 글을 많이 남긴 문학가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학문이 높았지만 벼슬에 나갈 생각은 않고 친구들과 책 읽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연암이 경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에는 친구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인연이야. 우리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 만났고, 같은 민족이라 한 마을에 살고, 책을 읽는 선비로 만났으니 큰 인연이지. 그러나 주고받는 대화가 떳떳하지 못하고 답답하면 차라리 옛날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과 친구를 하는 게 낫겠네."

연암은 진정한 친구는 마음이 잘 맞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연암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낮지만 본받을 게 많은 사람들과 사귀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이덕무, 과학 지식이 뛰어난 홍대용, 무술 실력이 뛰어난 백동수 같은 사람이 모두 연암의 친구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저 만나서 시간이나 보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 배울 게 많은 친구를 사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여러분은 친구의 어떤 점을 배우고 싶은가요?
*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떻게 비칠지 말해 보아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랑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탁악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겐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잇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란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것이다.

괴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불자 세상보기

유기 동물과 일그러진 애완 문화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최근 길고양이를 돌보던 분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져진 벽돌에 의해 사망하고 다친 사건이 보도되고, 잠시나마 길고양이를 돕는 분(캣맘)들과 이를 싫어하는 주민들 간의 다툼으로 오인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길고양이를 포함해 주인 없는 반려동물이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들어 결코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반려동물 중에서 개보다 사람과의 사회성이 떨어지는 고양이는 한번 사람 곁을 떠나 길고양이가 된 후에는 다시 사람 품으로 돌아오기 힘들어 입양도 그리 쉽지 않아 대부분의 길고양이들은 먹이를 찾기 쉬운 사람 주거 환경 내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는다.

사람의 생활공간 속에 야생화된 유기동물들이 만들어 내는 소음, 냄새 및 지저분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도 결코 적지 않다. 적절한 대책이 없는 한 일부 주민들처럼 야생화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버려진 고양이들이 도시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은 외국 대도시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다양한 대책이 시도되고 있다. 다행히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수만 마리 길고양이에 대한 뉴욕의 길고양이 대책에서 볼 수 있다.

두 단계 대책으로 이뤄진 뉴욕 대책은 우선 첫 단계로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불임수술을 한 후 다시 놓아주고, 다음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원 돌보미(국내의 캣맘)들이 길고양이의 특정 군집 단위를 맡아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중성화된 특정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관리하는 캣맘들이 다른 길고양이들이 해당 군집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길고양리 군집이 자연스레 축소되고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이다.

서울시에서도 주민의 민원 증가와 더불어 주민과 캣맘 간의 갈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물 복지와 더불어 버려진 반려동물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 간의 조화로운 공존 방식을 찾고자 동물복지과를 신설해 캣맘 인증제를 포함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더불어 조직화된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물에 대한 낮은 인식이 있는 우리사회에서 과연 생명존중을 말하는 불자들의 역할과 기여는 없을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길고양이 누가 유기했나
생명 상품화하는 세태가 문제
생명 존중의 문화 만들어 가야

국내의 많은 유기동물은 대부분 주인이 버린 경우로써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고 단지 필요하면 얻고 귀찮으면 버리는 것이라는 식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유기동물의 증가 상황에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단지 공산품이나 물건으로 바라보는 폭력적이자 무지한, 너무도 비불교적인 인식이 있다.

그러나 불가에서 생명 존중은 단지 산다, 죽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평안과 안위를 의미한다. 생명체는 누구나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지니고 있기에 같은 생명체로서 이에 연민이 마음을 지니며, 또한 모든 생명체는 우주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만의 삶을 지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 버려진 반려동물과 주민간의 문제는 단지 도시 내 유기동물과 주민간의 갈등을 넘어 버려진 동물을 보살피려는 이들과 주민이라는 사람 간의 분쟁 모습으로 계속 심각함을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신자로서 불살생이라는 생명 존중 가르침은 생명체의 생사를 넘어 모든 생명체의 안위라는 점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을 줄이고, 또 이미 버려진 생명체를 돌보면서도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민의 마음마저 살필 수 있는 문화와 사회 체제 만드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실현시키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상황 인식은 개인 불자를 넘어 종단 차원에서의 대사회적 대책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발언대

사찰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10월이면 전국 산사에서는 일제히 가을 축제가 열린다. 어느 순간부터 사찰 문화 축제는 불교 문화계 트렌드가 됐다. 사찰 문화 축제는 지역민과 소통하고 불교를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비슷한 포맷에 문화 축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사찰 문화 축제 활성화 방안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편집자주〉

"사찰마다 색깔있는 콘텐츠 개발하자"



진명 스님
조계종 前 문화부장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이 오면 산사는 오색단풍으로 물든다. 이 시기에 맞춰 전국 산사에서는 가을 축제를 연다. 가을 산사 축제는 어느 순간부터 불교 문화계 트렌드가 됐다. 이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불교 문화를 알리는 포교 수단이 됐다. 긍정적 효과가 많으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적지 않다.

먼저, 목적 의식의 부재다. 도반의 사찰, 이웃 사찰에서 문화 축제를 하니 우리도 한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찰의 문화 축제는 음악회와 체험행사 등이 주를 이룬다. 당해 사찰만의 특색을 찾아보기 힘들고 천편일률적이다.

또한 사찰 축제가 규모만 커지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사찰 축제 빠지지 않는 음악회의 경우 사람을 모으기 위해 무리하게 대형급 가수들을 부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사찰이 아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규모만 큰 문화행사가 되어 버린다.

사찰의 문화 축제는 기본적으로 불교적 심상이 담겨 있으면서 당해 사찰의 특성이 드러나야 한다. 이를 통해서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사찰 문화 축제는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축제 계획한다면 우선적으로 당해 사찰만이 가지는 색깔있는 콘텐츠 개발을 주문하고 싶다.

한 가지 모범 사례를 들자면 강원도 홍천의 백락사다. 백락사는 매년 '강원환경설치미술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백락사의 환경설치미술대전은 자연과 미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격조 높은 문화 행사이다.

사찰 문화 축제는 이제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할 때이다. 특색있고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 축제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회향해야 한다.

비슷비슷한 산사음악회 이제 그만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대표

산사음악회가 상업적이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 많은 사찰들이 어려운 와중에도 포교의 일환으로 산사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다. 즉,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상업적으로는 볼 수 없다.

문제는 일반적인 다른 축제와 차별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이축제'와 산사음악회의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산사음악회 개최가 늘어났다. 도심지의 사찰과 산중의 사찰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도심 사찰의 경우 주변에 많은 문화공연의 기회가 있기에 불교적 색채를 강하게 띤 음악회를 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산중의 사찰 또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지역민들이 산사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기회가 되기에 사찰만이 지닌 특색이 있는 문화행사로 진행해야 함에도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 이면을 보면 불자 연예인이나 가수들을 폭넓게 활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은 사찰의 경우 주지 스님이 행사진행을 도맡아 하거나 종무소 직원들이 하는 상황이다. 기획력이 부족하기에 '내가 아는 A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부르면 되지 않을까' 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차별성이 없어 찾는 이들이 줄어들다 보니 유명연예인 초빙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방 사찰은 재정의 한계가 있다보니 결국 산사음악회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산사음악회는 활황기인 2000년대 초보다 대폭 줄어든 상태다.

산사음악회는 산사만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자리로 지역주민들이 산사에 모여 불교문화를 향유하는 자리이기에 현재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불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불교문화를 알리는 방향으로 바꿔가야 한다.

社說

새 신행문화 만든 108산사 순례기도회

꼬박 9년이 걸렸다. 첫 순례 때 40대인 사람은 이제 50대가 됐고, 50대는 60대가 됐다.

선묵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 순례회의 시작은 2006년 9월이었다. 전국 사찰 108개를 순례하자고 통도사서 결의했다. 순례객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120대의 버스가 고속도로서 줄지어 달렸다. 순례 도중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며느리나 딸이 순례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도 있었다. 어느 80세 노보살은 순례를 다니다가 다리가 아파 버스를 탈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아들이 직접 차를 몰며 어머니를 태우고 6년간 이 순례에 동참했다. 순례객들 중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도 더러 있었다. 이처럼 사연도 각양각색이었다.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사찰순례문화가 발달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큰 공헌을 했다. 순례회가 움직이면 모두가 기록이었다. 연인원 약 54만 명이 동참해 지구를 204바퀴나 돌았고 여기에는 1만 2천여대의 버스가 동원됐다.

또한 순례 사찰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쌀을 보시해 총 3천여 가마의 쌀을 공양했고, 군 장병에게 415만개의 초코파이를 보시했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분명 한국 불교의 올바른 신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런 여세를 몰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기도도량 53곳을 순례하는 '선묵혜자 스님과 믿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 순례'에 나선다. 혜자 스님 말처럼 108산사 순례가 고행의 길이었다면 53기도도량 순례는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여정이 되길 바란다.

불교계, 통일 불사에 나서자

눈물의 2박 3일 간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10월 22일 마무리됐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임을 상기하는 순간이었다.

민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조계종이 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으로 신계사에서 법회를 개최했다. 천태종도 오는 11월 개성에서 법회를 예정하고 있다. 북한 불교와의 민간 교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면면히 이어져왔다. 그만큼 성과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노력들은 통일로 가기 위한 여정의 단편들이다.

하지만 불교계 통일 불사의 관심 사각 지대에 있는 것은 바로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이다. 특히 어려서 탈북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깊이 요구된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새터민 2만 800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그중에서 청소년은 2000명에 달한다. 그들은 한부모, 고아, 중국인 부모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다.

탈북청소년은 북한탈출과 중국 체류 과정에 심한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 혼자 탈출하면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던 교육과정을 인정받지 못해 허탈감을 느끼는 이도 있다고 한다.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도 탈락률은 4.7%로 전체 학생 2%보다 현저히 높은 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3년에 창립된 불교계 새터민 지원단체 '통일바라밀숲'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통일바라밀숲'은 현재 33명의 새터민 대학생들에게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교육 ·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새터민 포교는 통일 한국을 이끄는 중요한 불사이다. 불교는 새터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불교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 이제는 종단 차원에서도 새터민 포교에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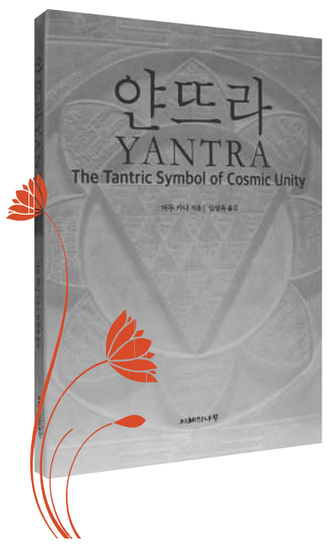
마음의 정원
{ 랄랄라 진관사 }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빵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밥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붓다〉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는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얀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 얀뜨라
얀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얀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으로 얀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뜨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뜨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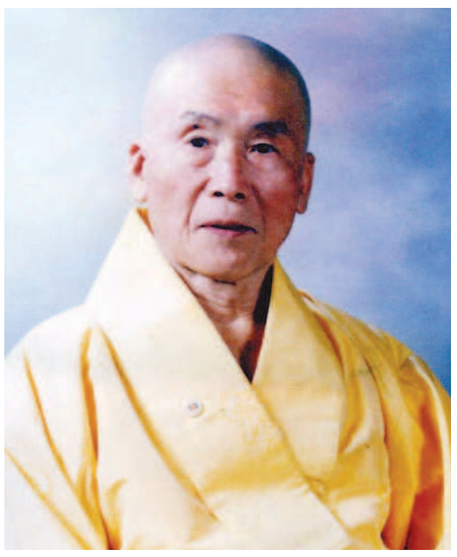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 중 20,000원 /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제44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 대법회 및 제20대 회장단 이취임식 대법회

– 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성황리에 열려 –





(사)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만주)는 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홀 대강당에서 **'제44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 대법회 및 제20대 회장단 이취임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이하 문도중앙회)는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스님을 초대 법왕으로 모시고 초대법왕을 기리기 위한 문도회로 이날 행사를 주최 주관하게 된 것이다.



세계법왕 의륜 대승정 法語

佛法有傳 一平生 (불법유전 일평생)
한평생 불법을 전하고 전하며
傳法一鵬 滿衆生 (전법일붕 만중생)
만 중생에 일붕이 있었다네
聖人本來 大衆心 (성인본래 대중심)
중생 마음이 본래 성인의 마음이라
諸法滿有 覺虛妄 (제법만유 각허망)
만 가지 모든 법이 허망한 것을 알아
一切衆生 願解脫 (일체중생 원해탈)
모든 중생 해탈의 도 얻으리
今日佛前 滿衆生 (금일불전 만중생)
오늘 이 자리에 대중들이 모여
佛法有傳 一心願 (불법유전 일심원)
부처님 가르침이 유전되기를 한마음으로 원하나니
時委大衆 願正覺 (시위대중 원정각)
이 자리 모든 대중이 원하는 바 바른법 이뤄
貪慾 一時滅 (투도탐욕 일시멸)
탐욕과 다툼으로부터 멀어지고
無常正覺 必成就 (무상정각 필성취)
부처님의 바른 법 반드시 성취하여지리다

일붕문도의 날 봉축 및 20대 회장 만주 스님 취임

이날 행사에는 세계불교법왕 의륜 대승정, 문도중앙회 이사장 겸 회장 만주스님, 문도중앙회 명예회장 용담스님,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대원스님, 민족불교광덕종 종정 조연스님, (재)진각미란다 이사장 이용도, 문도중앙회 상임부회장 청파스님, 대한불교법왕청종 종정 청호스님,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용주스님, 대한불교조계종민족중흥회 만공스님, 연합불교방송 총재 향덕스님, 대한불교영축조계종 총무원장 향산스님, 대한불교법흥종 총무원장 무학스님, 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문도중앙회 이사 법천스님, (사)한국불교태조종 김홍근 창종주, 세계불교조계종 불광사 현성스님, 미륵사 주지 다정스님, 세계불교수덕선원 보현 원장, 세계평화사랑연맹 한한국 이사장, 문도중앙회 신도회장 지향숙 보살 등 문도중앙회 회원 500여명이 동참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1부 불국토의 향연에서는 예봉국악단과 축하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되어 법회의 문을 열고 2부 본 행사는 중앙문도회 이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법천스님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례, 국민의례, 반야심경, 내빈소개, 발원문, 일붕존자행장보고, 대회사, 취임사, 청법가와 법어, 격려사, 축사, 결의문낭독, 만세삼창, 사홍서원, 폐회선원,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미륵사 다정스님의 발원문에 이어 문도중앙회 이사 겸 대변인 법천스님은 경과보고에서 "일붕존자님의 빛나는 행장은 익히 알고 있는 바 오늘 일붕존자님의 큰 뜻을 기리는 대법회에 전국 원근각지에서 수희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대원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신임회장 만주스님과 회장단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대법회를 계기로 문도들이 다시 뭉치고 화합하면서 우리 문도중앙회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불교법왕청도 더욱더 중흥시켜 세계불교사에 영원히 기록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가진 이,취임식 행사에서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한 만주 스님은 취임사(우측 내용 참조)를 통해 "일붕존자님의 뜻을 받들어 문도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불교법왕 대승정 의륜스님은 법어(위 전문)를 내리고 '일붕존자님의 유훈을 받들기 위해 전 문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화합과 희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승정 의륜스님의 법어(좌측 전문)에 이어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각계 내빈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졌으며 기념촬영을 마지막으로 성대히 대법회를 마무리하고 3부 연수원 식당에서 합동 공양이 이어졌다.











20대 회장 만주스님 就任辭

"20대 회장직을 맡아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일붕존자의 법맥을 이어받은 각 종단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하나된 단일교단으로 불교중흥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또한 본회를 창회하신 의륜 존자님의 뜻을 잘 받들어 본회가 한국불교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각오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각 종단의 대덕큰스님과 문도스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일붕존자님의 향훈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과 기념문집 발간 등 차근차근 이뤄낼 것입니다. 또한 (사)한국불교태조종 창종주 김홍근님께서 문도회관 건립을 위해 2천평의 부지를 기증해 주신데 대하여 문도중앙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에서 정리)

격려사

민족불교광덕종 종정 조연스님

한국불교의 혁신운동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 문도들은 다 함께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자타불이 사상을 실천하여 너와 내가 구별되는 개념을 벗어나 하나의 운명체며 공동체라는 혼연일체의 사상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문도중앙회 회장단은 외형이 아닌 내실에 가치를 두어 자비나눔을 실천하여 중생의 빛이 되는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로 거듭나자.

축 사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용주스님

오래 전부터 의륜스님께서 종파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 지도자 양성과 중소종단의 위상제고를 위해 매년 대법회를 문도라는 인연의 끈으로 묶어 봉행하도록 해오신 큰 뜻에 찬사를 드리며 종단 종파를 초월하여 하나의 구심점으로 기틀을 잡으신 용담스님과 전임 회장단에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책임을 맡으신 만주스님 이하 회장단에 무궁한 발전과 성과가 있기를 발원한다.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상임부회장 청파스님

오늘 뜻깊은 대법회를 통해 우리 문도중앙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세상이 더욱 평화롭기를 바라는 여법한 법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제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공덕만 두루 하도록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바란다. 우리 문중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선 서로 다른 주장과 방법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원융회통의 전통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가자.

(사)대한불교법왕청종 종정 청호스님

일붕존자님의 유훈을 성실히 받들기 위해서는 일붕문도들이 일치단결하여 육화의 참마음으로 화합종단, 화합문도의 참모습을 갖춰야 하며 바로 오늘이 그런 법석인 것이다. 불교계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의 징후가 일어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사부대중에게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형제 모두 청정한 자비희사의 수행종풍을 구현하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연합불교방송 총재 향덕스님

우리라는 인식이 절실한 지금, 불심도문으로 전체를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교의 중흥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시대와 사회가 변해도 부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삶의 최고의 가치인 승가 공동체는 우리 현실의 귀의처이며 중생을 구원할 원력을 가진 가르침으로 부처님 세계에 도달하는 최선의 공동체임을 믿어 의심치 말자.

대한불교영축산조계종 총무원장 향산스님

부처님의 진리는 현실과 미래가 공존하는 것. 땅위에서 살아있는 현실의 세계도 있고,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미래의 세상이기도 하다. 오늘 새로이 출범하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부처님의 삶으로 인도하고, 문도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횃불이 세계만방에 밝은 빛이 되리라 굳게 믿으며 신임회장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재)진각미란다 이사장 이용도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만주스님께 축하인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문도중앙회가 더욱더 화합 단결하여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하며 불교계 민영교도소를 보은지역에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중이며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불교계 종교지도자님들의 각별한 질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사)대한불교법흥종 총무원장 무학스님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음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분쟁은 그 모두가 신뢰하고 의지할 가치관의 상실에서 오는 것으로 종교과 종파를 초월하여 중생들을 위한 중생의 종교로서 역할을 다할 때 자비와 이해화 화합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오늘 불법의 진리를 가슴 뭉클하게 맞을 수 있는 뜻깊은 대법회에 감사드린다.

이날 행사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1일 오전 9시와 12일 낮 12시, 13일 오후 7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 행사 사진

























출판
한국불교 출판 70년

한 권의 佛書는 한 명의 法師…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는 매년 공동으로 불교출판문화 활성화에 앞장서는 출판사를 선정, 올해의 불서 10을 포상한다. 사진은 2014년 행사모습


한 여성이 일반대형서점의 불서코너에서 불서 읽기에 몰두하고 있다.



제6회 불교출판문화상서 올해의 불서10에 선정된 출판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IT시대에 종이책은 사양길에 접어 들고 있다. 그래서 출판 포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불교출판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해 대략 462종의 신간을 선보였다. 전체 405종을 발간했던 2013년에 비해 15% 가까이 더 늘어난 수치다. 출판인들이 일부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이토록 불서 발간을 이어가는 이유는 자명하다. 문서포교를 통한 불교영역의 확대라는 사명감 때문이다. 불서에는 부처님 가르침은 물론, 삶의 지혜가 오롯이 들어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등극되면 많은이들에게 포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불교출판계를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해방 이후 한동안 침체기서 벗어나지 못한 불서 출판은 1960년대 초 법보원(法寶院)이 출범하면서 명맥을 이었다. 불교경전 한글화와 대중화에 깊은 관심을 갖던 석주 스님이 주도해서 만든 법보원은 1961년 설립된 이래 최초의 〈불교사전〉을 간행한데 이어 〈열반경〉 〈법화경〉 〈육조단경〉 등을 한글본으로 간행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대승기신론필삭기(196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1962)〉 〈고려국보조선사어록(1963)〉 등 1972년까지 30여종의 불서를 간행했다. 또한 법보원이 왕성하게 출판활동을 하면서 1960년대 후반 들어 원음각(1966), 보련각(1968), 불서보급사(1968), 홍법원(1968) 등의 출판사가 문을 열었다. 1960년대 후반 설립된 이들 출판사는 1970년대 후반까지 출판활동을 주도하면서 특정계층이 아닌 보다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불교출판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음각은 당시 불교계 안팎서 크게 화제를 모았던 이기영의 〈원효사상〉, 서경수의 〈세속의 길 열반의 길〉 등을 펴내면서 주목 받았고, 보련각은 경전과 강원교재의 영인본 출간에 매진했다. 또한 홍법원도 〈불교교리문답〉 〈고승법어집〉 등을 출간하면서 불서출판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1980년 전후 전문화된 불교출판사가 생겨났다. 1979년 월간잡지 〈불광〉을 간행하면서 부설로 설립한 불광출판부를 시작으로 1980년 문을 연 민족사와 경서원이 그것이다.

불광출판부는 광덕 스님의 저서는 물론 〈바라밀총서〉를 비롯해 신행과 선 관련 단행본을 내놓으며 전문화된 출판 모습을 보였고, 경서원은 영세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학술관련 불서 발간에 주력했다. 그리고 민족사는 1980년대에 외국불서 번역 출판의 장을 열었다. 그리고 여기서 축적한 해외 도서정보를 활용해 번역 출판의 길을 열었고,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외국불서를 번역 출판한 것이 무려 80종을 넘어서기도 했다.

민족사의 활약에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후 불일출판사(1984), 대원정사(1987), 장경각(1987), 우리출판사(1988), 불교시대사(1990), 효림(1992), 불지사(1992) 등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불교출판의 역량도 확대됐다. 그리고 1989년에는 이들 출판사에서 만들어내는 불교서적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총판회사 겸 출판사인 운주사가 오픈했다. 그러나 불서인구 확대로 잠시 호황을 맞던 불교출판시장은 1998년 경제 한파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30여 개에 달하던 불교전문출판사 중 40% 정도가 문을 닫았다. 불교출판사는 예나 지금이나 몇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며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불광〉 〈민족사〉 〈운주사〉 〈조계종출판사〉 〈불교시대사〉 〈담앤북스〉 등은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출판사들의 모임인 불교출판문화협회(이하 불출협)도 2005년 발족돼 현재 20여 출판사가 회원으로 등록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불출협은 매년 조계종 문화부와 공동으로 올해의 불서 10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불서관련 포상은 예전에도 있었다. 1990년 불교신문 3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출판문화상이 제정돼 93년까지 개최했는데, 특히 이 상은 일반출판사에서도 관심도가 높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 故 최인호의 〈길없는 길〉이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불서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불교계는 물론 사회 안팎은 어둡고 혼란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불서로는 1948년 출간된 고유섭의 〈조선탑파의 연구〉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간이 어려웠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과 함께 1960년대는 '역경출판의 시대' 였다. 동국역경원 설립과 팔만대장경 완역 시작에 대한 조명기 당시 동국대총장의 치사는 1960년대 불교출판의 현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역경출판에 불을 당긴 것은 1963년 대한불교청년회의 〈우리말 팔만대장경〉출간이다.

1960~70년도 다양한 불서 쏟아져 나와
1980년대, 일본 불서 등 번역서 출판 붐
1990년대, 선서 관련 책 출간 대중화
2000~현재, 명상·뇌과학 서적 등 인기

이에 힘입어 1964년 종립 동국대 동국역경원 창설과 더불어 척박한 불교출판을 주도하게 된다. 역경원은 〈장아함경〉 〈불본행집경〉 〈중아함경〉 〈화엄경〉 등을 잇달아 출간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뤄진 이기영의 〈원효사상〉 출간은 당시 대내외 학계의 큰 관심과 방향을 일으켰다. 이시기에는 파월 장병을 위한 불서보내기 운동도 전개했다.

1970년대 불서출판의 시작은 〈한글불교성전〉(1972)이 열었다. 당시 언론은 '우리말 불교성전 출간, 30일 회향 온 불자들의 오랜 숙원 성취, 통불교적인 색채 지녀, 한국불교의 실질적 토대화 이뤄' 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붙였다. 역경원의 〈고려대장경〉(1976) 영인본 전 48권 완간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선종영가집〉, 〈불교사전〉등 여전히 불교출판의 중추역할을 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기치로 수필, 에세이, 시 등 비문학계도 봇물처럼 쏟아졌다.

1960~1970년대 불교계를 주도한 불교출판이 다매체의 등장과 대중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1980년대 들어서는 비주류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서, 전문서 등과 김성동의 〈만다라〉를 시작으로 불교소설의 시원을 이뤘다. 특히 불교학에 있어서 연구단계로 접어드는 개설서가 발간되기도 한 시점이다. 광복 이후 불교학의 최고 대가로 불리는 고익진 박사의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1984)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까지 여전히 유효한 불교계의 문제를 지적한 저서가 됐다.

1980년 출판의 특징은 일서(日書)등 번역서의 출판 붐이다. 현대불교학의 최고 집산지라 불리는 일본서적들의 번역본들이 대승불교사상을 중심으로 출간되기 시작해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출판은 98년 IMF를 중심으로 크게 양분된다. 초반은 사회와 중생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던지는 사회운동사적 수필류가 큰 인기를 끌었고, 1998년 이후 불교출판은 세기말적인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문명의 대안으로 제시받고 있는 선에 관한 선서출간이 붐을 이룬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명상류와 뇌과학, 정신의학 서적 등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 큰 인기를 누린 책이 〈불광〉의 〈붓다브레인〉이다. 불교명상이 사람의 뇌구조를 변화.발달시킨다는 연구내용을 담은 이 책은 신경심리학과 명상 방면에서 잘 알려진 릭 핸슨과 신경학자 리처드 멘디우스가 연구한 뇌과학 전반을 집대성했다. 마음훈련을 통한 뇌 변화의 가능성, 일상에서의 감정변화에 따라 실제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과학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냈다. 출간 20일만에 1만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불광은 〈붓다브레인〉 외에도 〈붓다에게 배운 마음 치료 이야기〉 〈심리치료와 불교〉 〈번뇌리셋수첩〉 〈체험으로 떠나는 네비명상〉 등을 내놓으면서 불교출판의 영역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주사가 시도한 '밝은 사람들 총서' 시리즈도 한동안 눈길을 끌었다.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안목과 사상을 집대성한 '밝은…' 시리즈는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에 이어 올해 마지막 〈행복, 채움으로 얻을 것인가 비움으로 얻는가〉를 출간했다. 매번 출간과 동시에 책에 나온 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찬회를 열면서 다양한 시각을 통해 개념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더욱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동국대출판부의 고공행진도 2010년 눈에 띠었다. 동국대출판부는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명저로 평가받는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를 93년만에 우리말로 완역했다. 1544년에 이르는 한국불교사를 총결집한 역사, 교리, 불교문화의 보고인 〈조선불교통사〉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역주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주사업을 통해 8년만에 완성한 결실이다. 또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7권을 냈고 향후 10년간 250권에 달하는 전서를 편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조계종의 주요 표준서적을 전담하고 있는 조계종출판사도 〈부처님 생애〉 〈조계종선원청규〉 〈남북불교 교류의 흐름〉 등과 더불어 〈왜 부처님은 주지를 하셨을까〉 〈할!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었도다〉 〈원더랜드〉 등 흥미를 끄는 다양한 불서들을 잇따라 출간했다. 특히 오현 스님과 신경림 시인의 만남과 대화를 그린 〈열흘간의 만남〉과 도법스님의〈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지〉는 모두 조계종 출판사가 펴낸 책들로 독자와 출판계의 호평을 받았다. 스님들

은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인터넷 : 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목걸이·팔찌·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주얼드림)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퇴마·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출판
한국불교 출판 70년

90년대 이후 법어, 교리, 명상서 등 봇물



지난 100여년 동안 불교잡지는 포교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사진은 현재 출간되고 있는 불교잡지들.

의 수행에세이와 공부이야기로 불교출판시장의 한 축을 이끄는 클리어마인드도 〈젊은날의 깨달음〉 〈할리우드 붓다〉 〈스님도 군대 가나요〉 〈이게 아인디〉 〈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 〈숙제 이번 생에 해내리〉 등 왕성한 출간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한겨레출판사가 펴낸 〈스님의 주례사〉 21세기북스가 출간한 일본인 스님 코이케 류노스케의 〈생각버리기연습〉 등도 2000년대 들어 서점가서 큰 인기를 누렸다.

불교잡지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만 해도 불교잡지는 오래 간행되지 못하고 폐간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는 불교잡지의 수도 조금씩 증가하며 장수 잡지도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법시〉(법시사, 1963~1992)와 〈법륜〉(월간법륜사, 1968~1993)은 중간에 잠시 중단됐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명맥을 유지한 장수 역사를 기록했다.

그 외에 1967년 대륜 스님이 창간한 〈불교계〉는 1970년 〈불교〉(월간불교사, 1970~)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는 1970년 비구?대처의 분쟁 결과 한국불교 태고종이 새로 창종됐을 때 초대 종정으로 취임한 승려이다. 그가 창간한 〈불교〉는 태고종 기관지로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불교〉 제 1호에서는 1920년대 기관지인 〈불교〉의 전통을 정신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역사성에서도 가장 오래됐다고 하겠다. 그리고 〈불교〉와 함께 1970년대 창간된 잡지로 오늘날까지 간행되는 〈불광〉(불광출판사, 1974~)이 있다.

1980~90년대는 불서 출판과 함께 불교잡지의 황금기라 할 정도로 많은 잡지가 속속 생겨났다. 종단 등록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각종 불교단체, 각 지방의 크고 작은 사찰 및 개인에 이르기까지 많다. 분명한 것은 이전 시기보다 잡지 출판의 여건이 좋아졌고, 공급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의 독자들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잡지는 한국적 근대불교학 형성의 기초를 살펴볼 수 있는 1차 사료를 담고 있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 전문 학술잡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일반 대중 잡지에서는 학술적 성격의 글 대신 지식인들의 칼럼이나 에세이 등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초창기 잡지는 근대불교학과 불교문학을 위한 지식인들의 등용문으로 기능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기를 연구함에서 불교잡지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이다.

초창기 불교잡지에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불교개혁론과 종교 정체성에 관련한 내용이다. 불교개혁론은 교육 · 포교 · 행정 · 사찰 · 승려 등 불교 집안의 모든 구태를 벗어던지고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기본 골자다. 도심불교를 표방하며 근대화에 몰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전통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개혁론은 체제 개선과 종단 설립 문제에 집중됐고, 내부적으로 승려의 인식부터 변해야 함을 피력했다. 결국 불교 개혁을 통해 '문명'에 걸맞은 종교로서 위상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개혁을 통해서만 종교적 위상을 세울 수는 없었다. 문명 종교에 부합하는 이론과 논리가 필요했다.

근현대 불교잡지는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에 주력했다. 불교 역사와 고승에 대한 탐구, 불교 유적지에 대한 탐방 등을 다룬 글들은 독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불교 전통의 계승과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특히 기행문학의 형식을 빌려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글은 잡지 간행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게재됐다. 종교가 보편적으로 인간의 간절한 염원을 희구하여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는 것이라면, 문화는 종교성이 외면으로 형상화되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불교문화유산은 불교를 통해 바라는 인간의 염원이 예술성의 경지로 승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한국의 지정문화재 중 상당수가 불교 문화재인 점을 감안한다면,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불교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는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불교잡지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추적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자부심을 동시에 갖게 한다. 불교잡지가 지닌 이 두 가지 특징은 결국 불교의 종교로서 성격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특수한 불교문화의 전통을 발굴하여 일반에 소개하고 한국문화로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일은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불교잡지는 오늘날 포교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강연이나 법회는 일회성인 데 비해 잡지는 반영구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여 포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단순히 일률적인 주제나 장르로 엮은 단행본이나 소식을 전하는 목적이 강한 신문에 비해 당대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여러 필진의 참여와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라는 점도 잡지의 가장 큰 매력이다. 결국 이러한 매력에 불교잡지의 대중화 전략이 숨어 있다. 즉, 전문성을 갖추면서 지루함을 없앨 수 있는 기획과 편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양한 편집 전략은 초창기 불교잡지에서도 나타난다. 지식의 보급은 물론 독자층의 확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 문답란이나 여성란, 소년란, 현상공모와 같은 코너를 개설하였고, 불전의 번역 및 해설을 게재하여 어려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오늘날 잡지까지 이어진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추세가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가독성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여 삽화뿐 아니라 다양한 사진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그리고 초창기 잡지에서 불교의 포교와 대중화에서 크게 기여했던 것 중의 하나는 불전의 번역이었다. 한문으로 된 부처님 말씀을 한글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당시 포교사업의 최우선이었을지도 모른다. 역경 사업의 선두주자는 백용성이었다. 그는 3 · 1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타 종교 신자들이 한글로 된 경전을 읽는 것을 보고 그렇지 못한 불교의 현실을 통탄했다. 그래서 출감 후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세워 조직적인 역경 사업을 전개했다. 한용운도 일찍이 "경전이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미신처럼 믿으니 종교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래서 1930년대 초 전주 안심사에서 한글 경판이 발견되었을 때 언어도(言語道)를 초월하는 쾌락과 환희를 느꼈다고 술회했다. 역경의 중요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했고, 단행본뿐만 아니라 여러 잡지에 연재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나 초기 잡지에 게재된 경전의 단순 번역은 요즘 잡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경전 번역서가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서 이제는 쉽게 경전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단순 번역을 넘어 필자의 불교학 지식을 반영하여 경전에 대한 강의 형식으로 꾸려지기는 한다. 지식 열람의 창구가 제한적이었던 20세기 초반에는 비록 번역문만 게재하는 형식이었지만 불교 대중화를 위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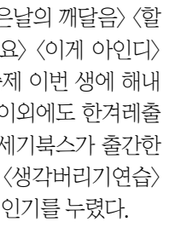
현대 잡지서 불교 대중화를 위한 기획은 지식의 전달이나 종교성 추구보다는 현대인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생활법문 코너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불교와 현대과학' '불교와 21세기' 등 새롭게 바뀌어가는 일상 속에서 불교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을 담아내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 잡지가 내건 표어를 보더라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대중과 더불어 생활하는 월간지'인 〈불교세계〉, '현실 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인 〈불광〉 등 이제 불교잡지의 주된 관심은 현대인의 삶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선(禪)불교와 불교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템플스테이나 신행 수기 등을 다루는 코너가 눈에 보이게 늘고 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불교잡지는 포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세상에 빛을 본 잡지만 해도 아마 100종이 넘을 것이다. 특히 1970년 이후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잡지 수가 늘어났다. 1970년대에 창간되어 40년이 넘도록 간행되고 있는 〈불교〉와 〈불광〉과 같은 잡지도 있다. 또한 92년부터 발행된 대한불교진흥원의 〈불교문화〉, 1999년부터 월간으로 발행되는 〈맑은소리 맑은 나라〉 100호를 눈앞에 앞둔 〈판전봉은〉, 한마음선원의 〈한마음〉 등이 현재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불교잡지들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터넷 잡지도 등장했다. 이로 인해 잡지의 역할이 웹상으로 이동한 면도 없지 않지만, 문서로서 잡지가 갖는 의미가 퇴색하지 않는 이상 불교잡지의 역사는 21세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불교의 대중화는 잡지의 목표가 아니다. 이제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근현대 불교잡지의 간행도 문서 포교 역사의 오랜 전통의 연장선상서 이해가 가능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인물로 보는 출판 70년

▲법정 스님


법정 스님

한국불교계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작가를 한명 꼽으라면 단연코 법정 스님이다. 〈영혼의 모음〉 〈서 있는 사람들〉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등 40여 종 이상의 책을 펴내며 문서포교의 일등공신으로 자리잡았던 스님의 진가는 입적을 하고서도 더 크게 발휘됐다. 2010년 3월 11일 입적한 법정 스님이 남기고간 '맑고 향기로운 책'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1년 내내 주요 서점가의 메인 자판은 법정스님의 저서들이 차지했다. 스님의 수필집 〈아름다운 마무리, 2008〉는 입적 직후 한국출판인회의가 집계하는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6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입적 이후 판매량만 25만부에 달했다. 뿐만아니라 〈일기일회〉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산에는 꽃이 피네〉 〈인연이야기〉 〈오두막 편지〉 〈홀로 사는 즐거움〉 〈맑고 향기롭게〉 등도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1976년 출간된 〈무소유〉도 추가발행이 시작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는 스님의 유언으로 인해 저서들의 희귀성을 높였지만, 2011년부터 스님의 유지에 따라 도서판매가 중단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

▲고은 시인


고은 시인

한국의 대표적인 참여시인이다. 1952년 20세의 나이로 입산해 승려가 되었으며 법명은 일초(一超)로 효봉선사의 상좌가 된 이래 10년간 참선과 방랑의 세월을 보내며 시작 활동을 하다가 1958년 〈현대문학〉에 시 〈봄밤의 말씀〉 〈눈길〉 〈천은사운〉등을 추천받아 등단하였다. 1960년 첫 시집 〈피안감성〉을 펴냈으며 1962년 환속해 시인으로, 어두운 독재시대에 맞서는 재야운동가로서의 험난한 길을 걸었다. 1974년 시집 〈문의 마을에 가서〉를 출판하며 시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며 이후 시 · 소설 · 수필 · 평론 등 100여 권의 저서를 간행했다. 1984년 〈고은시전집〉을 펴냈고 1986년 〈만인보〉간행을 시작했다. 1987~94년 서사시 〈백두산〉, 1999년 시집 〈머나먼 길〉을 간행하고, 미국 하바드대학 하바드옌칭 연구교수, 버클리대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전세계 10여개 언어로 50여권의 시집, 시선집이 간행됐다. 저서로는 〈허공〉 〈개념의 숲〉 〈오십년의 사춘기〉 〈고은 시 선집〉 〈고은 전집〉(총 38권) 등 1백여 종이 있으며, 2010년에는 연작시편 〈만인보〉가 전 30권으로 완간됐다. 2011년에는 작품활동 5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을 전면에 내세운 연시집 〈상화 시편〉을 발표했다. 최근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으로 가는 길 (대,소)

달마도 (대,소)

밝고 향기롭게 (대,소)

선화의 향기 (대,소)

반야심경 (대,소)

산사의 꽃 야생화 (대,소)

암자에 길을 묻다 (대,소)

부처님의 성지 (대,소)

그리운금수강산 (대,소)

붓다의 향기 (대, 소)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수첩

트윈스프링 차걸이


선묵 혜자 스님이 108산사 기념공원에 들어설 기념비를 가리키고 있다. 스님은 순례를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더욱 많은 이들이 새로운 서원을 세울 수 있도록 53기도도량 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一心光明으로 하나된 마음 순례의 참공덕”

108산사 순례 이어 53기도도량 찾아나서는 혜자 스님

“시작할 때는 검었던 회원들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분들의 남다른 신심과 원력이 아니었으면 9년간의 순례를 마치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108산사순례기도회의 대회향을 앞두고 혜자 스님은 그 공을 오롯이 기도회 회원들에게 돌렸다. 스님은 “무사히 사고 없이 회향할 수 있어 더없이 좋다”며 “순례 때마다 일심광명의 무지개가 뜨듯,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 순례는 전국 각지에서 9년 간 월 평균 5000여 명의 불자들이 참가했다.

혜자 스님은 “회원 모두가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한 보현행자”라고 했다.

스님은 “80세의 한 노보살님의 경우 순례를 다니다 다리가 아파 버스를 탈수 없게 되자 아들이 직접 차를 몰며 어머니를 태우고 6년간 순례에 동참했다. 지금껏 한 차례도 빠지지 않은 분들을 비롯해 모두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문사 치아사리 친견서 발원해

108산사순례는 처음 사찰 답사로 진행됐다.

“2006년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중국 시안(西安) 법문사에 참배 갔다가 불현듯 ‘가보지 않은 사찰을 말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 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108산사순례를 발원하고 첫 순례로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통도사 적멸보궁으로 떠났다. 상서로운 일이 이어졌다.

“보궁 앞에 서니 무지개가 뜬 것 아니겠습니까. 일심광명에 모두가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이후 108산사 순례에는 70회가 넘게 무지개가 떴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스님과 회원들의 환희심이 높아져 갔다. 인도 쿠시나가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얻어 백담사에 기증할 때도 무지개가 떴으며, 평화의 불을 이운해 임진각서 통일기원법회를 열 때도 무지개가 떴다. 부처님의 가피일까. 대장정임에도 순례객이 첫 순례에서만도 2000명을 훌쩍 넘겼고 점점 증가해 5000여 명에 이르렀다. 순례도 사찰 답사에서 농산물직거래를 비롯해 군장병 위문과 다문화가정 돕기 등 다양화됐다.

스님에게도 많은 별명과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 붙었다. 늘 온화한 미소로 회원들에게 행복을 전해줘 ‘포대화상’ 으로 불리는가 하면 ‘무지개 스님’ 으로도 불렸다. 또 ‘농촌사랑 홍보대사’ 로도 불린다.

생명 · 평화 지키는데도 앞장서

스님은 이제 ‘평화의 전령사’ 라고도 불린다.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순례를 진행하는 동안 혜자 스님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채화해온 ‘평화의 불’ 도 이운해 왔다. 바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였다. ‘평화의 불’ 은 네팔의 가넨루러 비터 왕세자가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3000여년 동안 자연적으로 타고 있는 ‘꺼지지 않는 불’ 을 채화한 것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져온 불씨를 합쳐 룸비니 평화공원 제단에 영구점화된 불이다.

“이 불을 가지고 천장기차와 비행기 등을 갈아타며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스님은 2007년부터 전국 산사에 평화의불을 분등(分燈)해 주고 있다.

“임진각에서 통일기원법회를 할 때였어요. 법회를 위해 출발하기 전 임진각에 비가 쏟아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갖고 도착하니 거짓말처럼 화창해지더군요. 그리고 나서 큰 무지개가 떴는데 동그란 일심광명 무지개와 달리 일자로 쭉 뻣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통일로 하나가 되라는 부처님의 가피구나’ 했습니다.”

실천하는 불자가 돼야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단순한 사찰 순례를 넘어 도농 교류와 사회기여에도 앞장서고 있다. 직거래 장터 개설을 비롯한 많은 활동은 스님의 상생 정신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했다.

스님은 “그 동안 불교계에서는 많은 산사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정작 사하촌(寺下村)이나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에는 많은 도움이 못됐다”며 “부처님의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 대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불교의 정체성을 세워나간다는 원력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러한 활동이 곧 수행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행의 일환으로 최선을 다한 이타행(利他行)을 권하셨습니다. 불자라면 자비(慈悲), 나눔, 인욕(忍辱)과 같은 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스님은 “108산사순례 기도회의 궁극적인 목표도 불법홍포와 수행, 나눔 그리고 행복한 사회 건설에 있다”며 “보시는 현대적으로 나눔 또는 봉사하고 말할 수 있으며 대승보살행은 불교의 실천적 측면과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보시와 상통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님은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원력이 있다 해도 그에 부응하는 노력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내가 배우고 얻은 것을 중생 속으로 되돌릴 때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우리 불자들은 중생들에게 사랑과 봉사하는 회향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년 1월부터 ‘53기도도량 순례’ 진행

스님은 2차 순례도 준비하고 있다. 회향에 대해 아쉬워하는 신도들이 많기 때문이다. 2차 순례는 2016년 1월부터 ‘선묵혜자 스님과 믿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 로 진행된다. 53선지식을 의미하는 53사찰을 찾는 순례다.

이와 함께 108산사 순례를 하며 가져온 성토(聖土)를 봉안해 성토단을 만들고, 108산사 기념비와 그동안 순례에 동참한 회원의 명부를 비문으로 개시는 불사도 전개하고 있다.

스님은 “108산사 순례를 하며 각 사찰의 흙을 조금씩 가지고 왔다. 108산사의 정기가 담긴 이 흙을 함께 봉안해 기도하면 108산사에 간 것과 같은 감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10월 15일 신계사 남북합동법회에도 참석해 북측과 108산사 순례를 통한 평화의불 분등을 조율했다.

“이번 순례에는 평양의 광법사, 묘향산 보현사 등 북한의 사찰도 포함시켜 평화의 불을 평양에도 밝히고 싶습니다. 53산사 순례는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희망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개근자들에게 듣다 108산사 순례 하며 오히려 힘을 얻었어요.

“몸이 아파도 완주 한 것 감사할 뿐”

박유란(80) 보살



허리를 다쳤는데도 신기하게 108산사 순례를 갈 때면 아프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절절 매면서도 순례를 가는 날이 오면 가게 되더군요. 그래서 108산사 순례에 모두 참여한 것에 부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나이가 들며 하루라도 젊은 나이에 사찰을 다녀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마음을 알고 끌어 주신 것은 아니련지요. 2차 순례에서도 저 처럼 나이가 있더라도 동참해 인생의 서원을 세우길 바랍니다.

“욕심 버리는 참회의 마음 생겨”

대지성 백말순(65) 보살



108산사순례를 하며 참회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욕심을 갖고 살았구나 하며 남은 여생을 겸허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회향을 앞두고 인도순례를 갔을 때였어요. 부처님 8대 성지를 순례한 것도 좋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려는 아이들의 가련한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와중에 건립이 된 선혜학교는 저에게 큰 공덕을 쌓게한 기회였습니다. 우히 회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보람된 순간이었어요.

“부부 간 추억도 많이 쌓았죠”

법륜행 임전옥(57) 보살



처음 도선사에서 철야기도를 발원하며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가보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청평사 였습니다. 바로 남편이 동행했기 때문이었죠. 저희 남편은 회원인데 회사일로 휴가 때만 동참했어요. 오랜만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남편과 저의 추억도 됩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법주사에서는 부부 육법공양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108산사 순례를 하며 부부사이도 좋아졌어요.

“108산사 순례하며 딸도 한명 얻어”

공덕심 김남수(54) 보살



울산에서 처음에 불교계 신문을 보고 동참하게 됐습니다. 도선사 석불 앞에서 108배를 하고 남편과 함께 도시에서 찌든 마음을 힐링 시킨다는 마음에서 걸망 메고 다녀보자고 했죠. 108차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에서 함께 해준 도반들과 한결 같았던 남편의 힘이 큽니다. 저희 부부는 108산사 순례를 하며 딸을 한명 얻었습니다. 바로 다문화가정인연맺기를 통해서입니다. 수시로 연락을 하며 오히려 이 아이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합니다.

불조정맥 제77조 전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3번째 저서 출간!!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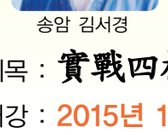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 공안의 교과서 〉라 할 것입니다.

* 각권 15,000원 / 전권 구입시 15% 할인됩니다.
031-534-3373 / 010-4520-7963

〈도서출판 바로보인〉이 〈도서출판 문젠〉으로 개명되었습니다.

實戰四柱 강좌 안내

運命을 개척하는 實戰四柱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운명을 개척하자!”


송암 김서경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實戰四柱 종합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법사님 등 누구라도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파멸과 부귀영화는 나 자신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습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시고 무량공덕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 實戰四柱 강좌
◐개강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강의일시 : 매주 월 ~ 화, 목 ~ 금 (10-12시, 15시-17시, 19시-21시) 하루 2시간 강의
◐강의과정 : 1년 과정 + 육효, 성명학 4개월
◐강의장소 : 명리학연구원 강의실
◐강의교재 : 實戰四柱 (교재비 무료)
◐수 강 료 : 월 20만원

명리학(命理學)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1
농협건물 4층 401호
전화 010-3341-4867
원장 송암 김서경

實戰四柱 책 판매 안내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별도 판매합니다)

이 실전사주책은 1,030페이지로 사주팔자가 구백육십개이며 용신과 대운과 세운, 질병, 성격, 팔자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책만 배우면 어떠한 사주라도 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1년만 배우면 타인을 감정해 줄 수 있으며 육효도 필히 배워야 합니다. 사주와 대운은 큰 틀이며 매월의 운세와 승진, 합격, 재물, 매매, 송사, 문서, 생과 사, 택일, 일진, 모든 길흉사는 육효로 감정합니다. 육효는 4개월만 매우면 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 85,000원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2012년 10월 3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8산사순례기도회 6주년 기념법회 모습. 당시에도 예고됐던 비를 대신해 일곱 색깔 무지개가 하늘에 걸렸다. 선묵 혜자 스님과 기도회 회원들의 지극한 신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2010년 3월 향일암에서 하늘에 걸린 무지개와 혜자 스님의 모습



2011년 2월 네팔 룸비니에서 평화의불을 채화했다.



순례 때마다 기도회는 군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전달했다.

가는 곳 마다 자비훈풍… 신행문화 새바람

108산사순례기도회 대장정의 발자취

'선묵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이하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한국불교의 신행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08산사순례기도회가 10년간 걸어온 길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신행문화를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도농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기여, 소외계층 돌봄 등의 활동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맞게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혜자 스님은 부처님이 중생구제를 위해 떠난 마음과 같이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이끌었다고 전한다. 5000여 회원들이 매달 108산사를 찾아 108불공을 올리고 108배를 하며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자비나눔선행공덕을 실천해 108염주를 만들어 간 데에는 매회 빠지지 않고 직접 염주를 꿰며 기도회를 이끈 혜자 스님의 원력이 있었다.

이런 원력 하에 이뤄낸 일은 실로 엄청나다. 108산사순례기도회에 동참한 인원은 108차까지 매회 5000여명씩 총 54만명을 상회한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매달 모이는 것은 불교사적으로도 유래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동원된 차량도 1만 1664대에 순례거리는 817만 3460㎞에 달한다. 지구를 204바퀴돌고 달 왕복을 11번 할 수 있다. 공양미로 올려진 쌀도 3000가마가 넘는다.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찾은 사찰은 대부분이 창건 이래 가장 많은 불자들이 운집하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회원들의 신심증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108산사 마다 염불과 기도를 하는 한편, 108참회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다. 많는 회원불자들이 순례에 동참하고 각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이러한 마음을 다시 회향했고, 다시 가족 차원에서 동참하는 가정이 늘어났다. 동참불자들에게는 낙관과 해당사찰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을 보시하는 등 신심을 배가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신행활동 뿐만 아니라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도농공동체를 일구는 활동도 펼쳤다. FTA 타결로 인해 농촌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농어촌 직거래장터 및 농촌사랑봉사단을 발족했다. 직거래를 통해 거래된 금액만 30여 억원에 달한다.

또한 군장병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410만개가 넘는 초코파이 보시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환경사랑 실천운동, 108효행상(122명 시상), 다문화가정 108인연맺기(207가족), 소외계층 108장학금(223명 전달) 등 자비나눔에도 앞장서 불교계의 자비나눔 실천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켰다.

선묵 혜자 스님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108산사 순례를 하는 불교계 단체가 50여 곳에 달한다.

순례거리 817만 3460km, 지구 204바퀴
동참 총 54만명, 불교사서도 유래없어
농어촌 사랑, 자비나눔 실천도 전개해

이 중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주목받는 것은 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순례의 대표적 행사가 지역 농 · 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다문화 여성농업인 인연맺기다.

2006년 11월 합천 해인사에서의 2차 순례 이후 회원 신도가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할 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 시초가 됐다. 선묵 혜자 스님도 농촌을 지척에 두고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한 무공해 청정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면 되겠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리를 마련하니 신도들의 동참이 줄을 이었다. 3일간 5000여명이 1만원씩만 구매해도 농가소득이 5000만원이나 된다. 이후 혜자 스님은 '농촌사랑 홍보대사' 로 위촉돼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108산사순례 기간 동안 열린 직거래 장터일 수만도 334일로 거래대금은 30여 억원에 달한다.

혜자 스님은 또 하나의 의미있는 시도를 했다. 다문화 여성농업인과 순례회원 간 '인연 맺기' 가 그것이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 농촌에 수많은 이민여성이 거주하고 2세가 성장할 텐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게 스님의 생각이었다. 인연맺기 행사는 2008년 2월 충남 공주 마곡사에서 네팔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당초 매월 2명씩 농촌 다문화가정과 108산사순례회 가정을 연결해 108결연을 하고자 했지만 동참인원이 늘어 205결연까지 진행됐다.

또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소외계층을 보듬는 일도 진행했다. 또 사찰 인근에 조손가정을 비롯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한 선묵108장학금은 매월 지역 청소년 2명을 선정해 혜자 스님이 54만원 씩 108만원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총 223명이 수혜를 받았다.

약사여래 108보시금은 혜자스님이 고성 옥천사 순례 당시 '대상포진' 으로 고생한 후 '내 이웃이 겪는 병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하겠다' 는 발원을 하면서 시작됐으며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매월 108만원의 약값과 병원비를 지원했다. 총 59명이 혜택을 받았다. 선묵 108효행상은 효행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제정해 효자효부 123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여기에는 아버지에게 장기를 이식한 사연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군장병 사랑 실천도 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07년 논산 관촉사에서의 6차 순례 시 군장병을 초청해 순례행사를 진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 군장병들이 순식간에 몰리며 상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군장병들의 어려움을 체감한 신도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초코파이를 준비해오기 시작했다. 전체 순례기간동안 전달된 초코파이는 415만개로 일렬로 늘어뜨리면 4150km를 덮는다.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총괄한 이해남 사무국장은 "108산사순례기도회 활동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신행운동이 확산된 것은 한국불교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며 "동참한 모든 불자들의 가정에도 108산사의 가피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108산사순례기도회가 걸어온 길

2006년
9월 108산사순례기도회 발대식 및 서울 도선사서 입재식
11월 순천 송광사에서 첫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2007년
1월 우리농촌살리기 선포식 및 희망의발대식
2월 제1회 신행수기 시상식 개최
2월 논산 관촉사에서 첫 군장병사랑 초코파이 보시 시작
7월 신행단체 최초 전세열차로 안동 봉정사 순례

2008년
2월 공주 마곡사에서 첫 다문화가정 108인연맺기 시작
2월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동산에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
5월 대구 동화사에서 북한어린이 위한 자비 우유 나누기 운동 전개
10월 108효행상 시상
12월 동국대 일산병원 환자 쾌유 기원법회

2009년
3월 인천항에서 북한어린이 돕기 우유 선적
4월 저소득가정에 108약사여래 보시금, 108선묵 장학금 전달
6월 십중대계 수계산림법회 개최
12월 신행전법순례집 발간 봉정식
12월 서울역에서 종교초월 자선냄비와 함께 불우이웃돕기

2010년
1월 지진 피해 아이티 돕기 성금 전달
4월 동국대 중강당에서 '순례' 주제 국제학술대회
12월 성탄절 맞이 서울 평화를 만드는 교회 방문

2011년
3월 양양 낙산사에서 일본 지진해일 희생영가 극락왕생 기원법회
8월 청양 장곡사에서 북녘동포 돕기 공양미 300석 모으기 운동 전개
12월 서울 인사동에서 연말연시 자비나눔 탁발

2012년
2월 네팔 룸비니에서 불사리봉안 탄생불 제막
5월 108산사 충주 선묵원 수월관음 개음불사 봉행
9월 영천 장수 및 과일축제장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2013년
4월 네팔 룸비니서 '평화의 불 채화'
5월 임진각에서 '평화의불 봉안' 및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기원 대법회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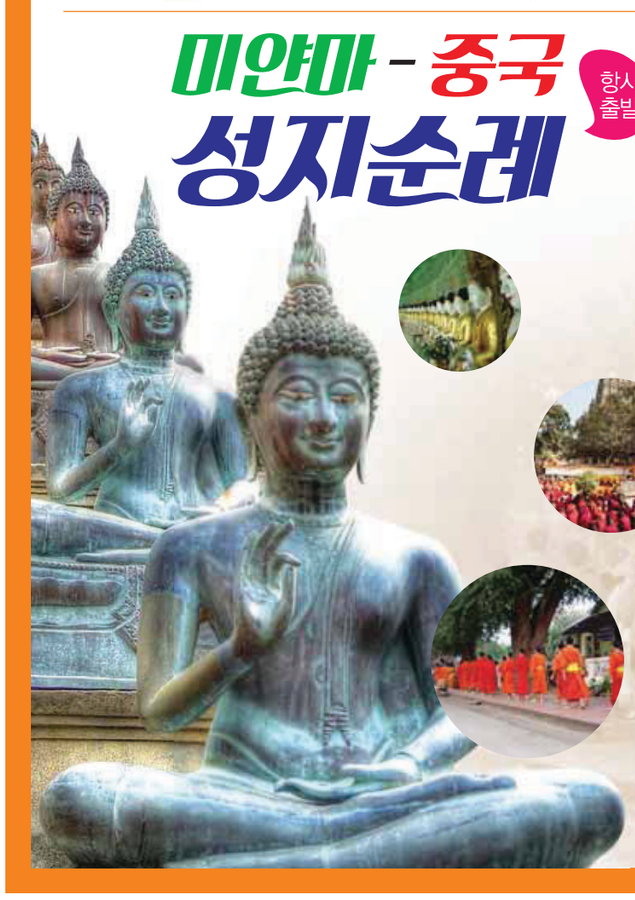
2014년
4월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기도
9월 민족성지 백두산 순례

2015년
10월 서울 수락산 도안사에서 108차 순례 및 순례기도회 회향대법회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출발일: 2월 16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11월 2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출발일: 12월 5일, 12월 12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10월 20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10월 31일,11월 21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출발일: 12월 2일, 12월 30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대행 스님

우리들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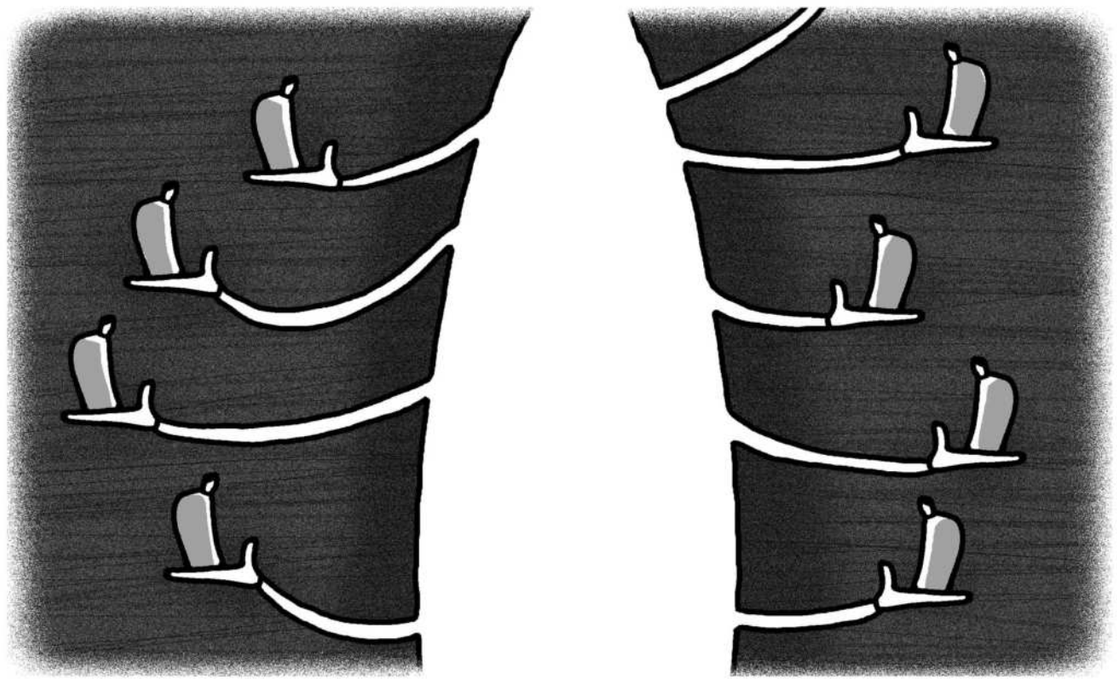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토론토 여러분과 함께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자리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발전을 해야 옳을는지는 여러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불은 일체 만물만생의 근본을 불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본. 또 우리가 태어나서 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물리가 트이고 지혜롭게 나가는 그 발전력은 바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진행되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이 바로 교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리 생각하시고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라는 이 자체는 진리인 것이지, 한군데 국한돼 있는 종교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공기주머니 안에서 한 발짝도 떼 놓지 못한 채 이렇게 살고 있나를 말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미의 삶이나 어떠한 짐승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기주머니 가운데서 그 공기주머니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 안에서 복닥거리면서 서로 투쟁하고 쟁취하고 서로 헐뜯고 네 종교가 옳으니 내 종교가 옳으니 그러고 싸우고 삽니다. 생각을 깊이 해 본다면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개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생살이는 한 철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는, 인생에 한 철밖에는 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한 철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 생의 옷이 주어집니다. 모습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모습이 주어지고 즉, 자기의 용도가 주어집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나 아님이 없어서 싸울 필요가 없겠지마는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차에 걸쳐서 수억 광년을 거치면서 진화되고 또 형성되고 진화되고 형성되고 해서 고등 동물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게 하기를 헤아릴 수 없이 해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도, 사람까지 올라와서도 내 부모 아니고는 남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레로부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었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돼서 형성돼 올라온 자체를 볼 때,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모두가 그러한 고로 우리는 적대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항상 한마음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대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못났든 잘났든 너부터 발견하라. 너부터 알아라. 참너부터 믿어라.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말한다면 자동차를 너라고 하지 말고 자동차 속의 운전수를 너라고 해라. 믿어서 너를 발견한다면 운전수와 자동차가 콤비가 돼서 항상 같이할 수 있어서 살기가 유유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살아나가는 것을 가만히 볼 때에 당장 내 부모만 아니면…, 내 부모도 싫다고 하는 세대 아닙니까? 내 부모를 싫다고 할 때 내 자식은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즉 부처님 법입니다. 우리의 생활 없이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노라.'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고등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살아나가는 데 정신계 50%, 물질계 50%를 겸해서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듯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50%의 물질로서만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막히고 걸리고…, 다시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돼 버리고 말죠. 극한 일이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치를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모두 항상 자동차를 자기라고 해요. 즉 말하자면 나무로 치면 뿌리를 자기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싹을 자기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다라고 그래요. 싹은 뿌리에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 보내야만 싹이 푸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무르익어서 남을 주기도 하고 내가 먹기도 하고, 세세생생에 그게 끊임없이 아마 베풀어질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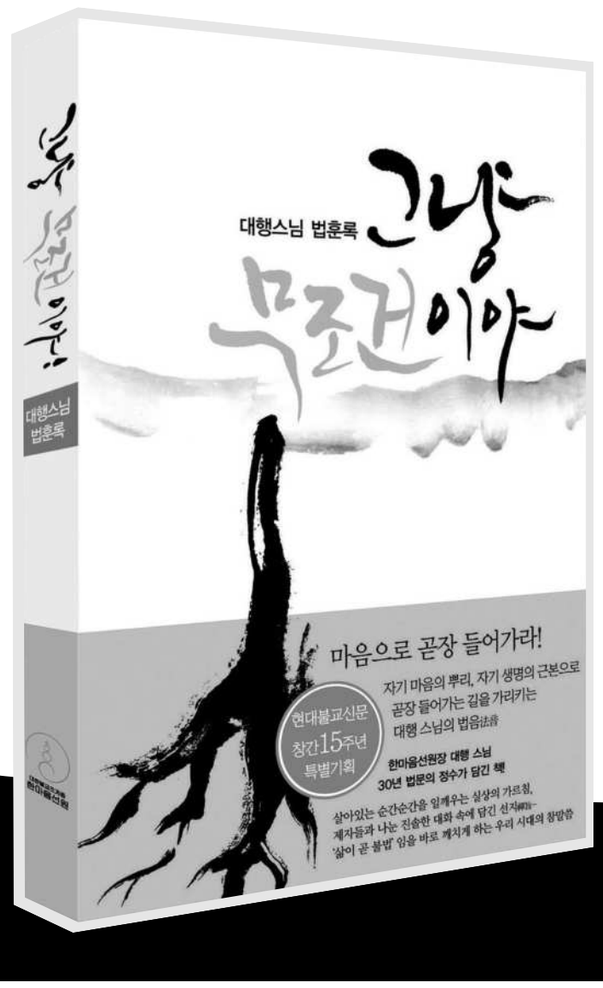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넉넉해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겠지마는 천차만별의 색상도 많이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우주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해서는 안 되겠군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하고도, 우리의 마음하고도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자기와 자기가, 즉 말하자면 참자기는 부(父)라고 하고 이 몸은 자(子)라고 합니다. 부와 자가 통하면 일체 만물하고도 통합니다.

이 모두가 삶에서 극복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가지겠지만 이 도리를 알면, 그리고 모르더라도 내 주인공 내 주장자를 쥐고 나가면 그렇게 내 마음부터 편안해집니다.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식구가 편안하고, 위로는 조상, 아래로는 자녀들이…. 도라는 것은 실천이 아니면 도가 아닙니다. 이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패기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격과 능력은 아주 문을 닫아 버리고 남의 거를 바라고 이름을 찾는가 하면 형상을 찾고 믿고, 지금 상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거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바깥의 형상을 믿어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이 있고 사대 성인들이 있고, 여러 종교의 성인들이 있다고 합시다. 부처가 이 자리에 있어도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대신 죽어 줄 수 없고 대신 아파 줄 수 없고 대신 똥 눠 줄 수 없고, 대신 먹어 줄 수 없고 대신 잠자 줄 수 없고 대신 깨달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도리를 완전히 터득하신다면 여러분은 다 남을 위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대신해 줄 수 없다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어떤 사람이 하혈을 해서 죽게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도무지 그치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한국으로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관하라. 알았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멈췄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와서 머리를 깎아서 신을 삼아 드려도 이 신세를 못 갚겠다고 하더군요. 애 다섯을 두고 내가 죽었더라면 어떡할 뻔 했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죠. "이것 봐. 나만이 당신을 위해서 해 준 게 아니야. 너의 전깃줄과 내 전깃줄이 한데 붙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야. 이 도리를 알아야 해. 못났든 잘났든 내가 없어도 아니 되고 상대방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을 말해서 상대성 원리라고 해. 그러나 우리의 참다운 참은 누가 해 줬다, 고맙다 이러기보다도 고마우면 자기 주인공한테 고맙다고 해라 이거야.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자기를 운전하는 자기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의 원동력을,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을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하라." 하고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나를 만날 수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마음이 넉넉해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29면에서 계속

도 없고 종교라는 것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만이 귀중한 겁니다. 나부터 귀중한 걸 알고, 나부터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나부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면, 아마 자기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벗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불교는 참 알기가 어려워."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교는 진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불교가 그렇게 진리라면 그냥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생활 자체를 그대로 진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서서 다니고 또 앉아 있고,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본다면 그대로 참선입니다.

아까 공기주머니가 만약에 버스라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복닥거리고 산다고 그랬죠.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물질도 돌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정착돼 있는 걸로만 보이죠. 우리가 거꾸로 섰든 바로 섰든 바로 서 있는 것 같죠? 그러니 생각하면 개미의 살림이나 우리의 살림이나 수만, 그 천차만별의 삶이나 뭐가 다릅니까? 좀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것뿐이지.

그래서 똑똑히 나를 보라. 각자 말입니다. 각자 자기를 보라. 자기 몸뚱이 속에 얼마만큼 생명들과 모습들과 의식들이 들어 있나. 내가 밥 한 그릇을 먹고 물 한 컵을 먹을 때 내가 먹는 건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몸뚱이도 지구와 같고 우주와 같고 세계와 같은 겁니다, 몸뚱이 하나가.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다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용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한 거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누가 먹는 것입니까? 그 육신 속의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먹으며 우리는 심부름을 해 주는 바로 심부름꾼이라 이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심부름꾼이 따로 없습니다. 안에서도 그거를 줘야 작용을 해 주고 또 바깥에서도 그렇게 심부름을 해 주지 않는다면 안에서 작용을 못해 줍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한마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따로 없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버지가 됐거나 어머니가 됐거나 한 가정에서 살아 보실 때 자연스럽게 "엄마!" 하면 엄마가 되시죠?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하면 금방 자동적으로 그냥 아내가 되시죠? 남녀를 막론해 놓고 그렇죠. 그뿐인가요?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얘,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나중에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동시에 그냥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사실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고 살아나가는 게 과학적이며 바로 천체물리학적이기도 하고 천체의학적이기도 하고 천체과학,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남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먹을 수 있어야만 도니라 이겁니다. 진짜 인간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벗어나는 대장부라 일컬어지는 사람이라면 그쯤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체가, 그래서 불가에서 이런 게 있어요. 심안으로 보는 거, 심안으로 듣는 거, 그것을 천안통 천이통, 남의 마음을 잘 아는 거를 타심통, 또 신족통, 이 몸뚱이가 오고 감이 없이 가고 온다



자동차를 너라고 하지 말고 자동차 속의 운전수를 너라고 해라.
믿어서 너를 발견한다면 운전수와 자동차가 콤비가 돼서
항상 같이할 수 있어서 살기가 유유하느니라.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숙명통, 내가 어디서 나온 줄을 아는 것이 바로 숙명통입니다. 그런데 그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무색하게도 우리의 대뇌 정수의, 즉 말하자면 부속품밖엔 될 수가 없어요. 도가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했죠. 물을 보기만 하고 "아, 저기 물이 있더라." 하고 예언을 해도 그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다는 거를 번연히 보고 알면서 남에게 주지 못하고 자기가 먹지 못한다면 그거는 소인의 예언이니라. 그래서 모두가 "예언자는 소인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가 실천을 하는 것만이 도다. 내가 물을 봤으면 갖다 주고 갖다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도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물 과학자죠. 무의 과학자예요. 유의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 유를 한데 합쳐서 과학자죠. 이렇게 말한다면 선구자라고 해도 되고요, 구원자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데 이름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오신통이 오신통이 아니니라. 그거를 아주 첨단으로 이 우주를 내다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 왜냐? 그 오신통이라는 건 부속품으로서 자동적인 정수의 컴퓨터의 부속이다 이겁니다. 이 대뇌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에서 들이고 내는데 입력을 하기 위해서 그 오신통은 부속과 같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두가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돼서 차례차례로 현실로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닥치는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들을 하시죠? "내 운명이 이것밖엔 안 되나. 내 팔자가 왜 이렇담!" 아,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자기가 모두 벌여 놓은 거, 자기 운명이지, 누가 어떡합니까? 누가 갖다 주기를 했습니까, 누가 뺏어 가기를 합니까? 수억겁 전으로부터, 광년으로부터라고 해야 옳겠죠, 지금 사람들은. 수억 광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온,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됐던 그 자체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을 나쁘게 갖지 마라. 남의 말을 듣고 무조건 믿지 마라. 부처님이 여기 계셔도 따르랬지 믿으라곤 안 그랬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너부터 알아야 내 마음이 네 마음과 둘이 아닌 줄 알게 되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하느니 뭘 하느니 하는데 참 중대한 일입니다. 물질로서 보시를 아무리 해 봤던들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를 하되 이거를 주면서 꼭 대가를 바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나거나, 나에게 뭐 나중에 더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모두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무주상 보시로 하라. 함이 없이 하라. 보시를 함이 없이 하라. 이거는 너와 둘이 아닌까닭에 한 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값에 의해서 그 돈을 치르고 물건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신다면 피장파장이지, 누가 보시를 한 겁니까? 누가 좋은 일을 한 겁니까, 도대체?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길을 지나가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한 마리를 본다 하더라도 나와, 내 모습과 둘 아니게 볼 수 있는 사람, 내 아픔과 둘 아니게 아픔을 느끼는 사람, 모든 걸 전체를 둘 아니게, 소뿐만이 아니라 일체를 둘 아니게 보는 사람에 한해서만이 무주상 보시로서 공덕이 주어진다는 얘깁니다.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 싸움이 벌어진 걸 보면, 어떤 사람은 발길로 차면서 말리는 척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요. 말리는 척하면서 돈 얻고요. 그거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지죠. 또 돈을 좀 달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구인이 돼서 휠체어를 타고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때도 버젓이 그냥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아주 남 보는 데 이렇게…,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가 쑥스러워 할까 봐 몰래 그냥 넌지시 얼른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쑥스러워 할까 봐 물건을 아주 비싼 값에 다 팔아 주고 가요,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는 이가 불구인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깎아서 사는 사람이 있죠, 또. 그러니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마음들이.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르니까 도둑질도 하고 모르니까 어리석은 짓도 하고 모르니까 나쁜 짓도 하고, 모르니까 그런 거지 마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몰라서, 알 때까지는 그렇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가 죄가 없다고 할 수밖엔 없습니다. 모두가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붙을 자리가 없죠. 왜냐?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컴퓨터에 입력이 된 대로 거기다가 되입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게 그거죠. 주인공에다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 나오는 거, 속에서 들끓어서 나오는 거,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액운,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가 맡겨라. 그러면 앞서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서 그 새 입력이 들어간 것이 현실로 나온다. 즉 말하자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통하는 통로는 여기밖엔 없습니다. 우주하고도 통하는 길이 여기밖엔 없고, 모든 일체 만물하고도 통하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통로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얼마 안 된 일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고립돼서 은행으로 다 뺏기고 인제는 집까지 뺏기게 돼서 거리로 애들하고 나서게 된다고 하면서, 내가 길에 나왔는데 그 땅바닥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보잘것없는 고깃덩어리, 한 중한테 뭐 볼 게 있다고 거기 길바닥에서 절을 하겠습니까? 남의 말은 들었지만 자신은 그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라는 거를 다 버린 겁니다, 아주. 아시겠습니까? 자기라는 거, 자기 위신이라는 거, 양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몽땅 몸째 버린 거예요. 죽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어차피 죽으려면 그렇게 죽어야지.' 그러고선 왜 땅에서 이럭하시느냐고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해 놓고선 열심히 관하시라고, 그래도 관하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저 관하시면서 부지런히 뛰라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더니 "아이, 집은 건지게 됐습니다." 얼마 또 있더니 와서 "아유, 그 공장 하던 것도 되찾게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찾게 됐느냐 이런 것도 묻고 싶지 않아요. 죽게 되는 식구를 건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물어요? 그렇게 좋다면 나도 좋은 거죠.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죠. 그 이유를 묻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이 정신계의 무의 법이 그렇게 귀중하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바로 그런 법이 50%에 모두 해당됐다고 볼 수 있죠. 할 줄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권리를 가지고, 다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럽니다. 다른 거를, 이름을 믿고 빌고 기도하고 또는 형상을 믿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어느 법당에 가든지 강당에 가든지 형상은 네 형상과 똑같이 둘 아니게 보라. 그 마음이 둘 아니다. 내 형상과 둘 아니면 마음도 둘 아니고 법 또한 둘 아니다. 그러니 둥글게 내 마음과 모든 걸 한데 합쳐서, 일배를 올리더라도 둥글게 일배를 지극하게 올리고 나올 때 다시 주인공에다 맡기고 나오너라.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처라고 말하면,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로 이게 벌어지니까, 이것은 내 몸뚱이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있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죠? 바깥의 모두가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님으로다가 하나로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기 주인공입니다, 각자.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10월 27일 토론토지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since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저렴한 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상호인쇄 미니:상호인쇄 수첩: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200부 이상 @ 1000 원
• 백부이상 @1,2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 30cm × 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 26cm × 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